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평가 및 발전 방향

목 차

I.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4
3. 연구 방법	5
II. 익산시 여성 및 정책 현황	11
1. 익산시 여성 현황 및 여건 전망	11
1.1. 인구 현황	11
1.2. 산업 및 경제활동	13
1.3. 사회 참여 현황	16
1.4. 사회복지 관련 시설 현황	19
1.5. 여가문화	23
2. 여성정책기본계획 현황	26
2.1. 중앙 정부 및 자치단체 여성정책기본계획	26
2.2.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31
3. 국내외 사례분석	35
3.1. 국내 사례	35
3.2. 해외 사례	44
4. 시사점	56
4.1. 정책의 성주류화 필요	56
4.2. 일상생활 속 편리함과 안전성 보장	56
4.3. 여성의 참여와 소통이 활발한 도시 조성	57

4.4.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57
4.5. 농촌여성 권익 증진 필요	58
4.6. 돌봄의 사회적 책임 증대 필요	59

III.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평가63

1. 도시환경 조성 사업	63
1.1. 사업 현황	63
1.2. 시민 및 전문가 조사 결과	66
1.3. 평가 결과	70
2. 공공건축물의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사업	71
2.1. 사업 현황	71
2.2. 시민 요구도 조사 결과	72
2.3. 평가 결과	73
3.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사업	73
3.1. 사업 현황	73
3.2. 시민 요구도 조사 결과	75
3.3. 평가 결과	78
4.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사업 평가	79
4.1. 사업 현황	79
4.2. 시민 요구도 조사 결과	83
4.3. 평가 결과	86
5.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86
6. 소결	91

IV.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발전방향105

1.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목표 및 과제 설정105

1.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목표105

1.2.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별 정책 과제107

1.3. 여성친화도시 조성 세부 추진과제109

2.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단계별 추진 방안 및 정책 과제110

2.1.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단계 설정110

2.2. 1단계 추진 방안111

2.3. 2단계 추진 방안117

2.4. 3단계 추진 방안124

3.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128

3.1. 여성창조문화센터 건립128

3.2. 여성 취창업 종합지원 서비스131

3.3. 농촌여성권익신장 사업135

3.4. 여성창조문화거리 조성138

4. 홍보 방안139

4.1.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향상 방안139

4.2. 여성친화도시 마케팅 강화 방안144

부록1 : 여성친화도시 시설조성 원칙 및 평가지표149

부록2 : 익산 여성친화도시 정책 평가 및 요구도 조사175

표 목 차

[표 1] 시민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6
[표 2]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7
[표 3] 연도별 인구 추이(2009.12.31)	12
[표 4] 읍·면·동 세대 및 인구 비교(2009.12.31)	12
[표 5] 결혼이민자 수(2009)	13
[표 6]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현황(2009)	13
[표 7] 산업대분류별, 읍·면·동별 종사자 수 현황(2008)	14
[표 8] 산업대분류별 대표자 남녀 현황(2008)	16
[표 9] 익산시 직급별 남녀 공무원 현황	17
[표 10] 익산시 위원회 현황	18
[표 11] 익산시 위원회 현황	18
[표 12]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현황	19
[표 13] 보육시설 현황(2009)	20
[표 14] 여성폭력상담 현황	20
[표 15] 여성복지 시설 현황	20
[표 16]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21
[표 17] 여성 사회교육기관 현황	21
[표 18]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22
[표 19] 노인복지시설 현황	22
[표 20] 의료시설 현황	23
[표 21] 익산시 문화공간 현황(2008년)	24
[표 22] 익산시 공공체육시설 현황(2008)	24
[표 23] 익산시 공공도서관 현황(2008)	24
[표 24] 익산시 공원 현황(2010)	25
[표 25] 익산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 세부 정책과제	32
[표 26] 상위 여성정책과 익산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 비교	34
[표 27] 여행 프로젝트 개요	36
[표 28] 사업 영역별 세부 내역	37
[표 29] 여행 프로젝트 사업 점검 결과	38
[표 30]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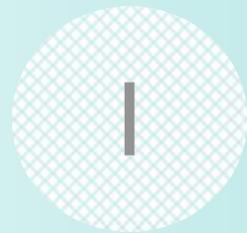
[표 31] 여성친화적 건설의 기준 항목	48
[표 32] 비엔나 ‘여성의 일상생활과 특수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지휘본부’ 활동	51
[표 33]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	65
[표 34] 익산시민조사 결과	68
[표 35] 익산시에 현재모습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69
[표 36] 공공건축물의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72
[표 37] 익산시 현재 모습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72
[표 38] 익산시민조사 결과	73
[표 39]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사업	75
[표 40] 익산시 현재 모습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76
[표 41] 익산시민조사 결과	77
[표 42] 익산시에 현재모습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78
[표 43]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익산	81
[표 44] 익산시 현재 모습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83
[표 45] 익산시민조사 결과	84
[표 46] 익산시에 현재모습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85
[표 47] 익산시민조사 결과	89
[표 48] 익산시민조사 결과	89
[표 49] 익산시민조사 결과	90
[표 50] 익산시민조사 결과	90
[표 51] 여성친화도시 분야별 만족도	92
[표 52] 익산시민이 느끼는 가장 시급한 문제	92
[표 53] 익산시민조사 결과	93
[표 54] 익산시민조사 결과	98
[표 55] 익산시민조사 결과	101
[표 56] 단계별 사업 영역	111
[표 57] 도입기 사업계획(안)	112
[표 58] 정착 및 확산기 사업 계획(안)	117
[표 59] 성인지 통계(안)	119
[표 6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	120
[표 61] CPTED 방식에 의한 모니터링 영역 및 지표(안)	122
[표 62] 성숙기 사업 계획(안)	125
[표 63] 새일본부 교육과정(2010)	132

[표 64] 여성회관 직업교육과정(2010)	132
[표 65] 보행로 평가기준표	166
[표 66] 화장실 평가기준표	167
[표 67] 공원의 평가기준표	168
[표 68] 아파트 주호 내부 평가기준표	169
[표 69] 아파트 외부 공간 평가기준표	170
[표 70] 주차장 평가기준표	171
[표 71] 시민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176
[표 72]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177
[표 73] 익산시 현재 모습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178
[표 74]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179
[표 75] 익산시에 바라는 미래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180
[표 76] 익산시에 현재모습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180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7
[그림 2] 익산소리문화예술회관(좌)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우)	23
[그림 3] 익산 공설운동장(좌)과 함열생활체육관(우)	24
[그림 4]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추진체계	28
[그림 5] 여행프로젝트 추진 배경	36
[그림 6] 신도시 성별영향평가 지표설정 과정	39
[그림 7]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단계별 작업	41
[그림 8] 화성시 비너스(B.I.N.U.S.) 프로젝트 개념도	42
[그림 9] 비엔나의 양성평등 표지판	52
[그림 10] 양성평등 교통계획 샘플지도	53
[그림 11] 생애주기별, 가족구성원별 주택 구조	53
[그림 12] 가로 조명을 밝게 하여 안전한 공원	54
[그림 13] 공공장소 조도 기준	54
[그림 14] 도시의 공정한 나누기 사례	55
[그림 15] 익산시 브랜드슬로건(좌)과 서동선화 캐릭터(우)	100
[그림 16]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발전단계	111
[그림 17] Blue Bus 예시	121
[그림 18] 여성·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126
[그림 19] 가족단위 공동체 형성 방안	127
[그림 20] 익산 여성창업 보육센터 기능	134
[그림 21] 독일의 로렐라이언덕(좌)과 덴마크의 인어공주동상(우)	144
[그림 22] 서동선화 스토리텔링	145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익산시는 2007년 12월 여성친화적 창조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설정하여 추진함
- 또한 2008년 5월에는 여성친화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여성친화적 창조문화도시’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9대 정책과제 및 4대 실천분야를 설정하여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였음
-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3월에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제1호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음
- 2009년 현재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조성, 공공건축물의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총 47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0년에는 농촌마을 방문용

CCTV 설치, 농촌다문화가정지원사업, 여성친화유아전용 놀이방설치, 하나로 상징거리 조성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총 59개 여성친화사업이 시행될 계획임

- 익산시를 시작으로 여수시가 제 2 호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그 밖에 다수의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 익산시는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선진 사례 조사 등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음.
- 본 연구는 익산시가 제 1 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익산시민의 상황에 적합한 익산시 고유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음. 따라서, 익산시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간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및 정책을 평가점검하여 사업구조를 체계화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익산시 관할 구역으로 설정하고 사례조사, 익산시 외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등은 익산시의 공간적 범위를 초월하여 수행

시간적 범위

- 분석 기준 시점은 2010년으로 설정
 - 여성 친화도시 발전 방향 및 대표사업 등의 발굴에 있어서는 보다 중장기적 안목(2015년 또는 2020년)에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환경을 예측 수행하고 그에 따른 발전 방향 및 사업 방안을 마련함.

내용적 범위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현황
 - 익산시의 일반 현황 분석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
 -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사례 분석
- 여성친화도시 정책 평가 및 요구도 조사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 평가와 의견 조사
-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지역 주민의 요구도 조사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발전방향 수립**
 -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제시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안) 및 대표사업 발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는 길, 주차장, 화장실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원칙 및 평가 지표가 포함됨

3.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익산시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시민과 전문가 FGI를 통하여 구체적 안을 도출하여 여성친화도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파악함
- **문헌조사**
 -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갖는 의미를 위해 국내 여성정책의 발전과정과 상위 여성정책 및 법률에 대한 검토와 또한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외 3개 도시의 여성친화정책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가의 성주류화정책을 통해 시사점 도출함
- **일반 시민조사(설문조사)**
 - 조사지역은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으로 나누어 인구비례층화표집한 표본 수는 총 400명임(2010.5.12~2010.5.18)
 - 응답자의 일반적인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75	44.1	연령	10대	13	3.3
	여	219	55.2		20대	165	41.6
	무응답	3	0.7		30대	75	18.8
	계	397	100.0		40대	78	19.6
거주지역	동	302	76.1		50대	49	12.3
	읍·면	95	23.9		60대이상	16	4.1
	계	394	100.0		무응답	1	0.3
					계	397	100.0

● 익산시민 심층면접조사(FGI)

- 청소년, 노인, 미혼여성, 주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10여개 대상별로 대표자 1~2인, 총 14인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함(2010.5.18)
- ‘살기좋은도시, 살고싶은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요구를 수렴하였음

[표 1] 시민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이름	직업(소속)	연령	성별	대상분야
백○○	시청일용직	20대	여성	일자리
오○○	농업	50대	여성	농 촌
성명미상		60대	여성	노 인
타 ○	주부(이주여성)	30대	여성	다문화
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40대	여성	다문화
이○○	청소년수련관	50대	남성	청소년
방○○	여성쉼터	30대	여성	여성복지
박○○	익산시청	40대	여성	행정(홍보)
김○○	여성단체협의회	50대	여성	여성, 일자리
성명미상	장애인복지시설	30대	여성	장애인
서○○	어린이집 운영	50대	남성	보 육
유○○	익산시청	30대	남성	행정(정책)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30대	여성	보건의료
박○○	노인여가복지시설	30대	여성	노 인
오○○	희망연대	30대	남성	시민참여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

-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여성학, 다문화 분야의 전문가 4인을 섭외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2010.5.26)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의 내용은 익산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평가 및 발전 방향 수립에 대하여 심층면접이 진행되었음. 심층면접조사는 익산시 여성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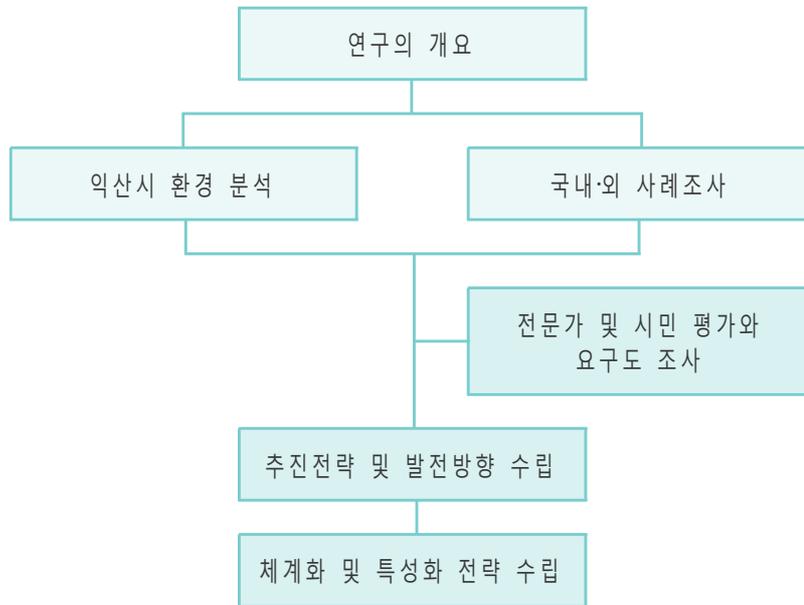
화도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성 친화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이루어짐

[표 2]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이름	직업(소속)	성별	전문분야
김○○	익산시문화원장	남성	문화
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원광대학교 교수)	여성	다문화
이○○	원광대학교 교수(도시공학과)	남성	공공디자인
송○○	도시계획기술사	남성	경관

- 이상의 연구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익산시 여성 및 정책 현황



1. 익산시 여성 현황 및 여건 전망
2. 여성정책기본계획 현황
3. 국내외 사례 분석
4. 시사점

II. 익산시 여성 및 정책 현황

1. 익산시 여성 현황 및 여건 전망

1.1. 인구 현황

- 지난 10년간 익산시 인구추이는 세대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음. 2000년도에 비하여 인구수는 약 10% 가량 감소한 반면에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와 외국인 인구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 외국인을 제외한 익산시 인구 309,269명(2008년 기준) 중 65세 이상 인구는 37,501명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11%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익산시의 노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표 3] 연도별 인구 추이(2009.12.31)

단위: 세대, 명

연도	세대	인구			세대당 인구(명)	65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2000	105,012	336,651	167,823	168,828	3.3	28,636	2,327	1,221	1,106
2001	107,180	337,240	167,996	169,244	3.1	29,804	2,483	1,159	1,324
2002	107,663	332,545	165,722	166,823	3.1	30,744	2,444	1,127	1,317
2003	109,436	327,536	163,455	164,081	3.0	31,794	2,298	1,165	1,133
2004	110,595	324,533	162,053	162,480	2.9	32,961	2,155	1,119	1,036
2005	111,358	320,780	160,125	160,655	2.9	33,656	2,274	1,082	1,192
2006	112,593	317,889	158,881	159,008	2.8	34,719	2,795	1,333	1,462
2007	114,011	316,911	158,233	158,678	2.8	36,872	3,321	1,585	1,736
2008	114,197	312,837	156,328	156,509	2.7	37,573	3,568	1,680	1,888
2009	114,994	306,669	153,348	153,321	2.7	38,361	3,586	1,783	1,803

출처: 익산시 통계연보(2009),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구의 대다수는 읍면 지역보다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바, 도시지역인 동은 전체 면적의 16%이나 전체 인구의 78%가 살고 있어 도시 인구밀도(2,904.4명/km²)는 농촌 인구밀도(162.6명/km²)보다 18배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읍면에 58%가 거주하고 있어 농촌에는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 외국인의 경우는 동 인구가 2,617명으로서 전체 외국인 인구의 73%가 도시에 밀집해 있음

[표 4] 읍·면·동 세대 및 인구 비교(2009.12.31)

단위: 세대, 명

구분	세대	합계			한국인			외국인			인구 밀도 (명/km ²)	면적 (km ²)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인구			인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읍·면	28,459	68,928	35,364	33,564	67,959	34,825	33,134	969	539	430	162.6	423.85	16,239
	25%	22%	23%	22%	22%	23%	22%	27%	30%	24%		84%	42%
동	86,535	241,327	119,767	121,560	238,710	118,523	120,187	2,617	1,244	1,373	2,904.4	83.09	22,122
	75%	78%	77%	78%	78%	77%	78%	73%	70%	76%		16%	58%

- 익산시의 결혼이민자 수는 2009년 9월 현재 총 1,086명으로 전라북도 결혼이민자의 18.5%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 3,518명 가운데 27%가 결혼이민자로 파악되었는바 특히 중국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전체 결혼이민자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표 5] 결혼이민자 수(2009)

단위: 명

구분	동북아			동남아			기타 (남부아, 중앙아, 미국, 러시아, 기타)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전국	76,553	10,197	66,356	40,380	479	39,901	8,740	4,514	4,226
전라북도	2,533	125	2,408	2,428	5	2,423	186	50	136
익산시	521	45	476	396	-	396	33	14	19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1.2. 산업 및 경제활동

가. 경제활동

- 익산시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67.5%, 여성이 46.2%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전국 158개 시군비교에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02위, 남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52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참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6]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현황(2009)

구분	15세 이상인구 (천명)	경제활동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비경제 활동인구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남자	110.1	74.3	71.9	35.8	67.5	65.3
여자	115.2	53.2	52.4	62.0	46.2	45.5

- 익산시의 사업체 수는 19,662개로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6.92%, 숙박 및 음식점업이 17.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4.29%로 서비스업 부문 비중이 높으며, 제조업 사업체는 9.52%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22.36%) 및 도매 및 서비스업(14.69%) 등 생산직, 서비스직중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업종에서 남성 종사자 수가 여성보다 높음

- 산업대분류별 대표자 현황을 보면, 총 19,622명 중 여성은 7,537명으로 38.33%이며 이 중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23.22%가 집중되어 있어 여성 종사자 수와 마찬가지로 여성 대표자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집중됨
- 즉, 여성의 경제 활동 특성은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과 같은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전통서비스업에 대부분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7] 산업대분류별, 읍면동별 종사자 수 현황(2008)

단위: 명

산업분류	익산시	읍면	동	읍면비율	동비율
전 산업	89,795	15,756	74,039	18%	82%
남 자	50,927	9,320	41,607	18%	82%
여 자	38,868	6,436	32,432	17%	83%
농업, 임업 및 어업	314	213	101	68%	32%
남 자	238	150	88	63%	37%
여 자	76	63	13	83%	17%
광업	313	313	0	100%	0%
남 자	290	290	0	100%	0%
여 자	23	23	0	100%	0%
제조업	20,076	6,226	13,850	31%	69%
남 자	13,119	3,661	9,458	28%	72%
여 자	6,957	2,565	4,392	37%	6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05	14	391	3%	97%
남 자	369	13	356	4%	96%
여 자	36	1	35	3%	9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48	177	471	27%	73%
남 자	588	146	442	25%	75%
여 자	60	31	29	52%	48%
건설업	3,919	464	3,455	12%	88%
남 자	3,510	406	3,104	12%	88%
여 자	409	58	351	14%	86%
도매 및 소매업	13,193	1,670	11,523	13%	87%
남 자	6,391	963	5,428	15%	85%
여 자	6,802	707	6,095	10%	90%
운수업	4,974	1,021	3,953	21%	79%
남 자	4,597	952	3,645	21%	79%
여 자	377	69	308	18%	82%
숙박 및 음식점업	8,972	1,142	7,830	13%	87%
남 자	2,778	315	2,463	11%	89%
여 자	6,194	827	5,367	13%	8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98	104	694	13%	87%

남 자	563	86	477	15%	85%
여 자	235	18	217	8%	92%
금융 및 보험업	3,309	294	3,015	9%	91%
남 자	1,636	179	1,457	11%	89%
여 자	1,673	115	1,558	7%	9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57	65	1,992	3%	97%
남 자	1,487	48	1,439	3%	97%
여 자	570	17	553	3%	9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69	104	1,165	8%	92%
남 자	834	79	755	9%	91%
여 자	435	25	410	6%	9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822	21	2,801	1%	99%
남 자	2,032	11	2,021	1%	99%
여 자	790	10	780	1%	9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945	548	2,397	19%	81%
남 자	2,125	399	1,726	19%	81%
여 자	820	149	671	18%	82%
교육 서비스업	10,118	1,317	8,801	13%	87%
남 자	4,623	598	4,025	13%	87%
여 자	5,495	719	4,776	13%	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991	847	6,144	12%	88%
남 자	1,813	215	1,598	12%	88%
여 자	5,178	632	4,546	12%	8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97	320	1,277	20%	80%
남 자	930	175	755	19%	81%
여 자	667	145	522	22%	7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75	896	4,179	18%	82%
남 자	3,004	634	2,370	21%	79%
여 자	2,071	262	1,809	13%	87%

출처: 익산시 사업체 통계보고서(2009) 재가공

나. 여성 대표자 현황

- 산업대분류별 대표자 현황을 보면, 총 19,622명 중 여성은 7,537명으로 38.33%이며 이 중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23.22%가 집중되어 있음
- 여성 종사자 수와 마찬가지로 여성 대표자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 경제활동 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8] 산업대분류별 대표자 남녀 현황(2008)

단위: 명

산업분류	익산시	남성		여성	
		남성 비율	여성 비율	여성 비율	
전 산업	19,662	12,125	61.67%	7,537	38.33%
농업, 임업 및 어업	26	25	0.13%	1	0.01%
광업	20	18	0.09%	2	0.01%
제조업	1,871	1,451	7.38%	420	2.1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	11	0.0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5	38	0.19%	7	0.04%
건설업	375	337	1.71%	38	0.19%
도매 및 소매업	5,293	3,056	15.54%	2,237	11.38%
운수업	2,179	2,036	10.35%	143	0.73%
숙박 및 음식점업	3,462	1,135	5.77%	2,327	11.8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4	61	0.31%	13	0.07%
금융 및 보험업	218	201	1.02%	17	0.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423	313	1.59%	110	0.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4	212	1.08%	22	0.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4	111	0.56%	33	0.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4	91	0.46%	3	0.02%
교육 서비스업	1,158	532	2.71%	626	3.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84	402	2.04%	282	1.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41	346	1.76%	195	0.9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10	1,749	8.90%	1,061	5.40%

출처: 익산시 사업체 통계보고서(2009) 재구성

1.3. 사회 참여 현황

가. 여성공무원 현황

- 익산시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401명 중 502명으로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2009.12.21.기준, 35.24%) 보다 증가한 것임
- 하지만, 고위급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는 여성공무원이 전무하며, 5급 공무원 72명 중에서는 5명에 불과한 실정임 (단, 6급 여성 공무원 2009년 16.91%에서 2010년 19.4%로 다소 증가하였음)
- 여성공무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급은 8급(58.0%)으로서, 해당 직급 남성 수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7급(여성45.7%)에서 6급(여성 19.4%), 다시 5급(여성 6.9%)로 가면서 여성공무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표 9] 익산시 직급별 남녀 공무원 현황

2010.07.14 현재

직급	계급	남성	여성		총합계
		인원	인원	비율	인원
		899	502	35.8%	1401
일반직	소계	677	404		1081
	3급	1		0.0%	1
	4급	12		0.0%	12
	5급	67	5	6.9%	72
	6급	229	55	19.4%	284
	7급	265	223	45.7%	488
	8급	68	94	58.0%	162
	9급	35	27	43.5%	62
별정직	소계	7	19	37.4%	26
	6급상당	4	19	82.6%	23
	7급상당	3		0.0%	3
기능직	소계	172	56	73.1%	228
	기능6급	5	2	28.6%	7
	기능7급	48	8	14.3%	56
	기능8급	99	30	23.3%	129
	기능9급	16	13	44.8%	29
	기능10급	4	3	42.9%	7
연구지도직	소계	35	12	24.6%	47
	연구사	3	1	25.0%	4
	지도관	4		0.0%	4
	지도사	28	11	28.2%	39
정무직	시장	1		25.5%	1
계약직	소계	7	11	0.0%	18
	나	1		0.0%	1
	다	1		0.0%	1
	라	3	9	75.0%	12
	마	2	2	50.0%	4

출처: 익산시 내부자료 재구성

나. 여성의원 및 위원 현황

- 익산시 의회 의원수는 총 25명이나, 여성의원 수는 2010년 8월 현재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전체의 16% 수준임. 이는 전국 평균 여성의원 비율이 21.6%에 비해 낮은 비율로 익산시 여성 대표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10] 익산시 위원회 현황

2009.11.30 현재

구분	전체 의원 수	남성 의원 수	비율	여성 의원 수	비율
의원 수	25	21	84%	4	16%

출처: 익산시의회 홈페이지

- 익산시의 위원회는 2009년 11월 30일 현재 총 83개이며, 전체 위원 수는 1,505명이며 이 중 여성 위원 수는 212명으로 14.1%임 . 특히, 83개 위원회에 여성이 모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2-3명 이내이나, 여성 위원의 비중이 50% 이상인 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66.7%), 아동·여성보호 익산시 연대(50.0%),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66.7%), 도서관운영위원회(58.3%)로 여성의 위원회 참여가 아동, 복지 등의 영역에 편중되어 있음.
- 또한 위촉직위원 중에서 여성위원 수가 50% 이상인 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시사위원, 익산시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기초생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아동·여성보호 익산시연대,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익산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자문위원회, 건설탕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임

[표 11] 익산시 위원회 현황

2009.11.30 현재

구분	전체 위원 수	남성 위원 수	비율	여성 위원 수	비율
전체 위원 수	1,505	1,293	85.9%	212	14.1%
당연직 위원 수	257	251	97.7%	6	2.3%
위촉직 위원 수	1,248	1,044	83.7%	204	16.3%

출처: 익산시 내부자료 재구성

다. 여성 단체 현황

- 익산시에는 총 16개의 여성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익산시 여성 단체는 익산시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보다는 주로 전국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 단체의 지부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음.

- 16개 단체의 회원 수는 1,890명이며,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하여 교류하고 있음.

[표 12]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현황

2010.02.08 현재

단체명	법인등록여부	회원수
16개		1890
주부교실	사단법인	28
대한어머니회	사단법인	60
어머니선도회	임의단체	29
한중여성교류협회	사단법인	42
한국부인회	사단법인	50
가정법률상담소	법무법인	106
다애로타리	법무법인	36
여성의용소방대	임의단체	50
주부클럽	사단법인	100
익산농력문화대학	사단법인	232
원불교여성회	임의단체	300
익산YMCA	사단법인	650
생활개선회	사단법인	45
익산한우리라이온스클럽	임의단체	50
한국걸스카웃 전북연맹익산지구	사단법인	62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익산지부	사단법인	50

출처: 익산시 내부자료 재구성

1.4. 사회복지 관련 시설 현황

가. 보육 및 아동 관련 시설

- 익산시에는 4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음. 지역아동센터의 총 정원은 1,225명임
- 보육시설은 총 258개소가 있으며, 아동정원은 11,664명임. 이 중 민간 보육시설이 209개소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보육시설 중 88%가 동(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웅포면, 성당면, 낭산면, 망성면, 용동면 등의 농촌지역에는 보육시설이 전무함.
- 시간연장 시설은 66개소이며, 방과후 통합 시설은 15개소, 장애전담 및 통합시설은 6개소, 영아전담 시설은 7개소임.

[표 13] 보육시설 현황(2009)

개소	아동 (정원)	국공립		법인		종교부설		개인		가정		직장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시설수	정원
258	11,664	9	933	33	2,721	6	484	74	5,577	135	2,150	1	99

출처: 익산시 홈페이지

나. 여성복지

- 여성복지시설로는 가정·성폭력 상담소와 모자보호시설이 있으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음.
- 여성폭력 상담은 해마다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자 지원내역은 2008년 심리·정서적 지원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증가함

[표 14] 여성폭력상담 현황

연 별	상담						피해자 지원내역					
	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계	심리 정서적	수사	의료 지원	시설 입소	기타
2005	4	2,955	3	2,201	1	754	1,118	751	240	27	25	75
2006	5	3,418	4	2,701	1	717	1,771	1,134	173	190	30	244
2007	8	4,342	6	3,385	2	957	1,217	865	241	34	54	23
2008	8	5,692	6	4,482	2	1,210	5,026	3,422	576	329	111	588

출처: 익산시 통계연보(2009)

- 모자보호시설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임

[표 15] 여성복지 시설 현황

연 별	모자보호시설			
	시설 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현재생활인원
2005	3	48	55	58
2006	1	17	17	63
2007	1	64	25	39
2008	1	71	12	59

출처: 익산시 통계연보(2009)

- 익산시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총 1,316세대로 전체 세대의 1.1%에 해당됨.

[표 16]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2010.06.30기준)

총가구수	가구원수	모·부자 복지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국민보훈대상	
		소계		부자가정		모자가정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1,316	3,481	649	1,694	206	551	443	1,143	667	1,787	0	0

출처: 익산시 내부자료 재구성

- 한편, 여성회관을 비롯하여 5개 여성사회 교육기관에서 성인여성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취미·교양, 전문가,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표 17] 여성 사회교육기관 현황

기관명	프로그램
여성회관	- 취미, 교양 교육: 9개 - 직업 교육: 13개 - 외국인 교육: 2개 - 한글 교육: 1개
동산사회복지관	- 영유아: 5개 - 아동: 13개 - 성인: 5개 - 자격증 과정: 3개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성인 취미·교양·자격증(유료): 18개 - 아동 공부방(유료): 1개 - 어르신(무료): 5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 아동 방과 후 교육: 8개 - 노인 여가문화 교육: 3개 - 성인 기능 교육: 5개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 전문가 과정: 45개 - 취미·교양: 45개

출처: 해당 홈페이지(2010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기준)

다. 장애인복지

- 익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2009.12.31 기준 20,321명으로 1급 1,900명, 2급 3,351명, 3급 3,749명, 4급 3,186명, 5급 3,910명, 6급 4,26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체장애 등록장애인 수가 10,577명으로 가장 많음

-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소와 12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복지, 의료 및 생활정보, 위기관련 상담 전문기관 연계사업을 하는 장애인 상담방을 운영하고 있음. 이 밖에 1개소의 정신요양시설과, 3개소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음

[표 18]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수	입소정원
장애인 생활시설	13	624
정신요양시설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	60

출처 : 익산시청 홈페이지

라. 노인복지 시설

- 익산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함께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57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음

[표 19] 노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수	입소정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3	230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법인)	9	612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개인)	10	243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	135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13	983
재가노인 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6	124

출처 : 익산시청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재구성

마. 의료시설

- 익산시의 의료시설은 2009년 통계연보에 의할 때 병원 수 333개, 병상 수 3,436개로 나타났으며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원 수는 2.67명,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10.43개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전국 평균 2.34명)

[표 20] 의료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 계1)		종합병원		병 원2)		의 원		요양병원		치과병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 소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333	3,436	2	1,108	8	612	157	896	9	670	83	24	1	100	73	26	1	15	24

출처: 익산시 통계연보(2009)

※ 주: 1) 보건의료원이하 제외 2) 군인병원 제외 3)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포함

1.5. 여가문화

가. 여가문화 시설 현황

- 2008년 말 현재 익산시 문화공간은 공연시설 11개소, 전시시설 7개소, 지역문화복지시설 1개소, 문화원 및 국악원 각 1개소, 전수회관 3개소로서 총 24개소가 있음.
- 공공공연장은 익산소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소공연장, 익산시민문화회관 등 3개소이며, 2009년에는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인 '재미센터'가 개관하여 상영관, 대강당,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임

[그림 2] 익산소리문화예술회관(좌)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우)



- 하지만, 미술관(미술관 기능의 전시실)은 전무한 상황이며, 현재 익산시의 문화공간은 익산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수준임

[표 21] 익산시 문화공간 현황(2008년)

단위: 개소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상영관	미술관	화랑	박물관	시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3	1	7	-	1	6	-	-	1	1	1	3

출처: 익산시 통계연보(2009)

*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시민회관은 2008년부터 공연장으로 명칭 변경되어 공공공연장으로 분류,

- 공공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이 3개소, 종합경기장 1개소, 테니스장 2개소, 수영장 2개소 등 총 12개소임

[표 22] 익산시 공공체육시설 현황(2008)

단위: 개소, m²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기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3	29,535	1	13,683	2	9,501	2	2,227	4	290,739

출처: 익산시 통계연보(2009)

[그림 3] 익산 공설운동장(좌)과 함열생활체육관(우)



- 공공도서관은 총 4개소이며, 교육청운영 2개소, 익산시 운영 2개소임

[표 23] 익산시 공공도서관 현황(2008)

단위: 개소

도서관	공공도서관				
	좌석수	자료수(권)	연간이용자수	예산	운영주체
마한교육문화회관	449	105,928	354,616	483,023	교육청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분관	255	65,277	44,157	351,663	교육청
익산시립도서관 영등본관	800	120,626	686,882	1,667,000	익산시
익산시립도서관 마동분관	1,067	147,230	387,383	영등일괄관리	익산시

출처: 익산시 통계연보(2009)

나. 공원 현황

- 익산시에는 자연공원 및 수변 공원은 없고 도시공원이 총 87개(5,698천㎡) 있음.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은 18.36천㎡로서 이는 전국 75개 시 평균 35.5천㎡(전국 평균 30.01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바, 익산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익산시민의 못 욕구 충족을 위하여 도시공원 확충이 요구됨.

[표 24] 익산시 공원 현황(2010)

단위: 개소, 천㎡

계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시민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87	5,698	33	707	3	24	45	4870	1	50	-	-	-	-	1	367	3	224.5	1	88.8

출처: 익산시 내부자료 재구성

2. 여성정책기본계획 현황

2.1. 중앙 정부 및 자치단체 여성정책기본계획

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¹⁾

제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

- 성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02)하여 정책과정에서 성별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함
 - 「국가재정법」 제정('06)시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함
-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99)하여 성희롱 등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간접차별을 금지('99)하고,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05)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를 개선함
- 일생활의 양립을 지향하는 각종 법제도 구비
 - 모성보호와 관련한 노동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출산 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규정('01)함
 -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04)하여 보육정책을 확대하였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07)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07)하는 등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노력과 직장 생활을 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98~0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03~07)를 시행하고, 국공립대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2008.12, 여성가족부

여교수 채용목표제 실시('03)

- 「정당법」 개정('02, '05)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05)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시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킴

●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보호 기반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01)하고 폭력 피해 여성 윈스톱 지원센터 설치운영('07, 14개소)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
- 성매매방지법 제정('04)이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07, 92.2%가 불법성 인정),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04, 1,679개소→'07, 99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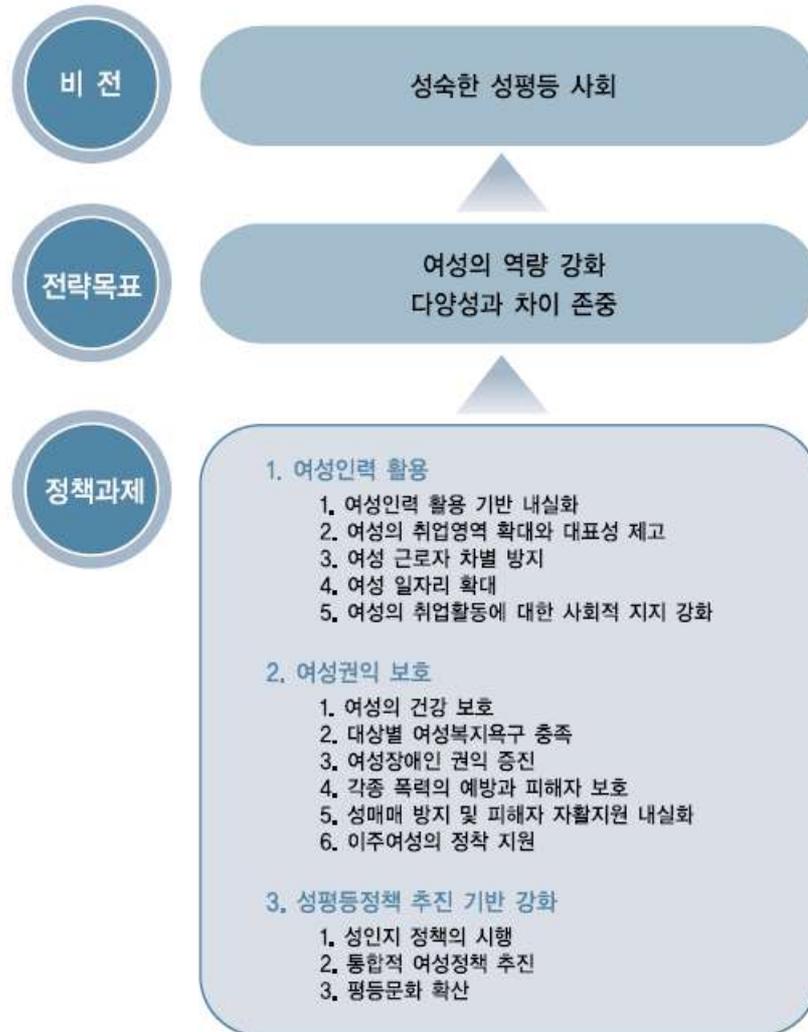
●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 호주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05)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포용성이 증대되고 평등한 가족문화가 확산됨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04)으로 가족정책의 추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06)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
-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수립됨
- 이러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성숙한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여성인력, 여성권익, 성평등 정책의 3개 분야 정책과제와 14개 세부 정책과제를 설정되어 있음

[그림 4]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추진체계



● 여성인력의 활용

1. 청년 여성의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여성 취업정보망 활성화
 - Women Work-net 기능 강화·여성 취업기관 간 Network 구축
2.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08.12.6 시행)
 - 경력단절여성 원스톱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 여성회관 등을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 기능 전환 추진
3.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개선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의 효과성 평가, 고용의 총량 위주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까지 고려하는 기준으로 개선 추진
4. 여성일자리 확대 정책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설치·운영; 서울(중앙), 익산, 광주, 시화, 창원, 오창
- 5.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기반 강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 등 육아휴직 활성화
 -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 검토
 -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 개발, 보급
 - 다태아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 우대방안 마련
- **여성의 권익보호**
 1. 미성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 추진
 - 출산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2.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 개편
 3.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강화 및 지역센터 설치
 -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 확대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시
 4. 성매매 방지 및 예방 정책 강화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
 1. 여성정책 협의·조정기능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성평등지표(GEI: Gender Equality Index) 작성, 발표
 - 여성장애인 기초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등 여성자원봉사활동 특화
 2. 여성 국제협력 확대
 - 국제전문여성인턴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재외 차세대 한민족 여성리더 발굴, 양성 및 국내와의 네트워크 구축

나. 전라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 전라북도는 ‘실질적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

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세우고 『제2차 전북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추진한 바 있음.

- 이러한 전라북도 여성 관련 계획은 상위 계획인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된 것으로 전라북도 특성을 고려하여 실천 과제를 설정한 것이며 익산시의 여성정책과 여성부 여성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앙정부, 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들로 구성됨
-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 여성정책 추진기구간 연계성 강화
 - 정책의 성별준석을 위한 기반 조성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 여성정보화 촉진
 -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모성보호 제도의 활성화 추진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 보육서비스의 강화
- **사회 문화 분야 여성 참여 확대**
 -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강화
 -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
- **환경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 환경분야에서의 여성 역할 강화
 - 여성의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 여성건강증진 대책 강화
 -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
 - 여성폭력 발생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 강화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 통합적 가정 복지정책 기반조성
-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2.2.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 익산시는 익산시 여성정책 기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을 고려한 『여성친화적 창조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2008)』을 수립하였는바 다음 4가지 기본방향에서 정책과제를 선정
 - 첫째,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음
 - 둘째, 추진전략과 관련이 깊은 성인지적 여성정책 추진 기반 확충과 여성친화적 도시환경개선에 역점을 둠
 - 셋째, 기획→집행→성과점검을 채택하였으며, 기초조사사업도 포함함
 - 넷째, 국비 또는 시비 사업보다 시 자체 사업의 선정에 역점을 두었음
 - 익산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은 ‘①평등한 도시-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②안전한 도시-여성의 안전 보장, ③건강가정도시-평등가족 문화 확산’이라는 3대 목표-3대 정책 영역을 선정함
 - 3대 정책 영역은 다시 9대 정책과제, 35개 단위사업으로 세분화됨
- 익산시의 『여성친화적 창조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2008)』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계획은 지자체에서 받아들이는 그동안의 하향식 전달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한 여성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상위 여성정책 가운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정책과제를 충실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더불어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같이 상위 여성정책에서 담고 있지 못한 여성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 불안함을 제거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음

[표 25] 익산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 세부 정책과제

3대 정책영역	9대 정책과제	35개 단위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인지적 여성정책추진 기반 확충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역량강화
		여성정책 예산 확대
		여성정책 조정 협의기구 설치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여성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지자체 의회 여성의원 진출 확대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사회적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 사회활동 지원	기업의 여성인력 수요 확대
		여성 평생교육 지원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여성 자원봉사 활동 지원		
익산여성 행동계획 센터 설치(역점과제)		
여성의 안전보장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개선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시범지구 지정
		공공시설 및 대형시설의 화장실 개선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시설 설치
		여성을 위한 주차편의 조치
		보행편이를 위한 보도정비
		여성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시설물 개선
	여성인권 보호	가정 및 성폭력 예방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성매매 근절 및 예방
	취약계층 여성 지원	한부모가정지원
		여성노인 복지향상
		여성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이주여성 생활지원		
평등가족문화 확산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익산보육정보센터 설치(신설)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확산	평등가족 문화 확산
		평등 역사문화예술 증진
		평등문화 프로그램 확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여성건강 증진 종합대책 마련 추진
		익산여성건강센터 설치

출처: 익산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 2008, 익산시

- ‘익산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에서 익산시는 여성과 가족 모두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친화적 창조 문화 도시 조성’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정책목표, 3대 정책영역, 9대 정책과제, 35개 단위사업을 계획하였음
- 또한 익산시는 여성부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 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여성과 가족 모두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설정과 더불어 ①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②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③공공건축물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④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등 총 4개 분야 59개²⁾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은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비하여 돌봄의 사회적 부담 관련 사업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 특수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2) 추후 6개 사업이 추가되어 총 65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2010년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익산시)

[표 26] 상위 여성정책과 익산시 여성정책증장기발전계획 비교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	익산시 여성정책 증장기발전계획(2008-2012)
1. 국가 정책의 성주류화 1.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1.2. 성인지 예산제도 기반 확대 1.3.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2.1. 여성정책 협의 조정 강화 2.2.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 3. 의사결정에 참여 확대 3.1. 공직여성 참여 확대 3.2. 기업여성 관리직 확대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1.1. 여성정책 추진기간 연계성 강화 1.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2.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2.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1. 성인지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확충 1.1.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역량 강화 1.2. 여성정책 예산 확대 1.3. 여성정책 조정 협의기구 설치 1.4.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1.5. 여성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1.6. 지자체 의회 여성의원 진출 확대
1. 여성의 건강 및 복지 강화 1.1. 여성 보건으로서비스 증진 1.2. 여성복지 서비스 강화 1.3.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1.4. 여성의 빈곤 해소 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실효성 제고 2.1.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2.2.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내실화 2.3.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 지원 내실화 3.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3.2.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 내실화 3.3. 성매매에 대한 단속·처벌 내실화	7.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7.1. 여성건강증진 대책 강화 7.2.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7.3.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 보호 강화 8.1.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 8.2. 성폭력 발생 예방 및 피해자 보호 8.3.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 강화	5. 여성인권보호 5.1. 가정 및 성폭력 예방 5.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5.3. 성매매 근절 및 예방 6. 취약계층 여성 지원 6.1. 한부모 가정 지원 6.2. 여성노인복지향상 6.3. 여성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6.4. 이주여성 생활지원 9.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9.1. 여성건강증진 종합대책 마련 추진 9.2. 익산여성건강센터 설치
1. 여성 일자리 확대 1.1. 성장동력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제도개선 1.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1.3. 여성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2. 여성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2.1.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 2.2. 근로여성의 전문능력 개발 2.3.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3. 여성근로자 차별해소 및 보호 3.1.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 3.2. 여성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3.3. 비공식부문 여성근로자 보호 4.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4.1.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4.2.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4.3. 보육서비스 질 향상	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3.1.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3.2.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3.3. 여성창업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3.4. 여성정보화 추진 3.5.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조건 강화 3.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4.1.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 추진 4.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4.3. 보육서비스의 강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2.1.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2.2. 사회적 여성일자리 창출 2.3. 기업의 여성인력 수요 확대 3. 여성 사회활동 지원 3.1. 여성평생교육 지원 3.2.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3.3.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 3.4. 익산여성행동계획센터 설치 7.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7.1. 보육의 공공성 강화 7.2.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7.3. 익산보육정보센터 설치
1.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1.1.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1.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3. 돌봄서비스 관리체계구축 1.4. 가정내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2. 일-가정 양립 2.1.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2.2. 남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 참여 2.3.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9.1. 통합적 가정(가족) 복지정책 기반 조성	

<p>1. 평등문화 확산 1.1.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1.2. 양성평등 미디어 활성화 1.3. 양성평등 교육 확대 2. 다양성 존중과 사회적 통합 2.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2.2.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2.3.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 교류 협력 강화 3.1. 북한 여성 협력 활성화 3.2. 국제 협력 강화</p>	<p>4. 사회 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5.1.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강화 5.2.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5.3.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5. 환경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6.1. 환경분야에서의 여성 역할 강화 6.2. 여성의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10. 평등문화 및 이식 확산 10.1.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p>	<p>8.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확산 8.1. 평등가족문화 확산 8.2. 평등 역사문화예술 증진 8.3. 평등문화 프로그램 확산 8.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강화</p>
		<p>4.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개선 4.1.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시범지구 지정 4.2. 공공시설 및 대형시설의 화장실 개선 4.3.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시설 설치 4.4. 여성을 위한 주차편의 조치 4.5. 보행편이를 위한 보도정비 4.6. 여성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물 개선</p>

출처: 여성가족부(2008)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 전라북도(2003) 『제2차 전북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익산시(2008)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3. 국내·외 사례분석

3.1. 국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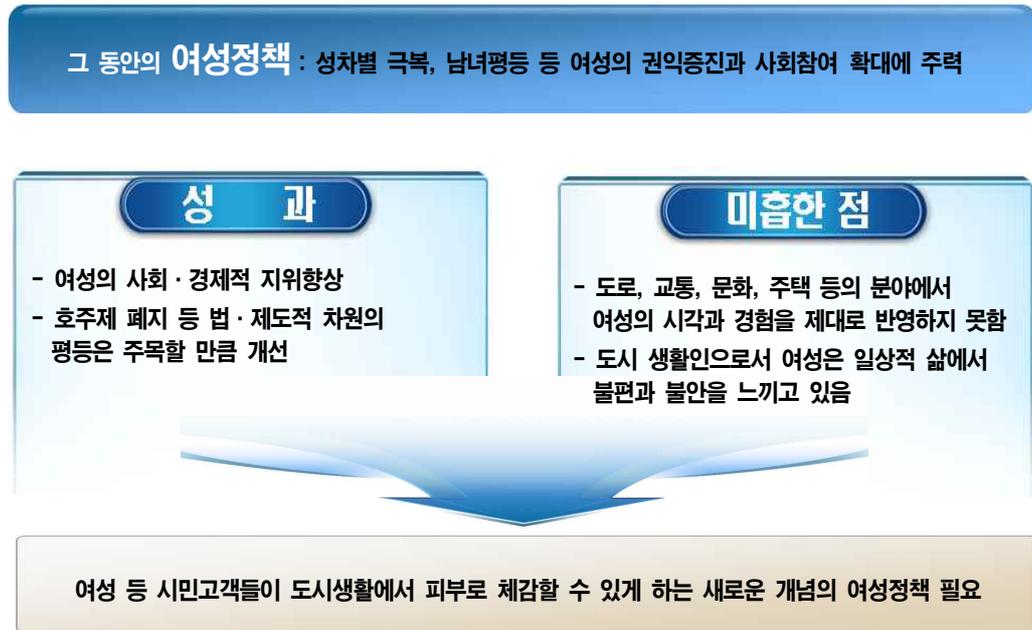
가.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³⁾

1) 여행프로젝트 개요

- 서울시 민선 4기(2007~2010)가 출범하면서 기획된 독자적인 도시 여성정책으로서 국가단위 여성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중교통, 공공시설, 보도, 공원, 문화시설, 소평시설 등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도시여성의 특수한 문제를 다루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이하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
- 여행프로젝트는 2007년 7월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포럼을 통해 여행프로젝트가 공표되었고 서울시의 전 실·국,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여행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음

3) 2009 여행 프로젝트(서울특별시, 2009), 여행프로젝트 발전 방안(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참조

[그림 5] 여행프로젝트 추진 배경



출처: 2009 여행프로젝트

- 2007년 7월 시의 각 기관에서는 “돌보는 서울, 일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의 5개 분야 89개 사업을 제안하였고, 각 사업별 4개년 추진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 후 각 실국별로 신규 사업을 개발하거나 기존사업을 조정하여 2008년 현재 90개 과제 132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7] 여행 프로젝트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 2007.07~2010.07(4개년)
사업목표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 도시환경 구축
사업영역 및 영역별 사업	- 돌보는 서울: 16개 - 일있는 서울: 12개 - 넉넉한 서울: 15개 - 안전한 서울: 9개 - 편리한 서울: 38개
총 투자수요	- 512,700백만 원(2007~2010)
사업추진체계	- 서울시 각 실국 및 출연기관, 투자기관에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서울시 여성정책부서는 총괄 및 조정

출처: 여행(女幸) 프로젝트 발전방안(2008)

[표 28] 사업 영역별 세부 내역

영역	세부 내역
돌보는 서울	- 보육지원, 가족·돌봄지원, 소외여성지원
일있는 서울	- 주부 일자리창출, 창업 및 기업지원
넉넉한 서울	- 여성친화 문화프로그램, 여성 교육프로그램, 여성 정보화
안전한 서울	- 도시설계, 도시안전, 도시환경, 여성건강
편리한 서울	- 여성편의시설, 보도, 공공시설, 대중교통

출처: 2009 여행프로젝트

※ 전략추진영역 : 민간영역 확대, 법·제도개선, 점검 및 평가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이 추진계획과 실적 관리 등을 총괄 조정하고 실제 사업 발굴과 시행은 서울시 36개 실국과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추진체계를 이루고 있음
- 즉, 여행프로젝트는 여성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각 실국이 관련 분야 중에서 성인지적 관점 통합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서울 시정 전반에 수평적 성 주류화를 도모함
- 또한 자치구 단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여행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치구로 확산함으로써 자치구로의 수직적 성 주류화를 도모함

2) 여행프로젝트의 의의 및 한계

- 여행프로젝트는 기존에 추진하던 여성정책과는 별도로 시정 전반에 도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지역여성정책으로서 지역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성정책이라는데 의미가 있음
- 여행 프로젝트는 기존의 여성정책 영역을 도시 공간 사용권(right to appropriate)과 도시 정책 참여권(right to participate)으로 확대하여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체감하는 도시 여성 정책을 수립하여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 함
- 또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행 동반자단(전문가)과 여행 프로슈머단(일반인)을 운영함으로써 도시 정책에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함
- 2008년 UN 여성지위위원회 52차 총회 병행행사 계획 및 제10차 세계여성대회 포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서울시 여행프로젝트를 소개하여 해외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

[표 29] 여행 프로젝트 사업 점검 결과

	돌보는 서울 (20개)	일있는 서울 (21개)	넉넉한 서울 (21개)	안전한 서울 (11개)	편리한 서울 (37개)	계 (110개)
적합성 부족	1	2			7	10 (9.0%)
충분성 부족	8	7	3	6	17	41 (37.3%)
효과성 부족	1	5	3	3	5	17 (15.5%)
계	10 (50%)	14 (66.7%)	6 (28.6%)	9 (81.8%)	29 (78.4%)	68 (61.8%)

출처: 여행(女幸) 프로젝트 발전방안(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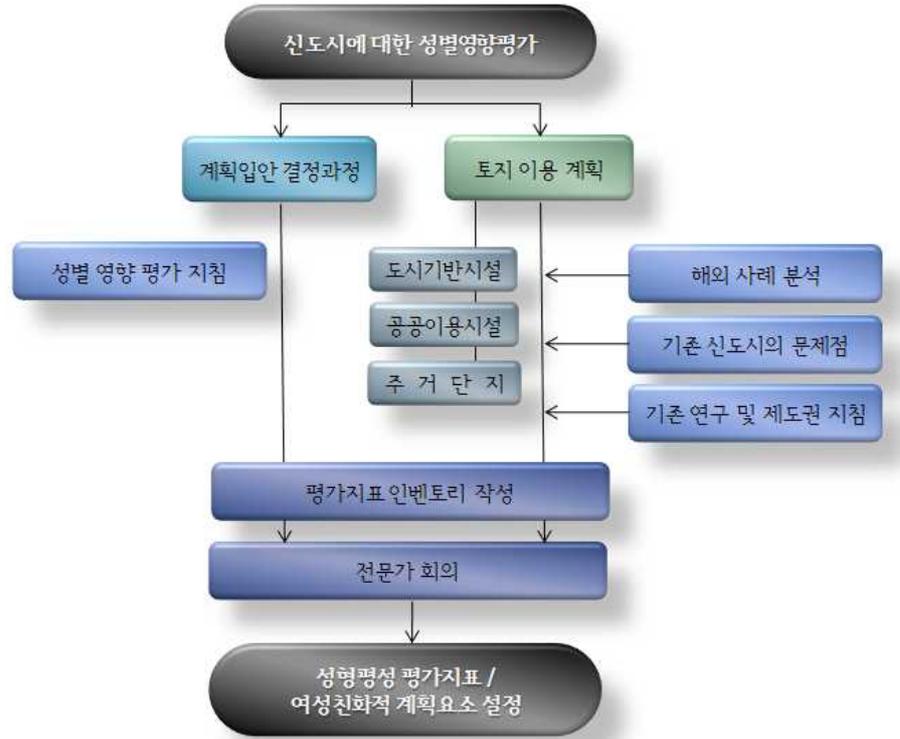
- 그러나 여행프로젝트를 정착시키고 시정전반에 성 주류화를 확산하기에 적합성, 충분성, 효과성 등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적합성 부족: 여행프로젝트 사업이 여성친화 도시정책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정체성 모호
 - 충분성 부족: 어느 한 대상(또는 사업 분야)에 편중되어 다양한 타입의 도시 여성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효과성 부족: 일회성, 저예산, 단기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효과성 부족
- 또한 여행프로젝트 대표 사업이 부재하고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점 또한 문제점 중 하나임

나. 경기도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⁴⁾

-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는 신도시 개발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도시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직접 도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경기도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의 성별영향평가 지표 중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기존 연구 성과 및 제도권 지침 등을 비롯하여, 신도시 건설 사업계획서, 사업지침, 실태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또한 국내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례,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 신도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 지표 및 계획 요소를 도출함
- 이를 바탕으로 김포(한강)신도시 계획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신도시 계획에 환류 시키는 과정을 거침

4) 경기도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2006

[그림 6] 신도시 성별영향평가 지표설정 과정



출처: 경기도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p61 재구성, 2006, 여성가족부

1) 법제도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 필요

-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에 관련된 상위 법규인 「도시개발법」,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의 조문시행령시행규칙에 성인지적 도시계획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삽입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아직까지 성인지적 관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는 계획입안과 정의, 사업계획 내용 중 인적 통계에서 성별을 분리하여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함

2) 신도시개발 관계자에 대한 교육

-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등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각종 홍보책자를 작성·배포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

요가 있음

- 성별 영향평가나 성인지적 관점, 성형평성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다른 부처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활동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여성 건축가를 비롯하여 도시계획가, 엔지니어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 각종 계획지침 속에 성형평적 도시계획요소를 반영

- 지금까지 장애인이나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침은 개발되었으나 성형평성 관점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2005),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지침」이나 한국토지공사(2000), 「환경친화적 택지개발편람」 등에 본고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성형평적 도시계획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품격 높은 도시 건설을 위한 창의적 공간계획을 수립,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여성의 요구와 경험을 통합하는 공간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여성·가족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적정인구를 유인할 것을 계획함
-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여성친화적 도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연구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한 논의 및 사례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FGI 등을 수행한 결과 여성친화적 도시 건설을 위한 단계별 과제 및 전략을 도출하였음⁵⁾

5)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림 7]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단계별 작업



출처: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p203,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여성의 참여구조(gender governance)
 - 일반 시민 여성과 지역 여성의 참여와 자치 조직, 시정 모니터링
 - 여성 주민의 주민자치기구 활성화
 - 도시정책 관련 위원회 등 민간위원 여성비율(최소) 의무화
- 도시정책(구체적인 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 여성 회관에 여성단체, 시민단체 거주 공간 마련, 협치
- 시민만족도 측정, 성별분리통계 생산
- 성 인지적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라. 경기도 화성시 비너스(B.I.N.U.S.) 프로젝트

1) 비너스(B.I.N.U.S.) 프로젝트 개념

- 화성시의 비너스프로젝트는 기존 여성정책의 주류인 돌봄의 복지정책(Nursing)에서 더 나아

가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Beautiful) 하고 우수여성인력을 지원(Intelligent)하며 즐겁고 옛지 있는 여가생활(unique)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공간(Safe)을 만드는 정책

[그림 8] 화성시 비너스(B.I.N.U.S.) 프로젝트 개념도



출처: 화성시여성친화도시 자료집 재구성, 2009, 화성시

[표 30]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구분(5대 분야)	내용(12개 세부분야 99개 사업)
아름다운 화성	- 도시설계 및 녹지환경 분야: 비너스 공원 만들기 등 13개 사업 - 저탄소녹색환경분야: 화성그린환경센터 건설 및 운영 등 4개 사업
똑똑한 화성	- 여성인재양성분야: 권역별 여성비전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 - 여성기업 및 여성 NGO 지원 분야: 기업평생코디제 등 6개 사업 - 교육사업분야: 장학관 운영 등 7개 사업
돌보는 화성	- 보육지원분야: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16개 사업 - 건강증진분야: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 등 6개 사업
즐거운 화성	- 여가문화분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 운영 등 7개 사업 - 건강증진분야: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 등 6개 사업
안전한 화성	- 여성편의시설 및 교통분야: 비너스주차장운영조례 등 7개 사업 - 범죄예방분야: 동탄 U-city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 안전한 먹거리 분야: 친환경 농작물 생산 확대 등 3개 사업

2) 향후 추진방안

(1) 화성시 여성발전조례 시행규칙 제정

- 여성가족과장을 Gender Master Planner(비너스 마스터 플래너), 여성정책담당을 Gender Project Manager(비너스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
-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목표 설정
 - 각 부서 위원회 구성 시 여성가족과부와 협의하도록 명시
- 각종 조례 제정, 개정 시 여성친화도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명시(예: 비너스 주차장 운영조례 등)

(2) 핵심사업 담당자 협의회 구성

- 핵심사업 중점추진: 분야별 20개 사업 중점관리 및 추진
- 전문가, 일반인의 의견 수렴, 아이디어 반영, 사업추진방안 지속적 협의 및 피드백 작업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3) 성별영향평가 기관과 핵심사업을 연계

- 전 직원에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당위성, 사업별 접목 필요성 등을 교육
- 핵심사업 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성별 영향평가 심화교육 실시
- 핵심사업을 2010년 화성시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지정하여 1년간 추진하고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작성하도록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4) 시민 및 전문가 제언 수렴 및 반영으로 탄력적 사업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및 전문가와의 토론의 장 마련
- 핵심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른 여성들의 추가 요구사항, 신규아이디어, 전문가의 제언 등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유기체적으로 사업 추진
- 4년 후 분야별 화성시 만의 비너스적 요소 및 개념 완성

3.2. 해외 사례

가. 독일⁶⁾

연방정부의 법적 근거

- 독일 연방도시계획법(Landesplanungsgesetz-LPIG) Rheinland-Pfalz 제1조 공간계획의 비전 제1항에서는 "토지이용(Provisions)은 지역개발에서 성평등 원칙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2003.5.12, GVBl S.41)
- 또 연방건축법의 제1장(일반도시건축법) 제1부(건축지도계획)의 과제, 개념, 원칙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 특히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의 욕구,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르게 미치는 영향 및 교육체제와 스포츠, 여가, 휴식의 중요성"을 삽입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공간정책의 성 주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1) 뮌헨

(1) 성주류화 및 성인지 예산 정책

- 연방정부에서 성 평등한 도시개발 및 공간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여 지방정부들도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함
- 독일의 세 번째 큰 도시이며 바이에른 주 정부의 수도이기도 한 뮌헨은 일찍이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차원에서 여성친화적 지역개발을 선도해 왔음
- 2004년 1월 27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결의문은 앞으로 목표와 결과에 대해 명시할 때 성 주류화와 성 인지 예산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도시 발전계획의 성주류화

6)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뮌헨은 기반시설을 증축하고, 용도가 복합적인 과밀한 도시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성 주류화 원칙이 대도시의 발전계획 전반 즉 도시계획, 도시위생, 주택단지 조성 등에 통합될 수 있다는 좋은 예를 보여줌
- 이 도시는 1994년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평한 토지 이용” 개념으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공간적 개발을 추진하였음
- 뮌헨시의 도시발전구상의 가이드라인에는 “...사회(복지)적 지방자치정책의 중점은...도시발전에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다른시각과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을 명시함

① 사회적으로 공평한 토지이용 절차 원칙

- 뮌헨 토지 관리의 중심 기구는 성 주류화의 주요 도구로서 1994년 이래 시작 발전된 '사회적으로 공평한 토지이용 절차 원칙'을 가짐
- 이는 새로 건축된 시 구역에서 처음부터 공공녹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를 완벽하게 그리고 거주지 인근에 세울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 2006년 시의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의된 통일적인 절차규정에는 도시건축계약에서 모든 건축계획에 상세하게 정해져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음
- 예컨대 도시의 새롭게 건축되는 지역에 이 원칙을 적용한 결과, 유아원과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인근 생활편의시설 센터로 가는 길이 짧고 안전하며, 대중교통과 잘 연결되어 있고 일자리와 이용이 잘 혼합됨으로써 시구역의 일상생활 유용성이 보장되고, 일과 가족의 양립이 수월해짐

② 여성/성평등 고려한 도시발전 계획

- 모든 계획과 결정과정에 다양한 연령과 생활상태의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욕구와 이해관계 정책 계획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 목표명시
 - 자료조사와 분석
 - 남녀시민의 참여
 - 과정과 실무진행 구성
 - 인사결정과 조직결정
 - 예산/투자계획
 - 계획에 대한 평가

③ 도시발전계획의 성주류화 실천 사례

● 2005 남녀 시민대상 성주류화 설문조사 실시

- 도시발전계획을 위해 《2005 남녀 시민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별 사회(복지)적 상황 및 도시발전, 거주지,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함
- 교통계획과 관련하여 뮌헨시민의 이동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동차면허증 소유는 남녀 같아졌고 여성의 자가용 이용이 과거보다 늘어났으나 여성이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여전히 남성보다 적으며 여성은 장보기와 보호동반 일을 더 많이 맡고 있어 남성보다 동선연결이 더 복잡한 것을 발견하였음
- 그 결과 젠더에 공정한 교통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①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매력적이고 안전한 길 조성, ②시범프로젝트 2지구에서 ‘근거리 이동 시구역 구상’, 그리고 ③이용자에게 공정한 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마련하기로 함
- 특히 근거리 교통 계획의 질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정류소 통로, 넓은 대기 장소, 약천후 대피소, 휠체어와 유모차에 적합한 정류소, 장애물 없는 차량통로, 전차 시간표와 노선도 정보, 높이 등에서 장애물 제거 등을 추진함

● 신도시 건설 건축조경계획 아이디어 공모의 성주류화 기준

-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시 건축조경계획 아이디어 공모에서 성 주류화 기준을 과제 제출 시 명백하게 포함시킴
- 심사단은 젠더에 적합한(공평한) 도시건축 여성 전문위원의 조언을 받음
- 이때 심사기준은 주택단지구조의 여성의 요구 고려 여부, 가족/어린이 친화적 거주지 개선, 안전 차원에서 공식, 비공식, 사적 영역을 알아볼 수 있는 구역, 매력적이고 안전한 보행자길, 자전거길 연결로 개발 등을 포함함

2) 하노버

- 하노버는 2004년 3월 시 행정의 규정과 지역위원회 규정에 성 주류화의 원칙 즉,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지역의 모든 조치에서 촉진되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음
- 또한 1995년 ‘지역 및 구조개발의 여성의 관심(FrauenInteressen in Regional und

Strukturentwicklung - AK FIRST)'을 설치하였음

- 이 기구는 여성 정치인, 도시계획 및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임
- AK FIRST는 정주와 관련한 지역 개발, 교통과 이동, 직업훈련, 창업과 비즈니스 개발 등의 주제와 관련한 기준을 개발하여 하노버의 지역개발계획(Regionalen Raumordnungsplan - RPOP)의 기초를 제공함
- 하노버의 '공간개발 프로그램(RPOP) 2005'는 "RPOP의 모든 의사결정은 양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명시함
- 다음과 같이 공간계획이 여성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간계획이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공간계획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기준

1. 계획은 여성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2. 계획은 돌봄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3. 계획은 여성의 이동 수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4. 계획은 여가생활과 여가에 대한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출처: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p53

- **건물 설계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2006년 하노버는 소비자 보호와 생필품 안전부 건물 설계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건물 설계의 공모 단계에서부터 경쟁작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여성 또는 젠더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를 반영하는 성별화된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고 있음
 - 성별영향 평가의 진행은 다음 네 가지 단계를 포함함
 - ◆ 1단계: 젠더-기준 전개/공모 텍스트
 - ◆ 평등위원회 대표자들과 하노버 대학 도시계획과 건축 사회학 전문가들이 함께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성 주류화가 공모텍스트에 통합되었음
 - ◆ 2단계: 사전검토
 - ◆ 경쟁작들을 접수받은 후에는 앞서 개발된 기준들이 접수된 모든 경쟁작에 적용되었음
 - ◆ 3단계: 심사위원단 젠더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 ◆ 공모를 위해 개발된 성별화된 기준들이 경쟁작들에 대한 심사위원단의 평가에 통합되었고 그래서 절차 내부에 정착될 수 있었음
- ◆ 4단계: 설계 당선작의 수정 보완판에 대한 평가
- ◆ 계약이 확정된 작품의 계획과 방법의 틀에서 젠더기준의 검토가 실행되었음

[표 31] 여성친화적 건설의 기준 항목

사회적 욕구	기능적 필요		
1. 편안함	- 공간조성, 공간차원 - 공적인 것(방문객)에서 사적인 것(사무실)까지 구역 세분화	- 자유공간조성	- 방향성
2. 안전함	- 통로감시 - 사회적 통제(감시) - 볼 수 있음	- 관리인 - 안전/장애물 없음 -	- 외부 연결 - 시계 연결 -
3. 도달가능성	- 건물 입구 - 평면도 구조 - 공간배치	- 외부 연결 - 장애인 적합성 - 모든 필요한 공간들에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음	- 짧은 길 - 길의 연결
4. 위치 찾기	- 입구 - 시계 연결 - 공간 배치	- 관리인 - 방향성 - 세분화된 구역 구분	- 평면도 구조 - 길 연결 -
5. 효용성	- 평면도 구조 - 동선	- 길 연결 - 방향	- 공간배열 -
6. 소통	- 평면도 구조 - 사회적 통제 - 세분화된 구역 구분	- 시계 연결 - 자유공간 조성 -	- 길 연결 - 공간 배치 -
7. 퇴로	- 단면도		

평가단계: ++ 매우 좋음/+좋은/0중간/-부족/--불충분

※ 출처: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p55 재구성

● 성평등한 토지이용 원칙

-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해서도 성평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여성과 남성이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동등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가족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생활영역 사이의 이동과 연결이 쉽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여성 친화적 지역토지이용계획의 목표

1. 여성과 남성을 위한 동등한 생활조건을 만든다.
2. 가족에게 사회적으로 공평한 하부구조를 이루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한다.
3.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대가족, 장애인과 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택을 제공한다.
4. 가족친화적 시설과 설비를 제공한다.
5. 기본시설을 주거지로부터 근거리에 제공하고 보행자와 지역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소매상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6. 기차역과 정거장에 충분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잘 보이도록 트이고 안전한 디자인의 기차역이 가까이에 있도록 하며, 지역과 장거리 대중교통 연결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편리하도록 한다.

출처: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p55

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1) 오스트리아의 성주류화 정책

- 오스트리아는 1980년대에 대학의 연구를 통해 공간 정책의 여성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고 1991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누가 공공의 공간을 소유하는가? 도시에서의 여성의 일상’이라는 전시에서 처음으로 도시 계획에서의 여성의 이슈를 아젠다화 하였음
- 그 후 1994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구조기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도 많이 축적하기 시작하였음
- 연방 지역개발정책조정국은 성인지적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EU사회기금으로 지역 여성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지역정책에서의 성 주류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 기관으로 성 주류화센터(GeM, Gender Mainstreaming)를 설치하였음
- 구성원들은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을 전공한 성 주류화 전문코디네이터들이며 주 역할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든 정책에서 성 주류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하며, 워크숍, 교육 등 행사를 주관하는 것임
- 또한 2000년에는 성주류화팀(GeM-Co-ordination Unit for Gender Main-streaming within the ESF)은 EU의 사회기금(ESF)과 오스트리아 연방경제노동부가 예산을 제공하며 주요사업은 정보제공, 네트워킹 자문제공, 성주류화의 실행 지원 등임

2) 비엔나

-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주정부이고 19개 자치구를 가진 시이기도 한 비엔나는 공간 정책과 교통, 주택 정책 등의 측면에서 도시 및 지역개발의 성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어 오스트리아 전역은 물론 독일과 스위스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음
-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별도의 행정기구로 시 여성담당행정국(Executive City Councillor for Women's Issues)과 여성국이 있으며, 5명의 동등기회자문관과 180명의 전문가협의체를 구축하고 있음
- 비엔나는 도시계획, 교통과 운송, 주택, 노동정책, 보건, 녹지공간디자인, 보육 및 교육, 문화, 과학과 연구개발, 공공건물과 공공안전 등의 정책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조직, 안전, 안보담당 행정국 안에 성 주류화 프로젝트 매니저를 두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일상생활과 여성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부서를 두고 있음
- 1991년 비엔나에서 누가 공공공간을 소유하는가- 도시 여성의 일상적 삶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동전시회는 도시 및 지역 개발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최초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음
- 전시의 영향으로 1992년 시는 여성국을 설치하였고, 여성국은 이후 도시계획과 공간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통합하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음
- 1992년 여성국은 어떤 정책적 조치들이 공공공간에서 여성의 안전과 행동의 자유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국과 함께 ‘안전한 야외공간-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이라는 연구를 수행함
- 1994년에는 안전에 대한 제안들이 담긴 기준 목록을 만들었고 이 기준목록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수행함
- 1998년에는 비엔나 도시계획국에 여성의 일상생활과 특수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이 여성의 관심에 부응하면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표 32] 비엔나 '여성의 일상생활과 특수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지휘본부' 활동

구분	내용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 Frauen-Werk-Stadt 1+11 - 개발업자 경쟁 심상에 참여 - 주택보조금을 받는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예비측정에 참여 - 2차적 다용도실과 다세대 건물에 대한 가이드 라인 작성
공간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공원 디자인 공모 - 소녀들을 위한 참여 프로젝트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도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 안전한 주택 개발 가이드라인 작성 - 비엔나 지하철 개발에 참여: 지하철 건물의 안전
교통과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모차를 위한 계단의 경사로 재건 가이드 라인 - Donaueschingenstrasse 거리조성 프로젝트 참여
성주류화 프로젝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주류화 모델 자치구(Gender mainstreaming model districts) 프로젝트 - 지역주민과 여성의 교통요구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지도개발 - 성인지적 교통 및 운송계획 매뉴얼 개발 - 마리아힐프(Mariahilf) 자치구의 성주류화 파일럿 프로젝트

출처: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p58 재구성

(1) 성주류화 프로젝트 도입

- 2006년도 비엔나시는 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의 성주류화를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 주류화 프로젝트 매니저제도를 도입하고, 교통 신호와 도로 표지판을 모두 성평등하게 개선하는 프로젝트 여성의 안전권과 공간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옴
- 주 내용은 돌봄 역할을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한다는 인식을 고취하고, 자전거 이용 등의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었음
- 예를 들어 수유실은 여성이 아기를 돌보는 모습에서 남성이 아기를 돌보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아래 그림에 나와 있듯이 노약자석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장애인석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아빠로 표시 표지판을 바꾸는 등의 작은 변화와 움직임은 사람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그림 9] 비엔나의 양성평등 표지판



- 공동묘지는 여성 노인이나 성인 여성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므로 길이 평평하여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이용한 방문객이 이용하기 쉽도록 함
- 또 곳곳에 앉을 곳을 설치하고 구조물과 안내표지, 화장실 표지 등이 잘 보이도록 함
- 여자아이는 인형놀이를, 남자아이는 블록놀이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성 역할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 내 모든 보육시설에 성별 감수성을 가진 교육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공보육시설에서는 성 평등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

(2) 교통과 운송

- 2003년 마련된 비엔나 교통 마스터플랜은 이동성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이해관계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되, 보행자들을 가장 약한 집단으로 고려함
-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여성의 일상생활과 특수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지휘본부'가 '공공공간과 교통안전 실무단'을 관할함
- 이에 따라 교통 마스터플랜은 주변교통 공공공간에서의 안전, 가사노동과 집안일 해결 및 아이들, 청소년, 노인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게 됨

[그림 10] 양성평등 교통계획 샘플지도



출처: <http://www.wien.gv.at/stadtentwicklung/alltagundfrauen/gender.html>

(3) 주택

- 일상생활 패턴 및 여성의 욕구를 특별히 고려하고 있음
- 즉 여성의 주택에 대한 요구, 특히 여성과 그들의 권리의 생활 패턴, 일반적으로 여성은 일 (직업) - 가정생활 양립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복잡성을 고려함
- 성별 - 주택의 주요 목표는 어떤 여성이라도 야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림 11] 생애주기별, 가족구성원별 주택 구조



출처: <http://www.wien.gv.at/stadtentwicklung/alltagundfrauen/wohnbau.html>

(4) 안전

- 모든 연령대의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남성 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기능적인 거리 조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의 조명을 최적의 배열로 설치하기 위한 공공 조명 기준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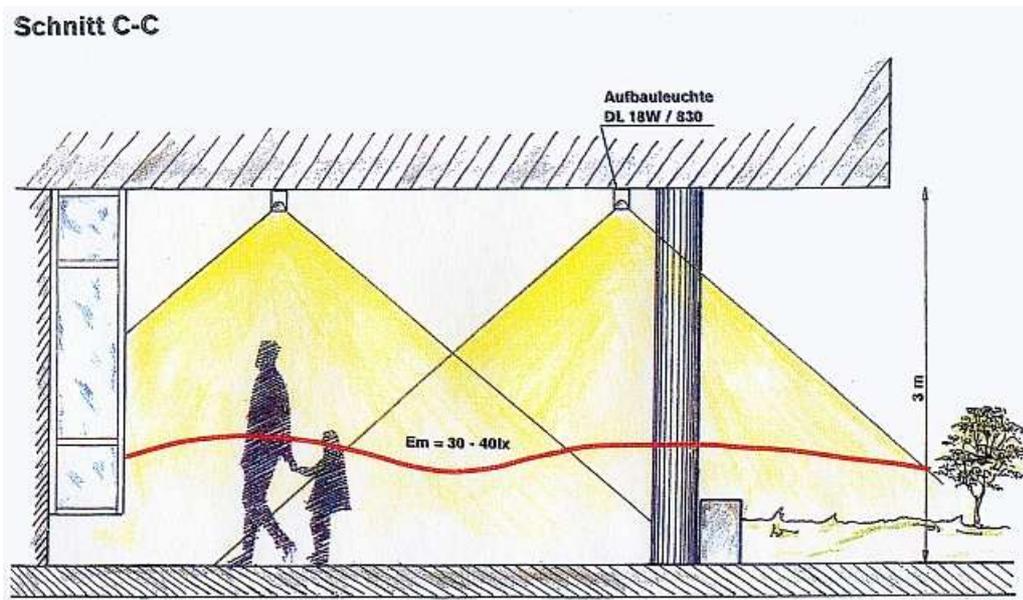
- 야간공원에는 3m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감을 줌
- 주차장의 경우, 전체적으로 충분한 조명이 있는 가운데 입·출구와 엘리베이터가 환히 보이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위치, 출구나 엘리베이터 근처에 여성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그림 12] 가로 조명을 밝게 하여 안전한 공원



출처: <http://www.wien.gv.at/menschen/gendermainstreaming/beispiele/beleuchtung.html>

[그림 13] 공공장소 조도 기준



출처: <http://www.wien.gv.at/menschen/gendermainstreaming/beispiele/beleuchtung.html>

- 2009년에는 ‘도시의 공정한 나누기’ 전시회를 개최하여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공공 공간을 ‘공유’ 하도록 공공 공간의 품질에 대한 표준을 전시함

[그림 14] 도시의 공정한 나누기 사례



출처: <http://www.wien.gv.at/stadtentwicklung/veranstaltungen/ausstellungen/2009/images/fair-teilen-gr.jpg>

4. 시사점

4.1. 정책의 성주류화 필요

- 독일의 경우 연방법령과 정책계획이 성인지적 도시건설을 촉진하였고, 뮌헨의 경우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성 주류화 원칙이 대도시 발전 계획 전반 즉, 도시계획, 도시위생, 주택단지 조성 등에 통합될 수 있다는 좋은 예를 보여 줌
-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경우 여성국과 도시건설에 여성의 안전권과 공간사용권 등 일상생활과 특수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설치한 여성정책 전담 부서와 전문가협의체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비엔나는 도시계획, 교통과 운송, 주택, 노동정책, 보건, 녹지공간디자인, 보육 및 교육, 문화, 과학과 연구개발, 공공건물과 공공안전 등의 대부분의 정책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검토, 조례 제정, 및 각종 정책의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개선 등 실제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을 가능케 하는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4.2. 일상생활 속 편리함과 안전성 보장

- 그동안 도시공간에서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많았지만 도시 계획에서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려'가 부족하였음
- 여성친화적 국내외 사례를 보면,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공간 조성 사이에는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거리 광장, 골목길,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소, 주택가, 지하주차장 등 도시공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과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간 개선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
- 즉, 개방성이 있는 수목이 설치된 공원,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밝은 조명 등은 '사회적 눈'을 가지게 함으로써 여성의 안전을 높이고, 주차장 입출구에는 넓은 면적을 할당하여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을 없애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남성에 비하여 대중교통 의존도가 더 높은 여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제고함으로써 여성의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해지도록 하는 것임

- 이러한 여성에 대한 배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므로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 편리함과 안전함을 보장해 주게 됨

4.3. 여성의 참여와 소통이 활발한 도시 조성

- 독일의 경우 시민대상 성주류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별 사회(복지)적 상황 및 도시발전, 거주지,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여성-일-가정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성의 참여를 유도함
-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에서는 여성의 관점을 도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여행 동반자단」 과 「여행 프로슈머단」 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여행포럼단」 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여성부터 전문가 여성까지 정책추진 과정에 다양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주민, 여성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설계와 시공 등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여성의 참여구조(gender governance)를 일반 시민 여성과 지역 여성의 참여와 자치조직, 시정 모니터링, 여성 주민의 주민자치기구 활성화, 도시정책 관련 위원회 등 민간위원 여성비율(최소) 의무화 등으로 다양화하고 참여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4.4.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 업종별 여성 취업현황을 볼 때, 익산 여성은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등 생산직·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남성 비율이 더 높음

◆ 익산시의 업종별 여성 취업현황(2008년 말 기준)



- 업종별 남녀 대표자 현황을 볼 때, 여성대표자는 38.33%(7,537명)이며 이중 60.55%(4,564명)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남성(67.5%)에 비하여 여성(46.2%)의 참가율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여성의 일자리가 다양성을 갖지 못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시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여성이 다양한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성 직업 교육이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기업 유치 등 기반환경 조성에 힘써야 함

4.5. 농촌여성 권익 증진 필요

- 업종별 종사자 현황을 볼 때 농촌 여성의 경우 농업에 대한 종사율이 높으나 대표자 현황을 볼 때 농업의 여성 대표자는 1명에 불과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비하여 대표성이 낮은 상황임
- 또한 보육복지, 여가문화 시설의 경우 대부분 도시에 있어 농촌 여성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함
- 이처럼 지금까지 농촌여성의 경우 노동력은 제공하면서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욕구, 문화적 욕구 등에 대하여 권익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촌여성 인구의 증가와 농업 노동력 구조변화로 생산활동에서 여성 농업인 역할이 크게 증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이 재정립되고 권익증진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여성 농업인 정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농업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가 실시 되어야 하는바, 영농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특성화 대학에 여성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을 설치 지원, 도시와 농촌간 사회적 교류를 통한 무공해 농산물 직거래 체제 개발, 도·농여성단체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
- 여성 농업인의 각종 교육 내실화와 사기진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폐교된 학교나 읍·면·동을 이용하여 소규모 지역별 여성건강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성 있음
- 즉, 농촌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뿌리 깊은 남성중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한편, 여성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촌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4.6. 돌봄의 사회적 책임 증대 필요

-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발하게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보육시설 및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손주 양육에 대한 여성 노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 확대 등이 확충될 필요가 있음.
- 도시 계획시에 생활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보육시설, 여성회관, 의료시설 등 충분한 복지 및 돌봄 시설을 확충하는 것 또한 점검될 필요가 있음.
- 돌봄 시설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내에서는 돌봄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 한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어 달 수 있는 사업 수행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익산시여성친화도시 사업평가



1. 도시환경 조성 사업
2. 공공건축물의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사업
3.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사업
4.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사업 평가
5. 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
6. 소결

III.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평가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4대 실천분야와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을 검토하였음. 각 실천분야의 검토는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설문조사,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그룹 인터뷰 결과를 이용하였음

1. 도시환경 조성 사업

1.1. 사업 현황

-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 18개 사업
- 목적
 - 여성이 생활을 영유하는데 겪는 불편과 불안 등 장애요소 제거

- 평등·안전·쾌적한 환경개선을 통한 여성친화도시의 구현
- 여성친화도시 조례 정비,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여성친화적 공공디자인 컨설팅,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사업 현황 및 성과

- 여성친화도시 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여성우선 주차장 가이드라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여성화장실 시설조건 개선 권장” 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설계, 주차장, 도로 및 화장실 개선을 일시적인 사업으로서가 아닌 인증제, 가이드라인, 조례 등의 제도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사업은 도로, 공원, 건축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시행함. 쌍릉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팔봉동 주민 센터 및 자치 센터 신축공사,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확충사업, 미륵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매일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에 설계 반영 심사를 실시하였고, 아파트 등 인허가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정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시 여성친화적인 개념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 오픈 스페이스, 옥외 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경관, 주요간선 가로변 경관디자인에 여성친화 경관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경관디자인 조례 제정(2009. 9. 30)
 - 여성을 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 을 입법예고 하였음. 여성 우선주차면 확보의 최소기준을 지정하고 여성우선주차구획선을 분홍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안내표지등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함
 - 여성화장실 시설조건 개선 권장 사업은 2009년 5월부터 일반음식점, 운동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제1.2 중 근린 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 허가시 “여성화장실”설치조건을 권장하고 있음.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남성화장실 소변기 대변기수 합과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 기저귀 거치대 및 유아용 소형변기 설치, 대형거울 및 화장대 설치 등을 권장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여성친화적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우선 주차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음.

[표 33]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총 사업비	년도별			
				2008	2009	2010	2011
1-1	여성친화시범도시 지정(완료: 2009.3.26)	여성친화정책과	449		25	124	300
1-2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도시개발과	비예산				
1-3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	도시개발과	5,865	1,067	819	1,736	2,243
1-4	보행편의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	건설과	3,934	100	1,448	1,386	1,000
1-5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도시개발과	212	212			
1-6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업그레이드	산림공원과	12,300	2,800	1,700	2,000	5,800
1-7	여성을 위한 주차편의 제공	교통물류과	149		49	100	
1-8	여성친화도시 조례 정비	기획예산과	9		9		
1-9	여성화장실 시설조건 개선 권장	주택관리과	비예산				
1-10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	체육진흥과	315.8	315.8			
1-11	여성화장실 시설 개선(시청·읍면동)	회계과	238		45	60	133
1-12	보행편의 개선을 위한 상수도변류정비	상수관리과	500	100	100	100	200
1-13	여성친화라고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사업	하수관리과	105		65	40	
1-14	스쿨존 내 횡단보도 정비사업	교통물류과	286	256	16	4	10
1-15	여성 및 아동 안전망 지원을 위한 CCTV 설치	여성친화정책과	114	83	25	6	
1-16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도시미관과	10,000			500	9,500
1-17	여성친화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보급	청소과	301	29	64	130	78
1-18	여성친화적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도시개발과	549		49	500	

- 시설 개선 사업은 공공 건물을 중심으로 화장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음.
 - 여성화장실 시설 개선(시청·읍면동) 사업은 근래 설치된 본청 1층, 영등 1·2동, 송학동, 망성면 여성화장실을 여성친화적 시설로 정비하고, 본청사, 읍면동 주민센터 여성화장실 개선
 -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업그레이드 사업은 공원·녹지(신규 및 리모델링)에 여성 친화적 개념과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임. 여성친화 화장실 리모델링, 산책로 조성, 어린이 공원내 놀이기구 수리 및 교체, 공원(녹지)안내판 및 수목 이름표 제작설치, 공원내 시설물, 조명등개선, 장애물제거, 수목전지, 공원개방화, 초화류식재,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였음.
- 거리 정비 사업으로는 무장애 거리 조성을 위하여 단차를 없애고, 보행이 쉽도록 거리를 정비하였음.

-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구도심 지역을 특색 있는 여성친화적인 시범거리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2007년 487m, 2009년 205m, 2010년 310m에 여성이 보행하기 편리한 보도블럭 및 가로시설물에 여성친화 디자인 가미(여성 이미지 표지판, 보안등 등)을 설치하였음.
 - 보행편의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 사업은 시가지 인도에 대하여 보도를 이용하는 여성 및 교통약자(유모차, 휠체어)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턱을 낮추고 침하 및 파손된 보도를 평탄하게 정비하였음. 익산시 총 인도 300km 중 100km를 인도 및 자전거도로로 정비하였음.
 - 보행편의 개선을 위한 상수도 변류 정비 사업은 상수도 계수변 및 소화전 철개의 돌출 침하부분을 포장면과 평탄하게 정비하여 유모차, 휠체어등 보행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임.
 - 여성친화리고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사업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행구간의 맨홀뚜껑을 정비 안전사고 사전예방하는 사업임. 여성친화도시 마스크트 디자인을 맨홀뚜껑 로고로 활용하여 야간 안전사고 고려한 야광기능 부여하였음. 대로변,스쿨존,공원,역전,도서관 주변에 211개의 맨홀뚜껑을 정비하고 단차를 조정하였음.
- 도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정비하고 CCTV를 설치하였으며 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통해 조도를 개선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였음
 - 스쿨존 내 횡단보도 정비사업은 스쿨존내 횡단보도를 HUMP식으로 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여성 및 아동 안전망 지원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은 익산시 중앙동 중앙초교 후문 등 13개소에 13대의 CCTV를 설치하고 익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음.
 - 절전형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은 밝은 거리 조성 사업임. 11,850등에 대하여 등기구, 램프, 안정기, 점멸기 교체, 13,538개소 보안등 표찰 부착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음.
 - 그 밖에 여성친화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보급 사업은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폐달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2,000개로 교체 보급하여 이용의 편의성 도모

1.2. 시민 및 전문가 조사 결과

가. 시민심층면접조사

- 2009년 3월 익산시가 여성부로부터 여성친화시범도시로 지정되었으나 시민심층면접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는 여성친화시범거리 조성, 보도정비, 화장실 개선 등의 하드웨어 부분의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인프라구축보다는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였음
- 익산에 대한 익산시민의 자긍심 고취, 뛰어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익산시 발전방향 제시

나. 시민 요구도 조사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
 -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72.8% 289명은 익산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제 1호 여성친화도시」 라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80%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익산의 현재
 - 여성친화적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도시인프라 중 교통, 경관, 환경 등에 대하여 낮은 접근성과 종류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로 인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익산의 문제
 - 교통분야 관련하여 익산시의 문제로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교통인프라의 부족, 주차시설의 부족함을 지적
 - 문화분야 관련하여 다양하지 못한 문화시설의 종류와 문화시설의 일정도시의 집중화로 인한 익산시민의 제한적 문화향유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여성친화도시 실천분야
 -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4대 실천분야 가운데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분야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인지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에 대한 불만족 의견은 타 사업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36.1%)
- 여성친화적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익산시민이 생각하는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는 치

안 및 방법강화로 안전이 보장된 도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교육, 문화·예술시설, 체육, 복지시설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차순위로 나타남

- 기타 개선희망사항에 문화시설부족, 교통환경 불편, 지역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CCTV설치, 가로등 설치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표 34] 익산시민조사 결과

분야	구분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잘 모르 겠다	합계
	내용						
익산시	익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6.8	25.3	53.9	7.3	6.7	100.0
	익산시민으로서 익산시에서의 삶에 만족한다	5.8	34.7	46.1	9.1	4.3	100.0
교통	공용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다	13.4	48.4	23.7	4.1	10.4	100.0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12.1	39.4	40.1	3.3	5.1	100.0
	버스정류장 위치가 알맞게 되어 있다	8.4	31.6	47.3	4.1	8.6	100.0
	버스배차 간격이 알맞게 운행되고 있다	11.2	33.5	42.1	3.3	9.9	100.0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운행되고 있다	10.4	35.4	38.3	5.3	10.6	100.0
	버스 기사가 친절하고 안전운전을 한다	9.6	27.1	46.1	6.3	10.9	100.0
	택시이용이 편리하고 친절하다	11.4	30.4	43.5	8.4	6.3	100.0
	보도블록이 잘 정비되어 보행이 편리하다	12.5	42.9	35.5	4.8	4.3	100.0
	자전거 도로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19.4	47.1	21.9	3.8	7.8	100.0
	안전	각종 사건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0.7	41.4	24.5	3.8	9.6
화재나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이 잘 되어 있다		7.3	36.9	33.1	5.3	17.4	100.0
경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주변 경관이 아름답다	8.1	37.6	39.2	8.3	6.8	100.0
	간판, 가로등,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모양)이 주변환경과 조화롭다	9.4	48.1	29.3	6.1	7.1	100.0
	건축물, 도로 등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롭다	7.3	44.8	31.3	7.3	9.3	100.0
주거	쓰레기 처리가 편리하다	5.3	35.4	43.3	5.6	10.4	100.0
	집에서 출퇴근 또는 통합하는 것이 편리하다	8.7	32.3	45.2	7.4	6.4	100.0
	주거지 주변 환경(길, 공원, 녹지 등)이 쾌적하다	4.0	38.1	46.3	4.8	6.8	100.0
	생활편의시설(음식점, 슈퍼, 시장, 은행 등)과의 거리가 가깝다	6.3	19.5	59.8	11.4	3.0	100.0
	생활편의시설(음식점, 슈퍼, 시장, 은행 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7.1	22.5	56.3	10.6	3.5	100.0
	집에서 문화시설과의 거리가 가깝다	14.4	46.7	27.7	5.1	6.1	100.0

다. 전문가 FGI 결과

- 전문가 FGI는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짐
-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

-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 행복타운(가칭) 건설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공간조성의 필요성 제기
 -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전통가옥과 옛 건축물과 옛길(고도)을 환경친화적, 인간친화적으로 재창조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
 -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걷기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요구됨
- 정책 수립
-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전반의 변화 추구
 - 여성친화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보급과 관련해 익산시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 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

[표 35] 익산시에 현재모습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야	내용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공무원 수 30% 이상, 과장이상 고위여성공무원 30% 이상 확대 - 여성에게도 남성과 함께 동등한 승진 기회 보장
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지역은 남녀 성인지가 낙후된 지역으로서 여성친화도시를 통하여 남녀 성차별적 사고를 개선 - 여성친화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와 시민의식 개선되어야 함 - 역사·문화적으로 익산시 본연의 자원이 많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미약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 - 익산을 제대로 알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우선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는 익산역(구 이리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배산임수형의 도시가 아니라 주변에 산도 없고 물도 없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욱 많았음 - 익산시의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함 - 자전거도로, 입간판, 전봇대 등을 모두 정리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중심 거리로 개선 - 특히 '거리만들기'는 주민의 협력과 강력한 시민의식 없이는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 참여가 중요함 -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은 단순한 barrier free가 아니라 정책 전반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는 자가용 운전자에게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불편함(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촌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참여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현금의 개념이 아닌 세제혜택 등, 캘리포니아 산호세 사례) - 농촌 거주 할머니들이 안전에게 지낼 수 있도록 그룹홈 조성

1.3. 평가 결과

-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은 그 의미대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비와 구축을 하는 사업임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및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또는 추진하고 있는바 법/제도 마련 사업과 도시인프라 구축 사업을 구분하고 이와 더불어 일시 사업과 지속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체계화가 필요
- 특히 여성친화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도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익산시 시민의 인지도 조사결과에 의할 때 홍보 마케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주민 요구도 조사에 의할 때 교통 환경 개선에 의견을 상당수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업 및 과제는 본 실천 분야에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여성 및 주민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익산시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서 가장 요구되는 사항으로 '안전(safety)'이라고 응답하였는바 CCTV 설치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수요자인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마련하여 실제로 지역 내 거주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또는 지적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CCTV가 설치하는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에서 여성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 동네의 취약 지역을 스스로 찾아내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 한편, 익산시 시민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사업으로서 도시인프라는 그 구축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여성화장실의 경우 꾸준한 관리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시설로 전락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된 도시환경 관리 사업을 추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여성은 차량 운행 시 주차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갖고 있는바 여성전용주차장의 구획도 중요하지만 주차1면 당 면적을 보다 확보하여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기여를 위한 사업 추진도 필요함

2. 공공건축물의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사업

2.1. 사업 현황

- 공공건축물의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 4개 사업
- 목적
 - 아이를 동반한 민원방문·도서관·체육공원 등을 이용하는 여성과 시민에게 편리성 제공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사업 현황 및 성과
 - 공공 건축물의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 건축물에 이동과 동반한 여성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서비스는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유아동반 시민에게 보행편의 및 운동여건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응포문화체육센터, 영등시민공원, 수도산체육공원 등에 유모차 35대를 무료 대여 서비스 하고 있음.
 - 영등도서관과 마동도서관에 수유실을 조성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음
 - 여성용품 및 아동용 놀이기구 비치 사업은 여성용품 비치안내문을 화장실에 부착하고 요청시 사무실에서 지급토록 여성용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아동 놀이기구를 비치하여 아동 동반 부모 및 조부모의 주민 센터 방문시 원활한 민원처리에 기여
 -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을 2곳에
 -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송학동 지안리즈어린이집, 동산 휴먼시아어린이집을 준공하였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증개축 2개 어린이 집, 개보수 2개 어린이집, 그 밖에 2개 어린이 집에 장비비를 지원하였음.

[표 36] 공공건축물의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총사업비	년도별			
				2008	2009	2010	2011
2-1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여성친화정책과	1,321		630	431	260
2-2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서비스 제공	체육진흥과	10.5		4.5	6	
2-3	엄마와 아기를 위한 수유실 조성	시립도서관	16		16		
2-4	여성용품 및 아동용 놀이기구 비치	남 중 동	0.2		0.2		

2.2. 시민 요구도 조사 결과

가. 시민심층면접조사

- 보육의 강화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여성의 일과 보육의 양립가능한 환경 조성, 여성의 문화시설 이용 시 보육가능한 시간제 보육프로그램의 도입이 제안됨
- 아동을 동반한 여성 및 장애인의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조성(Barrier free)

[표 37] 익산시 현재 모습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야	내용
보육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확대 - 문화시설/프로그램 이용 시 시간제 보육교사 도입 - 다문화/장애인 여성이 일자리와 보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인	- 장애인 여성이 보육과 일자리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청소년시설/문화시설 등 모든 시설 건립 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고려

나. 시민 요구도 조사

- 익산의 현재
 - 여성, 아동동반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익산시에 위치해 있는 공공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을 이용함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존재함
 - 보육분야에 대해서 현재 익산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보육시설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연

령대별, 시간대별 보육시설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의 환경 또한 안전하고 쾌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여성친화도시 실천분야
 -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4대 실천분야 가운데 공공건축물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분야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시민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부사업인 보육시설 기능보강,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서비스 제공, 모유 수유실 조성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의견이 불만족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표 38] 익산시민조사 결과

분야	구분 내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잘 모르 겠다	합계
	연령대별, 시간대별 보육시설이 다양하다	8.7	37.4	23.4	2.0	28.5	100.0
	보육시설 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하다	6.6	32.3	28.1	2.6	30.4	100.0

2.3. 평가 결과

- 본 실천분야에는 보육시설 기능강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심층인터뷰나 주민설문조사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즉,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보육시설 기능강화, 익산시 보육시설 분포에 대한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옹포면/성당면/낭산면/망성면/용동면 등 지역의 보육시설 부족 실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현황분석에 의할 때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이 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출산 후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자녀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문화 가정을 고려한 보육시설 운영과 조성이 보다 요구됨

3.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사업

3.1. 사업 현황

●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 4개 사업

● 목적

- 여성종합취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
-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한 근무만족도 상승
- 여성농업인의 유망 사업의 조기정착, 판매 확대로 농외소득증가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향상
- 친여성 기업 분위기 조성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지원방안마련 및 시행

● 사업 현황 및 성과

-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사업은 취창업 지원, 농촌 소득 활동 지원, 여성기업 활성화 등 도시와 농촌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로 운영됨
 -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는 직업훈련 교육(8개과정 127명 수료),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알선(1,149명 취업), 직장체험 프로그램(주부인턴제) 운영(40명지원/37명 채용 확정), 구직자에 대한 직업의식교육(33회 495명), 근로자에 대한 찾아가는 직업의식교육(11회 473명)등이 진행됨
 - 농촌여성 소득활동 사업은 우리농산물을 원료로 가공,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사업장 조성(제품특성에 맞는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함열 다송리 사람들 영농법인(장류가공)에 발효장 조성(1,225㎡) 및 메주성형기, 과쇄기, 향아리 구입, 여산 정문희(쌀과자생산)에 작업장보수(62.7㎡), 쌀스넵기계, 오븐기, 반죽기, 작업대 등의 사업장 조성 사업과 판매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음.
 - 여성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여성기업인 중소기업자금 우대지원(10억원), 여성기업인 우수중소기업선정 및 여성기업인 제품 우선 구매 추진 사업이 추진되었음. 또한, 여성 CEO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에 판로개척을 위해 업체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와 같은 방안은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우수중소기업선정인 수가 1명 뿐이고 현실적인 제도 운영에 있어 여성대표자 기업중에서 여성 기업인은 명목상의 대표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직장가정 양립 지원 사업으로는 여성친화기업 협약과 공무원 탄력근무제 실시가 주되게 시행됨.
 - 공무원 탄력 근무제도는 영·유아 및 저학년의 자녀를 가진 직원 및 대학원수강이나 시

간 활용을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도를 74명, 1주 이상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도를 14명(2009년)이 이용하였음.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는 여성친화기업 협약(120개 업체)을 맺었고, 가족체험 여행/다도문화체험(각 4회씩257명) 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표 39]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총사업비	년도별			
				2008	2009	2010	2011
3-1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 개선	여성친화정책과	2,082	200	600	641	641
3-2	공무원 탄력근무제 실시	행정지원과	비예산				
3-3	농촌여성 소득활동 사업	인력육성과	471	251	120	60	40
3-4	여성기업 활성화 방안	투자유치과	70			30	40

3.2. 시민 요구도 조사 결과

가. 시민심층면접조사

- 여성일자리
 - 지역 내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로 익산시의 청장년층 인구감소의 궁극적 원인 해소
 -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 직업교육의 여가활동으로 생각하는 교육생이 많아 실질적으로 취업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마련
- 여성친화기업
 - 여성친화기업 운영자 및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보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
-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
 - 농촌여성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소득활동, 돌봄, 안전, 주거문제 등에 대한 대책필요
 -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으로 실질적 혜택제공

[표 40] 익산시 현재 모습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야	내용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고학력자들이 많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 (← 익산시 청장년층 인구 감소의 원인) - 결혼·육아로 인하여 경력 단절된 여성 등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보육과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여성친화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직업상담 및 교육 후 취업 시 출퇴근버스까지 제공하지만 고학력 여성의 생산직 기피로 인하여 취업연계에 애로 → 고학력 여성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유치, 저임금구조 개선 등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여성 소득활동 지원으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효과성 큼 - 농촌인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할머니를 위한 대책 필요(소득활동, 돌봄, 안전, 주거 문제 등)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지원만 받고 취업은 하지 않아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인력활용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단순히 여가활동으로 교육을 듣는 경우가 있음 -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마련 필요

나. 시민 요구도 조사

- 익산시민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문제의식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익산의 현재
 - 일자리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일자리 종류의 다양화, 일과 가정의 양립,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교육, 상담, 연계 등의 시의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익산시의 가장 시급한 분야의 1순위로 일자리가 꼽혔으며, 그 이유로는 다양한 일자리의 부족, 낮은 임금, 인구유출이 원인이라는 응답이 높은 빈도로 나타남
- 익산의 미래
 - 익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기 좋고 경제적으로 활력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남
- 여성친화도시 실천분야
 -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실시에 대하여 상당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세부사업인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 여성기업활성화 지원 사업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불만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 필요한 조건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시거주 여성의 경우 농촌여성의 응답보다 2배 높게 나타남

[표 41] 익산시민조사 결과

분야	구분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잘 모르 겠다	합계
	내용						
일자리	일자리종류가 다양하다	13.6	57.4	18.4	3.3	7.3	100.0
	일하면서 가정을 돌보기 쉽다	12.8	52.9	20.4	2.8	11.1	100.0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시의 지원(교육/상담/연계/창업지원 등)이 잘 되어 있다	12.4	50.8	19.3	2.0	15.5	100.0
교육	나이, 성별,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7.1	40.5	24.8	5.3	22.3	100.0

다. 전문가 FGI 결과

- 여성일자리
 - 새일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수료 후 미취업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실제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을 의미함. 새일여성본부를 통한 직업 교육 실시, 근로자를 위한 반찬 지원(새일반찬점), 여성친화 환경개선자금 지원, 찾아가는 근로자 지원(양성평등교육, 웃음치료 등)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민심층면접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력풀을 활성화와 지역 내 기업 지원 필요
 - 미래 익산시의 성장주도사업인 식품클러스터 내 여성 식품전문가 육성
- 익산 산업
 - 익산시의 주력 산업이었던 보석단지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보석도시로서 위상 재정립 필요
 -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써 가치를 고취하며 역사자원의 해설사로 주부, 할머니들을 활용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
- 일/가정 양립

- 일과 가정양립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측면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 문제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임을 인식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 향후 과제

[표 42] 익산시에 현재모습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야	내용
일자리	- 직업교육 통해서 비용지원 받은 시민들이 교육 수료 후 취업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실제 직업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지원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발전할 수 없음
	- 지역 내 고학력 여성인력이 많으나 활용하지 못한 채 도태되고 있는 실정 - 고학력 여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력풀을 활성화해야 함 -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 - 미래 익산시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클러스터에 여성 식품전문가를 육성하여 활용
산업	- 침체되어 있는 보석단지를 활성화하여 보석 도시로서 위상 재정립 필요 - 단, 지금처럼 보석 판매 숍들이 오픈되어 있는 구조가 아닌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고품격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야 함
	- 미륵사지 등 익산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익산시가 가진 역사자원(미륵사지, 사리장엄,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은 잘 개발된다면 관광자원으로 가치 높음 - 역사자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해설사로서 주부, 할머니들을 활용한다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임

3.3. 평가 결과

-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분야는 4가지 과제가 추진 중에 있는바 전문가들은 여성친화기업의 경영자, 여성기업가, 지역 여성단체, 고학력 여성 등 지역 내 여성 관련 인력풀을 구축하여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키는 사업을 제시함
- 그리고 추후 조성 예정인 식품클러스터는 노동수요를 상당히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여성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 또한 시민 인터뷰 결과 여성은 출산·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재취업 기회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피력함
- 한편, 공공건축물의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사업의 실천분야에 포함된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은 본 실천분야에도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이 확충은 포함되는바 익산시민은 경제활동을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야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여 이러한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사업 평가

4.1. 사업 현황

-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익산 ▷▶ 21개 사업
- 목적
 - 환경·주거·도로·교통 등 다양한 방면의 비합리적인 요소 등에 대한 정책과 체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 채널 확보
 -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보육 여건 개선
 - 대중적 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한 문화소의 계층 해소 및 가족 대상의 여가 향유 기회 제공
 - 노인과 가족 등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이 많은 익산의 특수성을 감안,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을 통한 총체적 지원
 - 산모·난임(불임)부부·갱년기 여성 등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을 통한 행복한 익산의 구현
- 사업 현황 및 성과
 - 여성친화도시 의견수렴함 운영은 2010.1.월부터 시청민원실,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30개소에서 생활불편 개선 사항과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익산의 이미지에 맞게 시외버스터미널 단장, 남중동 공원 운동기구 설치, 무단횡단지역 나무 식재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제안 등이 생활불편 개선 사항으로 논의되었고, 양보 운전, 흡연 에티켓과 관련된 시민 의식 개선 관련 제안이 있었음. 대형할인마트(3개소), 익산 CGV 등으로 의견 수렴함을 추가 설치할 예정임
 - 다양한 돌봄 지원 사업이 수행되었음.
 -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충은 늦은시간(19:30~최대24:00까지,토요일 15:30~24:00)까지 아이를 맡길수 있도록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받은 5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음. 시간연장 이용아동은 전체아동의 2.8%인 249명으로 월150,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노인돌봄 서비스는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및 신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노인돌보미 바우처 신청대상

자 서비스제공기관 연계보호 사업으로 9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익산지역자활센터,신광 노인복지 센터가 식사, 세면, 청소 세탁등 가사활동,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도서관 이용 여성을 위한 탁아지원 사업은 영유아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엄마들이 강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아돌보미와 탁아돌보미를 배치하여 만 3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미술놀이, 신체놀이 등의 탁아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임.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으로 익산시에서는 337명에 대해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였음.
- 한부모 가족 무지개빛 사랑 나누기 사업은 한부모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나눔미'가 학습지원, 체험활동, 상담, 정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익산시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들도 수행되었음
 -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길거리음악회는 익산시립합창단, 익산시립무용단, 익산시립풍물단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음악회를 개최하고 5개 지역아동센터 64명에게 사물놀이 강좌를 실시하는 사업임
 - 여성·가족 친화적인 주말가족농장 운영 사업으로 가족단위 텃밭조성과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교육 및 여성·노약자를 위한 가족단위 쉼터조성 사업을 수행하였음.
 - 여성친화 주민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주민자치센터를 모든 여성들의 평생학습과 문화 여가활동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로 노년층 이용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부와 어린이를 위한 신규 강좌 개설로 자치센터 활성화하고자 함.
 - 여성친화적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젓갈 담그기, 손두부, 꽃떡, 인절미 만들기, 죽순·고구마요리 등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스카프, 손수건, 손토시, 티셔츠, 가방 등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치즈·요구르트 가공, 천연비누, 야생화 분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표 43]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익산

번호	사업명	담당부서	총 사업비	년도 별			
				2008	2009	2010	2011
4-1	여성친화도시 의견수렴함 운영	여성친화정책과	16		10	2	4
4-2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충	여성친화정책과	189		90	99	
4-3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길거리음악회	문화관광과	507.8		210	297.8	
4-4	노인돌봄 서비스	사회복지과	1,500	165	150	535	650
4-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여성친화정책과	1,369	332	375	331	331
4-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여성친화정책과	1,360	262	246	426	426
4-7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교통물류과	1,275		525	750	
4-8	도서관 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시립도서관	12			12	
4-9	도서관 이용 여성을 위한 탁아지원	시립도서관	비예산				
4-1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건지원과	621	124	115	191	191
4-11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보건지원과	754	124	115	258	257
4-12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보건사업과	48	12	8	14	14
4-13	여성·가족 친화적인 주말가족농장 운영	연구개발과	113	44	19	10	40
4-14	여성친화 주민프로그램 운영	신 등	30		30		
4-15	여성친화도시 로그(마크) 표시 및 활용	여성친화정책과	비예산				
4-16	여성회관 운영활성화 방안	여성친화정책과	484	110	112	131	131
4-17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사업	보건소	131			65.5	65.5
4-18	여성친화적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력육성과	32	5	7	10	10
4-19	한부모 가족 무지개빛 사랑 나누기	여성친화정책과	36			36	
4-20	농촌여성 권익향상 지원사업	인력육성과	266.5			96.5	170
4-21	모유 수유 사업	보건지원과	73	19	15	9	30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사업과 같은 기본적인 사업 이외에 장애야가족 양육지원사업, 위기·취약가족 지원사업,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개인상담, 집단상담, 예방교육) 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및 148명의 이주여성들이 국적별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영농교육사업(압화, 영농기술 기반교육 등)등을 통하여 기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더불어 정착지원 특화사업(육아 나눔터)을 진행하고 있음.
- 여성을 위한 콜택시는 운전자에 대한 자료와 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 여성전용택시 운영

하는 사업임. 여성전용 브랜드 택시(pink taxi)로 개인법인택시 통합콜센터 및 브랜드택시 장비를 설치하고 법인을 설립하였음.

- 도서관 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은 자원봉사자 교육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초청강연회 등을 통하여 도서관 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찾아가는 봉사단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임. 찾아가는 봉사단은 도서관행사지원, 찾아가는 봉사, 인형극봉사, 실무봉사, 홍보자로 편집봉사, 탁아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건강 관련 특화된 지원 사업들이 수행되었음
 -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자(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및 인공수정시술을 지원하는 사업임.
 - 모유 수유 사업은 익산시 모유수유율이 생후 2개월(51.9%) → 6개월(26.8%) → 12개월(3.3%) 등으로 개월수에 따라 낮아짐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모유수유 유촉기 1인당 2개월 무료 대여, 모유수유 용품 지급(모유수유팩의 6종),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고 있음.
 -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은 45세~ 60세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증상완화를 위한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320명에게 갱년기 증상별 아로마 사용법, 아로마 맛사지 방법 및 실습, 갱년기 증상별 아로마 용품 만들기, 아로마를 통한 명상요법, 웃음치료, 뇨실금 예방교육, 갱년기 우울증 등의 교육이 수행되었음.
 -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세대 관내 만 9세~ 만4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190명에게 실시하고 있음.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사망률 2위, 우리나라 발병율 17.9%으로 의료기관 과 협약을 체결하여 백신 비용,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시설물 및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여성친화도시 로그(마크) 표시 및 활용
- 여성회관은 27과목 1,000명을 대상으로 취미교양교육(실버댄스 외 8과목/ 586명), 직업기술교육(한식조리사 외 11과목 / 491명), 어르신한글교육(38명), 외국인 교육(외국인한글 외 1과목 / 61명) 을 운영하고 있음. 여성회관은 여가문화 충족,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및 알선과 어르신과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농촌여성 권익향상 지원사업은 농가경영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여성중심 작업인 시설과채류 재배지역 이동용 컴퓨터 보급 등과 여성농업인 소유 토지·주택갓기 등의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4.2. 시민 요구도 조사 결과

가. 시민심층면접조사

● 문화

- 문화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조성 필요(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개선,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수단의 다각화)
-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의 부족

[표 44] 익산시 현재 모습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야	내용
의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여성 및 그 가정이 관내 병원을 통해 의료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현재 군산의료원과 협정) - 여성친화도시로서 전국 유일하게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익산시 예산)
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원광대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아이가 있는 이주여성들이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계단을 유모차를 끌고 오르내리기 힘들고, 아이를 데리고 수업에 집중하기 불편) - 결혼이민자들이 만든 수공예품의 판로 개척 및 경쟁력 있는 활용처 발굴 지원 필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숨리예술회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규모의 공연 가능) - 문화시설의 대중교통 이용한 접근성 개선(버스 노선 부족) -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공간 부족 - 새로운 공간을 건립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프로그램 활성화) - 문화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부족 → 홍보 및 마케팅 수단의 채널을 다각화 할 필요

● 의료

- 요보호 여성 및 요보호 가정의 관내 의료시설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의 확대

● 여성안전

- 여성을 위한 콜택시의 운전자는 여성운전자가 되어야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음
- 현재 운행되고 있는 핑크택시의 경우 시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임

나. 시민 요구도 조사

● 익산의 현재

- 익산시민은 의료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복지시설의 접근성,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시민의 의견수렴,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남.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 방식으로 37.1%가 시민여론조사(설문조사)를 통한 의견반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1.8%는 주민청원 및 민원 등을 통한 요구와 의견제시라고 응답함

[표 45] 익산시민조사 결과

분야	구분 내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잘 모르 겠다	합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13.7	40.3	34.8	5.1	6.1	100.0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9.1	47.0	25.2	2.5	16.2	100.0	
자녀 또는 가족과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8.6	43.0	33.2	4.3	10.9	100.0	
익산시의 문화재, 유적지 등 역사자원이 잘 보존되고 있다	2.0	22.9	50.6	12.0	12.5	100.0	
익산시의 전통문화, 축제, 유적지 등을 관광문화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3.0	24.9	48.8	12.4	10.9	100.0	
안전	각종 사건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0.7	41.4	24.5	3.8	9.6	100.0
	화재나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이 잘 되어 있다	7.3	36.9	33.1	5.3	17.4	100.0
의료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가깝다	5.6	19.3	60.9	12.2	2.0	100.0
	규모별(개인병원/종합병원), 종류별(치과/안과/산부인과 등)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6.0	19.2	57.9	9.8	7.1	100.0
복지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복지시설이 다양하다	8.1	39.5	23.0	4.1	25.3	100.0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용자를 고려하여 편리하게 건축되었다	7.6	35.4	25.5	3.5	28.0	100.0
	복지시설이 가깝다	10.4	40.9	26.1	2.8	19.8	100.0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7.9	35.9	23.2	3.3	29.7	100.0

● 여성친화도시 실천분야

- 4대 실천분야 가운데 여성친화적 문화도시조성 분야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세부사업인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대하여 세부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인 58.5%가 모른다고 응답함
- 문화적으로 활성화된 도시가 되기 위해 응답자의 36.5%가 선택의 폭이 넓고 상시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예술시설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

지함

-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현황으로 응답자의 82.1%는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함
-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마련과 시민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다. 전문가 FGI 결과

- 저소득 맞벌이 여성,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정 등 다양한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성친화도시를 활용한 익산시의 브랜드 정착
-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며 소규모 길거리 공연 등에 지역 예술가와 학생들을 활용
- 여성친화도시가 성공하기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와 성차별적 사고 개선

[표 46] 익산시에 현재모습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야	내용
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지역은 남녀 성인지가 낙후된 지역으로서 여성친화도시를 통하여 남녀 성차별적 사고를 개선 - 여성친화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와 시민의식 개선되어야 함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적으로 익산시 본연의 자원이 많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미약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 - 익산을 제대로 알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우선 - 행복타운(가칭) 건설하여 여성의 모든 활동이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적 공간 조성 - 행복타운(가칭)은 여성이 원하는 것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공간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센터 및 여성단체 입주 공간 제공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화도 매우 중요함 - 소규모 길거리 공연 등에 지역 예술가와 학생들을 활용 - 익산시에 얼마 남지 않은 전통가옥과 옛 건축물을 시비로 매입하여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 옛길(고도)을 찾아 환경친화적, 인간친화적으로 재창조 - 맞벌이 여성의 임금이 낮은 수준인데, 정부의 지원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저소득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으므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4.3. 평가 결과

-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의 실천분야 각 사업들은 여성의 건강 및 의료, 모성보호, 일상생활의 지원 등 매우 다양한 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실천분야와 역시 중복될 수 있어 체계화 작업이 필요함
- 본 실천분야 중 여성친화도시 로고(마크) 표시 및 활용이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로고의 보다 폭 넓은 활용 등 홍보·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친화적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여타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부족하며 여성을 위한 콜택시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요구됨
- 지역주민의 의견 조사결과 여성을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야 하며 보다 다양한 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앞서 살펴본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익산시는 의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안의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 여성친화도시 추진 부서
 - 익산시가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천 과제와 그와 연계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익산시의 연간업무계획 등 각 분야별 시정방향을 수립할 때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조정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함
- 여성친화도시 담당 부서
 - 익산시 여성친화사업은 익산시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익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여성친화적 관점을 견지한 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 자체가 여성친화적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과 수정·보완 과정이 필요함
 - 이러한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의 필요성은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바 이러한 조직 체계 마련 및 협의체 구성은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될 수 있음

- 그러나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여성친화정책과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뿐 아니라 타 부서에서(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등) 담당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업무 및 보육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 수가 1명으로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여성친화정책과의 편제 및 지위를 고려할 때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총괄 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여성친화정책과를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총괄부서로서 특화시키는 방안, 편제를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방안, 현 편제를 유지한 채 관련 전문가의 채용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를 내실화(예: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거나 정기회의를 연2회에서 연6회로 확대하여 정책자문 강화)하는 방안 등 사업 추진 주체로서 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시민참여 기제

- 여성전문가 인력풀제는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 전문가 인력 DB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전북도 소재지 대학 및 대학교 19개소 207명,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수 204명(16.3%), 사회단체 내 여성정책 전문가 추천 협조를 통하여 여성전문가 인력풀을 구비하였음
- 여성친화 서포터즈 『다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활동일	사업내용	참여자
2009. 11. 20	- 수유실 이용해보기 -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체험 - 도서 제자리에 꽂기 - 기증 도서에 기증자 이름 쓰기 - 어린이 화장실 이용해보기 - 토론	20여명
2009. 12. 9	- 여성 안전 호신술 교육 - 토 론	22명
2009. 12. 17	- 새로일하기지원본부 사업내용 설명 및 토론답변	28명
2009. 12. 29	- 행복나눔마켓 사업내용 설명 - 기증물품 기탁 및 행복나눔마켓 견학 - 토론	21명

- 여성친화 서포터즈 내 소그룹 모임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소그룹 활동을 지원함. 여성친화 서포터즈 중 모듬 가입 희망자로 구성하여 월 1회 모듬별 활동 (토의 및 현장조사 등)

모듬 명	활동 내역	활동 인원
어린이와 여성 안전 모듬	- CCTV 운영, 안전을 위한 사회적 장치 등	10
여성 일자리 모듬	- 일자리 창출, 여성평생 교육, 여성단체 활성화 등	10
여성친화적 도시 환경 모듬	-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화장실 개선, -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시설 설치, - 여성을 위한 주차 및 보행편의를 위한 보도정비, - 여성 등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물 개선 등	18
여성인권보호 모듬	- 가정 및 성폭력 예방, 성매매금지법 홍보 등	5
평등 가족 문화 모듬	- 평등가족 문화 확산, 지역 여성문화 발굴, - 청소년 성평등문화 확산, 지역내 성차별 이슈 찾 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제안	7

- 여성친화도시 의견 수렴함은 비치된 엽서에 제안내용 적어서 함에 투입하면, 개선요구안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현지 확인 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침. 처리사항은 제안자에게 통보됨. 고장난 신호등 보수 요청, 가로등 점등 요청 등 7건의 생활불편 개선 의견이 제안되었음. 익산시 이미지에 맞게 시외버스터미널 정비 방안, 가로등 조도 개선, 무단횡단지역 중앙분리대 설치, 공원내 비가림 시설 설치,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등 9건의 공공시설물 개선의견이 제안되었음. 그 밖에 여성전용 콜택시 운영 제안이 채택되어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음.

●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 문제점으로 140명 35.3%가 체계적인 계획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24명 31.2%가 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응답함
- 51명 12.8%는 사업의 필요성 부족, 42명 10.6%는 예산낭비, 33명 8.3%가 익산시 이미지와 부적합하다고 응답함
- 기타의견으로는 홍보부족 7명, 모두다 문제점이 되었다는 의견이 1명으로 조사됨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39.8%는 사업효과가 거의 없는 점을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체계적인 계획의 부족도 33.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도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체계적인 계획의 부족(41.2%), 사업효과의 미비(31.4%) 순으로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이라고 응답함

[표 47] 익산시민조사 결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계	도시(%)		농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사업 필요성 부족	12.8	9.6	14.8	9.8	23.8
사업효과 미비	31.2	39.8	25.9	31.4	16.7
익산시 이미지와 부적합	8.3	8.4	8.1	2.0	14.3
체계적 계획 부족	35.3	33.1	34.1	41.2	38.1
예산 낭비	10.6	6.7	14.8	15.6	7.1
기타	1.8	2.4	2.3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보완점

- 여성친화도시의 과정상의 보완점으로는 129명 31.9%가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13명 27.9%가 홍보 및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기타의견으로는 사업이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명, 홍보부족 1명, 모두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 1명으로 조사됨

[표 48] 익산시민조사 결과

추진 과정상의 보완점	빈도(명)	비율(%)
홍보 및 마케팅 강화	113	27.9
시민의 이해와 참여 활성화	129	31.9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강력한 추진의지	95	23.5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32	7.9
익산시 실정에 맞는 대표사업 발굴	35	8.6
기타	1	0.2
합계	405	100.0

● 여성의 참여현황

-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으며 여성의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없었으나 응답한 비율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성별에 따른 생각의 차이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가 현재의 참여상황에 대하여 더 부정적이었으며,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표 49] 익산시민조사 결과

여성참여현황	백분율(%)				
	계	여자	남자	도시	농촌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며,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7.9	2.8	13.5	6.8	11.7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만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	10.0	27.2	32.9	31.3	23.7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으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	29.5	10.1	10.0	11.1	6.5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으며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	52.6	59.9	43.6	50.8	5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필요사업

-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응답자의 38.3%가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마련과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시민 주도적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응답함
- 27.2%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인간 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22.5%가 복지관, 여성회관, 도서관 등 대민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성평등, 전문성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성별 및 지역별 응답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응답이 전체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의 경우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마련 및 시민주도참여 방안은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됨
-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마련 및 시민주도참여 방안이 전체응답률보다 낮게 조사되었으나 대민서비스기관의 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조사됨

[표 50] 익산시민조사 결과

여성참여현황	계	도시		농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공무원대상 서비스, 성평등, 친절도, 전문성 등의 지속적인 교육	11.7	12.4	10.7	11.1	14.3
인간 중심적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27.2	27.1	26.7	27.8	26.2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마련, 시민 주도적 참여방안 마련	38.3	38.2	42.7	29.6	35.7
대민 서비스 기관 종사자 대상 친절, 성평등, 전문성 등의 교육	22.5	22.3	19.1	31.5	23.8
기타	0.3	0.0	0.8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6. 소결

-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조성, 공공건축물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4대 실천 분야를 설정하였고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조례정비,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정, 여성친화적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등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사업들이 시행되었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4대 실천분야에 대하여 응답자의 높은 비율이 사업에 대하여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 특히 주말가족 농장운영(58.5%), 농촌여성 권익향상지원(55.9%), 여성친화도시 의견수렴함 운영(54.2%) 등에 대한 의견에 과반 수 이상이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분야별 만족도에 대한 물음에 보행편의개선(보도정비)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비율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한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분야별로는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분야(36.1%)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건축물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분야(33.1%)의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 여성친화도시 분야별 만족도

구분		사업 잘 모름	매우 불만 족	불만 족	만족	매우만 족	계
분야	내용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	38.1	3.7	29.1	25.4	3.7	100.0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	46.1	6.1	27.3	18.2	2.3	100.0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47.0	6.8	24.2	18.2	3.8	100.0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개선	34.1	6.1	25.0	31.8	3.0	100.0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	37.4	9.9	26.0	25.2	1.5	100.0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30.2	11.6	24.8	29.5	3.9	100.0
	보행편의개선(보도정비)	28.3	13.0	28.2	29.0	1.5	100.0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26.6	8.4	26.0	34.4	4.6	100.0
	안전보장을 위한 CCTV설치	32.8	13.0	24.4	20.6	9.2	100.0
공공건축물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보육시설 기능 보강(환경개선 등)	50.4	1.5	16.0	32.1	0.0	100.0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서비스 제공	43.9	3.8	15.2	33.3	3.8	100.0
	모유 수유실 조성(도서관)	47.3	5.4	17.1	27.9	2.3	100.0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41.8	3.9	20.2	31.0	3.1	100.0
	여성을 위한 콜택시 운영	41.2	7.6	22.9	21.4	6.9	100.0
	농촌여성 권익향상지원	55.9	6.3	16.5	20.5	0.8	100.0
	임산부 280 건강관리 서비스	53.0	6.3	10.2	25.8	4.7	100.0
	여성친화도시 의견수렴함 운영	54.2	2.3	19.4	19.4	4.7	100.0
	길거리 음악회	46.9	8.5	12.3	28.5	3.8	100.0
	주말가족 농장 운영	58.5	2.3	13.1	24.6	1.5	100.0

- 이에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과 방향 설정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일자리, 교통, 문화, 안전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 분야에 대한 시민 요구도 큰 것으로 나타남

[표 52] 익산시민이 느끼는 가장 시급한 문제

구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	살기 좋은 도시
1순위	일자리(26.44%)	일하기 좋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
2순위	교통(14.41%)	교통이 편리한 도시
3순위	문화(12.96%)	풍부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
4순위	안전(11.02%)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 먼저, 일하기 좋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를 시민들이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음. 현재 새일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 우리농산물을 원료로 생산, 가공, 판매하고자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제품 생산 사업장 조성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지원 사업, 여성중소 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문제점 해결방안 제공 및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직업교육 받은 여성의 미취업 문제, 고학력 여성인력의 취업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사후관리 활성화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
-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118명 28.3%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직장 내 보육시설, 시간 연장 등) 수의 증대라고 응답함
 - 112명 26.9%가 여성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등 여성취업(창업)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105명 25.2%는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함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보육시설의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여성취업교육 및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일자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과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 익산시민조사 결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계	도시(%)		농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증대	28.3	34.3	28.6	17.2	18.3
노인, 장애인 요양시설 증대	8.6	7.1	8.4	8.6	13.6
여성취업교육 및 지원 확대	26.9	29.6	20.3	46.6	13.6
다양한 일자리 마련	25.2	18.9	33.6	12.1	40.9
농촌여성 및 이주여성의 소득활동 지원	5.5	3.6	4.2	12.1	9.1
여성기업인에 대한 자금우대지원 및 마케팅 지원 확대	5.5	6.5	4.9	3.4	4.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직업교육 후 실제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일자리 갖기 지원의 실효성 미흡
 - 익산시에서는 전국에서 5번째 설치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새일본부)와 여성일자리갖기지원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음

- 그런데 응답자 62.7%가 일자리를 갖기 위한 시의 지원이 잘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여, 이러한 익산시의 지원이 홍보 부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일자리를 갖기 원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시민과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여성친화기업 등 기업의 수요는 많지만, 새일본부 등 일자리 갖기 지원을 통하여 직업교육을 받은 구직자가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아 취업으로 연계하기가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일자리 교육과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새일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익산시 관내 일자리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관리·운영을 총괄하고, 기업과 연계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야 함
 - 이때, 구직자와의 충분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해서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 후 실제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함
 - 또한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후 해당 기업으로 인력을 지원하여 기업이 바라는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도움
- **보육기반 격차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문제**
- 보육시설의 접근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만족하고 있는 시민보다 불만족하고 있는 시민이 2배가량 많이 조사되었음
 - 가정과 직장에서의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동지역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할수록 불편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황조사 결과 실제로도 농촌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이 전무한 지역도 있었으며, 동지역에서도 보육시설이 일부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간 보육기반 격차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전체 보육시설 수로 보면, 타도시와 비교할 때 유아(0~4세) 천 명당 보육시설 수가 전국 75개 시중에서 12위로 나타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육시설이 전무한 읍·면지역에는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육기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으나, 동지역의 경우 무분별한 시설 건립보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내실을 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보육을 비롯하여 돌봄 기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는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응답자 65.7%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함

-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는 시설(인프라)적 측면 외에 저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돌봄 지원, 농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지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함
-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으로 고학력 인적자원의 유출**
 - 시민 설문조사, 시민 및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익산시민이 느끼는 불편함 중에서 가장 크고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71%가 일자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층조사 결과에서도 고학력 인구에 비하여 이들이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업교육 지원을 받은 이들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교육 후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익산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9.52%이고, 85%가 서비스업인데 이중 58.82%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서 전통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 및 보험업 1.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9%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낮음
 - 대학 및 대학교 3개교가 소재하고 있는 익산시의 특성상 고학력 청년층 취업인구가 많은데 비하여 익산시의 산업구조는 이러한 고학력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 조건과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움
 - 고학력 구직자가 아니더라도 생산직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수요에 비하여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이로 인하여 익산시는 전국 75개시와의 비교에서 산업 경쟁력 지표인 인구 천 명당 사업체수, 인구 천 명당 종사자수가 각각 48위, 46위로 매우 낮고, 주변 도시인 군산, 전주와 비교할 때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참가율이 50위, 고용률 51위, 실업률 34위로 고용 기반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익산의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가까운 전주와 군산, 대전 등지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자리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다양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둘째, 교통이 편리한 도시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주로 보행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익산시민들은 보행편의 뿐만 아니라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와 보도 겸용으로 인한 통행의 불

편 해소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요청하고 있음. 더불어 버스배차간격,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불편 개선과 특히, 도농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격차를 완화시킬 것 등을 요청하였음. 이 밖에 여성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계획(출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노유자 동반 또는 고령여성운전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 수립 요청에 대해서는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개선의 제도적 기초를 확보하였음.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04.15>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0.04.15>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04.15>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④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이 한다. <신설 2010.04.15>

● **공용주차장 부족 및 여성우선주차장에 대한 실효성 문제**

- 응답자의 61.5%가 공용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공용주차장의 부족은 불법주정차의 원인이 되고, 불법주정차는 교통 혼잡, 보행 불편, 영업 방해 등 또 다른 불편을 유발함
- 여성우선주차장의 경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필요성 인식, 홍보 없이 관주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여성 이용자의 이용률도 낮고, 효과성 보다는 일반 시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주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킴

● **도농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격차**

- 익산시의 경우 주변 도시에 비하여 도로 포장률이 높고 도로계획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일부 정체 구간을 제외하면 도로·교통 기반이 좋은 도시임
- 그러나 익산시의 일인당 자동차등록대수는 0.35대로 자가운전자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시민의 수가 많으므로 대중교통기반이 중요함
-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도시에 비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노선도 한정적이어서 농촌 주민의 교통 불편이 큼
- 설문조사 결과,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버스정류소 위치, 버스노선의 다양성 등에 만족(동 응답자의 55%, 45.5%)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 거주할수록 불만족(읍면 응답자

의 55.8%, 58.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통체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소형버스, 소형콜택시, 읍면동사무소 관용차 이용 등)

● **버스배차간격,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

- 익산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배차간격, 정류소 위치, 노선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버스 배차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BIS(Bus Intelligent System)의 도입이 시급한바 현재 익산에서 구축하고 있는 ITS기반을 조속히 완성하여야함
-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은 대중교통 체계에 최첨단 IT기술을 도입하여 버스의 위치와 정류소 도착예정시간 등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대중교통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임

- 셋째, 풍부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은 익산시립합창단, 익산시립무용단, 익산시립풍물단 등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전 먹거리 생산 및 도시민들의 농업체험활동 프로그램, 신동 자치센터 내에 주부, 어린이, 노인 등 연령별 여성친화프로그램 신규개설,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성회관 운영, 여성과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유모차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 여성 탁아 지원, 여성친화유아전용놀이방 설치 등을 지원하였음.

- 이와 같은 여가 문화 프로그램 지원 이외에 익산 시민들은 주야간,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건전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권 공원 시설을 요청하고 있음. 익산시민의 문화적 욕구는 높으나 익산시에서 충족되지 않아 타 지역에서 해소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프로그램 내실화를 요청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광범위한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을 요청하고 있음.

● **문화적으로 활성화된 도시**

- 익산시가 문화적으로 활성화된 도시가 되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응답자의 36.5%인 146명이 선택의 폭이 넓고 상시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함
- 미륵사지, 석탑, 왕궁터 등 익산시의 역사적 자원을 잘 보존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86명 21.5%, 익산시여성회관, 주민센터 등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잘 정비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71명 17.8% 순으로 조사됨

- 지역 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과 비슷한 상태를 보임. 그러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다문화가정, 농촌과 도시가 문화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유형의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남

[표 54] 익산시민조사 결과

문화적으로 활성화된 도시	계	도시(%)		농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다양하고 상시 이용가능한 복합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확보	36.5	40.4	30.4	35.8	39.5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21.5	13.2	30.4	20.9	27.9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활성화	17.8	24.7	15.6	9.4	9.3
다문화가정, 농촌과 도시가 문화적으로 조화	11.5	8.4	8.1	24.5	16.3
시의 지원을 통한 시민참여 문화활동을 활성화	12.5	12.7	15.5	9.4	7.0
기타	0.2	0.6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익산시민의 문화적 욕구는 높으나 익산시에서 충족되지 않아 전주, 대전, 서울 등 외부로 가서 해소**

- 익산시민은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하여 ‘풍부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라고 응답한 시민이 가중치 부여 시 281점으로 3번째로 높은 순위를 나타낸바,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익산시 문화자원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낮고,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많은 등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분야를 문화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3번째로 많았음
- 익산시 내에서 충족되지 않은 문화적 욕구는 가까운 전주나 대전, 서울 등 타지역으로 가서 충족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익산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전주 등 다른 지역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홍보 및 마케팅 부족**

- 익산의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는 3.51개로 전국 75개 시 중에서 28위로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 프로그램이 있어도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임
- 기본적으로 익산시민들은 익산의 문화적 기반에 대하여 기대와 관심이 낮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익산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함

- 기존의 홍보와 마케팅 방법은 고전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이었으나,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타겟에 따른 홍보 및 마케팅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매체 활용 또는 입소문에 의한 홍보임(여성친화도시 인식경로에 대한 설문에서 TV·라디오 등 매체가 28.8%, 주변 지인을 통해서가 25.2%로 응답)
- 따라서 지면이나 브로셔 등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성 홍보가 아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홍보 방법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익산이 가진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성 미흡**

- 익산은 백제·마한의 역사가 서려있는 뿌리 깊은 도시로서,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익산쌍릉, 익산토성, 입점리고분 등 총 39건의 백제왕도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왕궁 미륵사지권역과 웅포 입점리권역을 익산역사유적지구로 지정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 추진 중임
- 익산역사유적지구는 고대 도성이 갖추고 있는 4가지 유적, 즉 궁성(왕궁리유적), 사찰(미륵사지), 왕릉(익산쌍릉), 산성(익산토성 등)을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세계와 대한민국의 다른 문화유산에 비하여 훼손되지 않은 백제왕도의 경관과 함께 무왕과 선화공주의 서동설화로 대표되는 스토리텔링이 현재까지 잘 살아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보편 탁월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익산시민들이 생각하는 익산의 대표자원도 미륵사지 등 역사자원이라는 응답이 42.8% 일 정도로 익산시민들의 자부심도 뛰어남
- 특히 2009년 1월 출토된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이 대표적인 예로서 13cm 높이의 금제 사리호를 보면 뚜껑과 저부에는 연꽃잎을, 동체에는 인동과 당초를 더없이 화려하고 힘찬 모습으로 새겨 넣어 탁월한 미적 감각과 조형 기법이 감동을 자아냄
- 하지만 익산시민이 느끼는 자긍심과 역사적 가치는 탁월한 반면 관광 상품화는 미흡함
- 익산시에서는 미륵사지를 이용한 브랜드슬로건을 제작하는 한편, 익산시의 대표적인 설화인 서동요의 서동과 선화공주를 모티브로 익산시의 캐릭터를 만드는 등 익산시의 역사자원을 이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림 15] 익산시 브랜드슬로건(좌)과 서동·선화 캐릭터(우)



-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장애, 보육, 접근성 문제 등으로 여가향유 기회 부족**
 -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적 욕구는 있으나 아이와 함께 이용하길 원하는 시민, 장애가 있는 시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등과 같이 이용 대상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음
 -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야 함
 - 특히 농촌거주 여성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가정 및 도농간 조화를 고려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익산의 모든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
 - 익산의 모든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통제, 대민 정보 제공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부재
 - 익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창조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등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하여 각 시설 간 차별화 전문화 필요
- **넷째,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재 익산시는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여성 및 아동 안전망 지원을 위한 CCTV설치, 가로등 조도 개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에 대한 익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농촌 고령화에 따른 주거 및 안전 문제에 따라 농촌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안전대책 마련 또한 요청하고 있음.**
-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
 - 익산시가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지의 어두운 골목길의 가로등 정비, CCTV 설치로 치안, 방범 강화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227명 55.6%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함
 - 교육,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61명 15.0%, 주거지 주변이 쾌적하고 가까운 곳에 상가, 은행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야한

다 42명 10.2% 순으로 조사됨

- 지역 및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치안 및 방법 강화로 지역주민의 안전보장이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함

[표 55] 익산시민조사 결과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	계	도시(%)		농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치안 및 방법 강화로 안전보장	55.6	63.6	48.5	56.5	44.2
공공장소를 밝고 깨끗하게 개선	9.6	8.7	11.8	7.5	7.0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증대	10.2	6.4	14.0	11.4	14.0
보행과 교통 상의 불편 제거	9.6	7.5	10.3	11.4	14.0
사회적 인프라 확충	15.0	13.8	15.4	13.2	2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크고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일수록 큼**
 - 응답자 중에서 익산시가 사건·사고·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이 62%임
 - 또한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에 대하여 ‘치안·방법 강화로 안전보장’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55.6%에 달해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할수록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시민의 안전보장 특히 여성·아동의 안전보장 강화에 더욱 더 힘써야 하며, 도농간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하여야 함
- **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조손가정 등 주거 안전문제**
 -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이들 중 독거노인 또는 노인이 가장인 조손 가정이 상당함
 - 그런데 농촌 지역은 인구 밀도가 적고 면적이 넓은 특성상 경찰과 소방 등 행정의 손길이 현실적으로 미흡함
 - 따라서 노인들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 노인인구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주 야간,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건전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시설 부족**
 - 현황조사에 의하면 익산시의 생활권 공원 면적이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상황(전국 평균 30.01천㎡, 익산시 18.36천㎡)이며 특히 가족끼리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가족공원이 부족함
 - 주 야간 시간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시설이 필요함

● **자전거도로와 보도 겸용으로 통행 불편하고 위험**

- 익산시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기존 보도에 붉은색 칠을 하거나 우레탄을 깔아 만든 도로임
- 이 같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그 구분이 불분명하고 폭이 좁아 보행자가 이용할 때는 자전거가 보도나 차도로 밀려나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때는 충돌의 위험이 존재함
-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함

● 그 밖에 일-가정 양립 기반 구축과 관련된 요구 또한 수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 간 보육기반 격차(보육시설 대부분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농촌 지역 보육 기반 미약)가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보육시설 증대 또는 공동육아 지원책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담 기반 마련 등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지역 내 의료시설의 기반을 연계 활용한 여성,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의료 네트워크 복지 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한 요구 또한 존재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첫째,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의 양적증가에 비하여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및 인지도, 사업효과 미비함.**

→ 여성친화도시의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생활과 연계된 사업 개발

● **둘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화가 미흡하여 정책목표와 그에 속한 각 정책 영역, 정책과제의 상관관계 설정이 요청됨**

→ 단계별 사업 계획에 의하여 사업필요성 및 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 **셋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 참여 및 네트워크 미흡**

→ 시민의 참여 및 협치를 통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따라서 익산시의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현 위치와 보다 체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한 후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발전 방향

IV

1.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목표 및 과제 설정
2.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단계별 추진 방안 및 정책과제
3.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
4. 홍보 방안

IV.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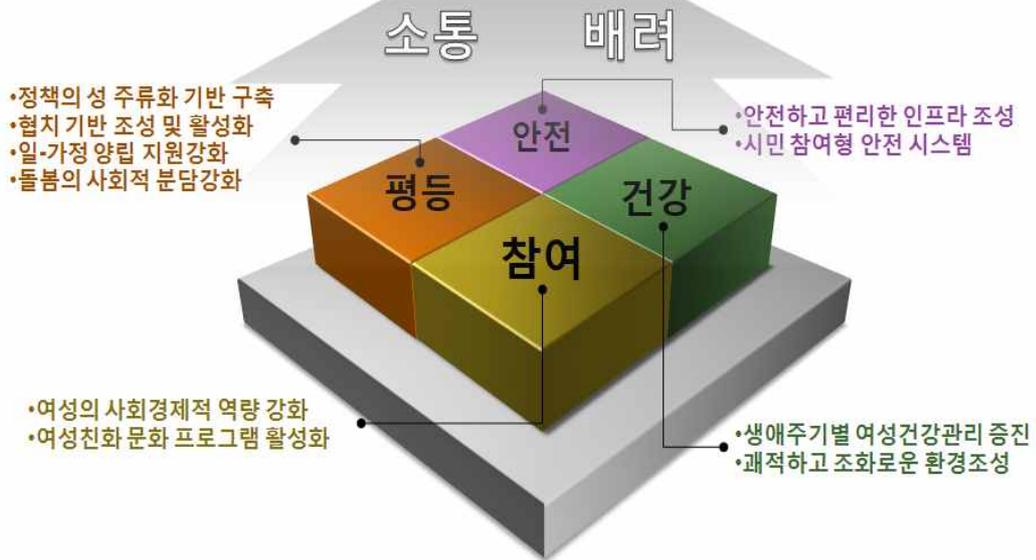
1.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목표 및 과제 설정

1.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목표

가. 4대 정책 목표

- 여성친화도시 사업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시민 요구도 및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및 해결 과제 등을 반영하여 향후 익산시 여여성 친화적 창조문화 도시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로 ‘평등한 익산’, ‘안전한 익산’, ‘건강한 익산’, ‘여성참여가 활성화된 익산’으로 설정하였음

여성친화적 창조문화도시



- 『평등한 익산』 은 지역 내 참여의 기회, 자원과 서비스에의 접근성과 배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형평한 도시를 의미
 - 평등한 익산의 주요 영역은 ‘정책의 성주류화 기반 구축’, ‘협치(거버넌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사회적 분담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임
- 『안전한 익산』 은 여성과 가족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를 의미
 - 안전한 익산의 주요 영역은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조성’, ‘시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 구축’임
- 『건강한 익산』 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
 - 건강한 익산의 주요 영역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증진’, ‘쾌적하고 조화로운 환경조성’임
-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은 여성들이 스스로 문화 창조의 주체이자 역량있는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를 의미
 -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의 주요 영역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친화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임

1.2.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별 정책 과제

평등한 익산	안전한 익산	건강한 익산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성주류화 기반 구축 ▪ 협치기반 조성 및 활성화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조성 ▪ 시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 (CP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증진 ▪ 쾌적하고 조화로운 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 여성친화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가. 평등한 익산

- 정책의 성주류화 기반 구축
 - 여성 친화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사업 추진의 성인지성을 강화
 -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 통계 정착 및 활용성 증대 및 여성 전문가 인력풀 체 운영과 고위직 여성공무원, 여성위원, 여성의원의 비율 확대를 등
- 협치(거버넌스) 기반 구축
 - 관 주도 일방적 사업추진이 아닌 『전문가-NGO-익산시』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업 추진 체계 구축
 - 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사업 간 협력증진을 위한 여성친화코디네이터 운영 등
- 일가정 양립 지원
 -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남성의 가사 분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과 가사를 적극 분담하고 공유하여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극복
 - 여성친화적(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및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충 등
- 돌봄 인프라 조성
 - 도시 내 공공 시설에 돌봄 시설 확충으로 사회적 돌봄 문화 조성 등의 효과
 - 공공시설 놀이방, 수유실 등의 시설 구비와 보육시설 기능 보강 등

나. 안전한 익산

-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조성**
 - 도로, 거리,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 조치 및 화장실 주차장 등의 시설 이용의 쾌적함을 도모하는 개선 사업으로 하드웨어적 변화
 - 방범 취약 지역 CCTV 및 가로등 조도 개선, 보행편의성 개선(사람중심거리, 무장애보행로 등) 등
- **시민 참여형 안전시스템 구축**
 - 여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한 안전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안전을 돌보는 '참여자'로 활동함
 - 안전 모니터링, 여성친화 서포터즈 등의 활동 등

다. 건강한 익산

-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증진**
 - 지역 주민의 정확한 건강상태 파악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임신수유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건강관리 증진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등
- **쾌적한 조화로운 주거환경 구축**
 - 친환경 활동 활성화 및 자연과 조화된 경관 조성
 - 친환경 분리수거, 주거지역 쾌적한 녹지 조성 등

라.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경제활동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 여성 일자리 종합 지원 서비스,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인 경쟁력 제고 등
- **여성 문화 활성화**

- 여성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도시 내에서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의 소통과 통합 활성화
- 문화 향유 프로그램 확산,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 등

1.3. 여성친화도시 조성 세부 추진과제

목표	과제	세부 추진과제
1. 평등한 익산	1-1. 정책의 성주류화 기반 구축	1-1-1.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1-1-2. 여성전문가 인력풀제 운영
		1-1-3. 여성의 정책 참여 확대
		1-1-4. 성별분리통계 작성
		1-1-5. 성별영향평가 확산
		1-1-6. 공무원 성인지 교육
	1-2. 협치 기반 구축	1-2-1. 여성친화도시 추진 협의체 구성
		1-2-2.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 역량 강화
		1-2-3. 여성취업지원협의체 확대
		1-2-4. 여성친화코디네이터
	1-3.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1-3-1. 여성친화적(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1-3-2.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충
		1-3-3. 공공조직 탄력근무제 실시
		1-3-4.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사업
		1-3-5. 남성 가사 및 돌봄 교육
	1-4. 돌봄 인프라 조성	1-4-1. 보육시설 친환경 기능보강사업
1-4-2. 엄마와 아기를 위한 수유실 운영		
1-4-3. 공공시설 놀이방 지원		
1-4-4.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 서비스		
1-4-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4-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 안전한 익산	2-1.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조성	2-1-1.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2-1-2.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2-1-3. 버스 정류장 주변 밝은 조명
		2-1-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2-1-5. 보행편의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
		2-1-6. 여성을 위한 주차편의 제공
		2-1-7. 여성 화장실 시설 개선(시청·읍면동)
		2-1-8.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
		2-1-9. 여성친화적 공원시설 업그레이드
		2-1-10. 여성친화적 공공디자인 컨설팅
	2-2. 시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	2-2-1.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2-2-2. 여성·아동 안전 모니터링

목표	과제	세부 추진 과제
3. 건강한 익산	3-1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증진	3-1-1.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3-1-2.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3-1-3.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1-4. 모유 수유사업
		3-1-5. 영양 플러스 사업
		3-1-6.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3-1-7. 임신부 280 건강관리 서비스
	3-2. 쾌적하고 조화로운 주거환경 조성	3-2-1. 친환경 분리수거 활성화
		3-2-2. 주거지역 쾌적한 녹지 조성
3-2-3. 여성친화음식점 지정		
4.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4-1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4-1-1.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4-1-2. 도서관 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4-1-3.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4-1-4. 농촌여성 권익향상 지원 사업
		4-1-5. 여성기업 활성화
		4-1-6. 사회적 기업 활성화
	4-2. 여성문화 활성화	4-2-1. 여성친화 도시의견 수렴함
		4-2-2.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4-2-3. 여성·가족 친화적인 주말가족농장
		4-2-4. 여성친화적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4-2-5. 여성친화문화축제
		4-2-6.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
		4-2-7. 여성창조문화센터 건립
		4-2-8. 가족단위 공동체 공간 조성(예그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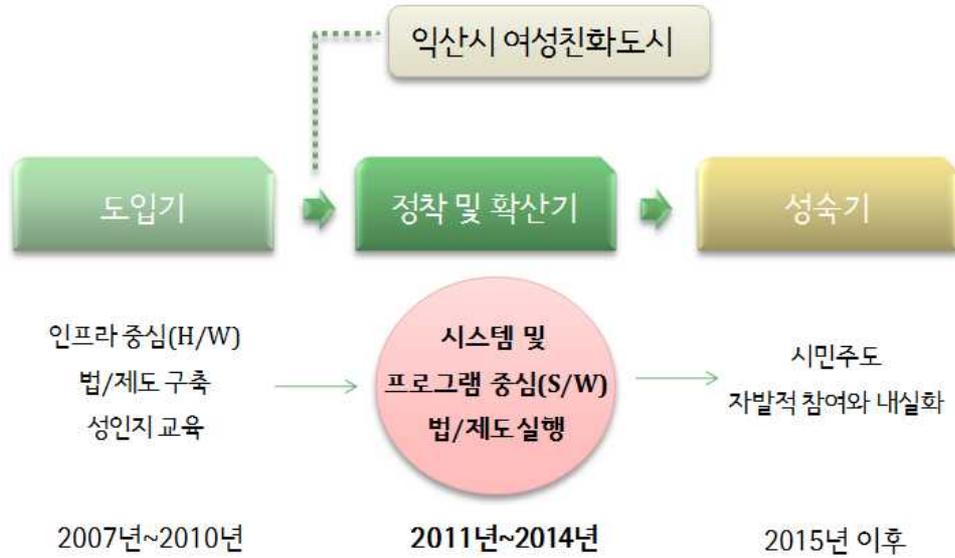
2.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단계별 추진 방안 및 정책 과제

2.1.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단계 설정

-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및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로서 익산시의 발전단계를 점검함
- 2007년에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2009년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정받은 후 2010년 까지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도입기」 임
-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성친화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조성된 인프라에 여성친화도시를 정착시키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정착 및 확산기」 라고 할 수 있음
- 2015년 이후부터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프로그

램의 내실화를 통하여 여성친화도시가 성숙되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음

[그림 16]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발전단계



● 각 단계별 필수적인 사업 영역은 다음의 <표 56>과 같음

[표 56] 단계별 사업 영역

구분	도입기 (2010년 이전)	정책 및 확산기 (2011~2014년)	성숙기 (2015년 이후)
단계별 목표	법/제도 및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시스템 및 프로그램 내실화 협치체계 구축	시민주도 자발적 참여 활성화 협치체계 강화
정책목표			
평등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성주류화 기반 도입 - 돌봄 인프라 조성 - 알기정 양립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성주류화 기반 강화 - 협치 기반 구축 - 돌봄 인프라 확산 - 알기정 양립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정책의 성 주류화 실현
안전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개선 - 시민 참여형 안전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 안전시스템 확산 및 정책 환류 강화
건강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특화된 건강 프로그램 도입 및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화 -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여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활동 활성화기반 조성 및 강화 - 여성이 만들어가는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사회경제적 역량의 사회적 환원 증대 - 소통과 통합 문화 정착

2.2. 1단계 추진 방안

가. 개요

- 1단계(도입기)는 여성친화도시 제반 인프라 구축, 법/제도 구축, 성인지 교육을 목표로 각
각의 정책목표에 맞는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임

[표 57] 도입기 사업계획(안)

구분	도입기 (2010년 이전)
단계별 목표	법/제도 및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정책목표	
평등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성주류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 설치 - 여성친화적 공공디자인 컨설팅 -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 공무원 성인지 교육 - 여성전문가 인력풀제 운영 ▪ 돌봄의 사회적 부담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서비스 - 건가정지원센터 운영 ▪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맞기 지원 프로젝트 - 공무원 탄력근무제 실시 - 농촌여성소활동사업 - 여성기업 활성화 방안
안전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을 위한 콜택시 제공 - 여성 및 아동 안전망 위한 CCTV 설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보행편의 개선(보도정비) - 여성을 위한 주차편의 제공 - 여성화장실 시설 개선 - 여성친화시범거리 조성 - 여성친화적공원시설 업그레이드 - 도서관 이용 여성을 위한 탁아지원 - 공공시설유모차 대여 서비스 -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 엄마와 아기를 위한 수유실 조성(시립도서관) - 시간여유보육시설 확충 - 여성콜택시
건강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 난임(불임)부부 지원 사업 - 산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 영양플러스 사업 - 임신부 지원 프로그램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 농촌여성운영상 지원 사업 - 여성친화도시의견수렴함 - 길거리음향회 및 태교음악회 - 여성친화적 농주 체험 프로그램 - 여성친화적 농주센터 운영

나. 주요 사업

1) 정책의 성 주류화 기반 구축

사업명	사업내용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성친화 관련 총괄적 기본조례 제정 익산시 현행 자치법규 정비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정책과 및 여성친화정책계 지정
여성친화적 공공디자인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최초 여성친화도시 선정 이미지 확보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PI컨설팅, 공공 공간 디자인 컨설팅, 공공디자인 표준화시스템 컨설팅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여성친화적 개념이 반영된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건축물, 오픈 스페이스, 옥외 광고물, 공공시설 등에 여성친화적 개념 반영
여성전문가 인력풀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내 여성참여율 40% 달성 및 유지 및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전문가 인력DB구축 여성대학교수, 연구원 등 여성전문가 활용
공무원 성인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담당자 및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2) 돌봄의 사회적 분담 기반 마련

사업명	사업내용
노인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등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보미사업 지원으로 아동의 안전과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상시적 돌봄에 지쳐있는 장애아 가족 휴식 지원으로 안정성 강화 위기가족 전문상담 지원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회복 유지 도모

3)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명	사업내용
여성일자리갯기 지원 프로젝트(일자리 교육, 근로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희망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 새일여성인턴 채용기업에 지원금 제공 ▪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환경 조성
공무원 탄력근무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시간 효율적 활용
농촌여성 소득활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농산물을 원료로 생산, 가공, 판매하고자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제품 생산 사업장 조성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지원
여성기업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 판로개척을 위한 문제점 해결방안 제공 및 마케팅 지원

4)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조성

사업명	사업내용
여성 및 아동 안전망 위한 CCTV 설치 및 보안등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취약지구 및 농촌에 CCTV설치 ▪ 노후화된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네트워크 확보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도시일정지역, 단위시설 ▪ 각종 사업 추진 시 BF제도 설계에 반영 시행
여성을 위한 주차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여성주차장을 분홍색 구획선 및 지정로고 표시
여성친화적 공원시설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에 여성친화적 개념과 시설을 도입하여 여성친화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신규 또는 리모델링)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보행하기 편리한 보도블럭 설치 ▪ 가로시설물에 여성친화 디자인 가미

사업명	사업내용
보행편의 개선(보도정비,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사업, 스쿨존 내 횡단보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인도를 이용하는 여성 및 교통약자(유모차, 휠체어)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턱 저하 및 침하 및 파손된 보도 평탄하게 정비 ■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 ■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유지관리사업 ■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행구간의 맨홀뚜껑 정비 ■ 여성친화 도시로서 마스코트 디자인을 맨홀뚜껑에 도입 ■ 야간 안전사고 및 쾌적한 통행환경을 고려한 야광기능 부여 ■ 스쿨존 내 횡단보도는 HUMP식으로 하고, 횡단보도를 겸한 과속방지턱을 설치
여성 화장실 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건물 건축허가 시 ‘여성화장실’설치조건을 권장 ■ 여성화장실 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변기수의 합과 동일하게 설치 ■ 기저귀 거치대 및 유아용 소형변기, 대형거울 및 화장대(파우더룸) 설치
놀이기구 비치 탁아지원(도서관, 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중동 주민센터에 여성용품 비치 ■ 아이 동반 시 민원처리의 불편함 해소하기 위해 아동 놀이기구 비치 ■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유아돌보미, 탁아돌보미 제공
여성친화유아전용놀이방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내에서 유아 놀이방 설치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응포문화체육센터 등 유모차 각 5대 비치 후 무료대여 서비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보육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구입 등
수유실 조성(시립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 함께 도서관 이용하는 여성을 위한 수유 공간 조성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 확대 및 운영비 지원(1개소/연1,800천원)
여성콜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법인 택시 통합 콜센터 및 브랜드택시 구축 ■ 운전자에 대한 자료와 위치추적 시스템을 활용 여성전용 택시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달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로 교체 보급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안의 구역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식품판매 환경 개선 ■ 72개 구역 77개교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 지정

5)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증진

사업명	사업내용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년기 여성을 위한 아로마 보완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불임)부부에게 고액의 불임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 실천
모유수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유수유 실천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 (모유수유 시범 분만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지정, 모유수유용품 보유 및 대여) ▪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사회적 관심 제고, 실천을 향상
임신부 280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에서 출산 전까지 280일간 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 초음파검사, 산모기본검사, 선천성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 등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세대 중학교 1학년 여중생 대상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6) 여성 문화 활성화

사업명	사업내용
도서관 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행사지원, 찾아가는 봉사, 인형극봉사, 실무봉사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유도
주말가족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가족농장에 가족단위 텃밭 조성 ▪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회원제 분양, 홍보
여성친화적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의 농촌문화체험기회로 도·농간 교류 활성화 ▪ 전통음식체험, 천연염색체험 등
여성친화 주민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 어린이, 노인 등 연령별 여성친화프로그램 신규개설
한부모 가족 무지개빛 사랑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상 학습체험활동 지원 ▪ 상담 및 정서지원을 통한 건강한 미래 인재 육성 및 건강가정 육성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기술교육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 및 사회진출 기회 도모
농촌여성 권익향상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여성소득사업, 농작업환경개선, 권익향상특별교육
여성친화 도시의견 수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 제도를 제안할 수 있도록 30개소에 의견수렴함 설치
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립합창단, 익산시립무용단, 익산시립풍물단 등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 및 화요(태교) 음악회 개최 ▪ 다양한 문화예술정보 제공
다문화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협의회 구성 등 지역네트워크로 안정적 다문화사회 기반 조성

2.3. 2단계 추진 방안

가. 개요

- 2단계(정착 및 확산기)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를 여성친화도시 정착 및 확산기로 보고 지금까지 구축되어진 인프라 속에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내실화함으로써 운영 활성화, 법/제도의 실행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단계

[표 58] 정착 및 확산기 사업 계획(안)

구분	정착 및 확산기 (2011년 ~ 2014년)
단계별 목표 정책목표	시스템 및 프로그램 내실화 협치 체계 구축
평등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성주류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정착 - 정책 결정과정 여성참여 활성화 ▪ 협치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추진 협의체 구성 -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 역량 강화 - 여성친화코디네이터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적(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 남성 가사 및 돌봄 교육 ▪ 돌봄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기업화 - 공공시설 놀이방 제공
안전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형 미니 버스 운행 ▪ 시민 참여형 안전시스템(CPTED)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 안전시스템(CPTED)
건강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증진 ▪ 쾌적하고 조화로운 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쾌적한 녹지 조성 - 여성친화음식점 지정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여성 권익향상 지원 사업 -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 여성 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문화축제 - 여성친화시범거리 조성

나. 주요 사업

1) 정책의 성주류화 제도 정착

- 그동안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여성 관련 정책에만 제한되어 있어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노동, 통상, 환경, 보건, 문화, 교통, 주택 등의 정책 전반에 여성의 이슈들을 포함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성주류화 전략을 강화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음
- 2003년부터 46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매년 1~2개의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성별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들은 매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안된 정책들을 환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정책의 성평등을 이루는 데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불평등한 예산 분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인지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바,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역할과 책임에 따른 정책의 상이한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하도록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음
- **성별영향평가**
 -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의 요구 및 관심사를 반영하고 특정성에 대한 편파가 없도록 함으로써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족하므로 중요한 정책이 종종 남성들에 의해 결정되어 여성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여성에게 불리한 경우, 또는 같은 정책과 기준이라도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적용되는 경우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것이 중요
- **성인지 예산**
 - 공공예산을 편성, 심의, 집행, 결산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
 - 여성정책은 비예산, 저예산 사업이 많은 바 이에 예산 과정 전반에 예산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분석 필요
- **성인지 통계(성별분리통계)**
 -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현상을 철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모든 통계

- 성별분리통계, 성별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통계(예를 들어 성별직종분리형상을 나타내는 통계, 미혼모관련 통계 등), 성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예를 들어 성임금격차 등)
- 성별영향평거나 성인지 예산 분석에 필수적이며 정책 대상 집단과 수혜자에 대한 인적 통계를 성별로 분리 작성하는 것은 정책의 성인지적 접근을 하는데 가장 기본임

[표 59] 성인지 통계(안)

여성의 경제세력화	- 성별 경제활동/비경제활동 인구
	- 산업별/직업별/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 성별 평균 임금비
	- 성별 국민연금 지급 현황
	- 각종 사회보험 성별 가입자 비율
일·가정 양립 및 돌봄	- 보육 수요 아동 중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 성별 육아 휴직자 비율
	- 맞벌이 부부 비율 및 부부 가사노동 시간
	- 여성친화기업 비율
인력개발	- 사회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관 등) 여성수강생 비율
	- 직업교육기관 교육생 중 여성 비율
사회문화 및 안전	- 성범죄 발생률
	- 성별 도시안전 체감도
	- 성별 건강 검진율
젠더 거버넌스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 참여 확대

-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 수립 결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
- 여성공무원, 여성의원, 여성위원 비율 확대
 - 6급 이상 여성공무원 16.5%, 5급 이상 9.6% 임용(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 위원회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2006-2011)에 따르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9.6%,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6.5%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익산시 5급 여성공무원은 전체 72명 중 5명에 불과하여 행정 분야에서 여성친화 도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확대가 필요
- 여성공무원 보직 관리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 주요 부서 여성 공무원 진출 확대
 - 직급별, 업무별로 여성공무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출산 육아 부담 경감 및 차별 관행 시정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보면 여성 참여율은 27.9%(2009년) 인데, 익산시 여성 위원 비율은 14.1%에 불과

[표 6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위원회수	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참여율
2006	1,494	19,873	6,688	33.7
2007	1,651	23,365	7,729	33.1
2008	1,792	26,093	8,070	30.9
2009	2,074	30,134	8,408	27.9

출처: 여성가족부

- 여성 전문인력 DB 구축
 -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풀 확보
 - 여성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소수자 계층 여성이 포함되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DB구축
- 여성 리더십 교육 제공
 -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
 - 지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잠재 리더들을 발굴
 - 개인의 영향력을 여성네트워크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3) 돌봄서비스의 사회적기업화

-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하여 더욱 더 늘어난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보육/복지 수요 충족
-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시행중인 ‘도서관 이용여성을 위한 탁아지원’을 점진적으로 모든 공공 시설로 확대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은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수급

- 노인돌봄미, 아이돌봄미,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복지서비스 향상
 -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시설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관리 가능

4) 연계형 미니버스 운행

- 배차시간, 노선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특정 지역 내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미니버스
-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에서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연결하는 버스로서 기존 시내버스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시내버스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
-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승합차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음
- 여성친화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래핑하여 여성친화도시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17] Blue Bus 예시



5)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범죄와 폭력 피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위험을 제거하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한 도시 환경과 생활환경 조성. 여성·아동안전시스템(CPTED) 구축은 ‘다 함께 돌아 동네한바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성에 대해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방식에 근거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여성의 적극적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시설, 도로 및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며 활동 결과를 도시 정책에 환류

- 노인 및 퇴직 경찰 인력을 활용한 안전 지킴이를 구성하여 아동·여성의 생활환경의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 강화
- **모니터링 영역**
 - 도로 및 교통시설(주차장, 정류장 등), 주거환경, 휴식 공간,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 **모니터링 지표**

[표 61] CPTED 방식에 의한 모니터링 영역 및 지표(안)

공원 및 건물	- 범죄 발생 상황을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건축물, 창문이 설계되어 있는지
	- 공공장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장치(비상벨, 긴급전화) 설치되어 있는지
	- 공원, 놀이터의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한지(수목식재 형태 및 크기 일정하게 유지)
	- 심야시간에 공원 안전이 관리되고 있는지
	- 벽, 울타리 또는 다른 조경적 요소가 출입구를 가리거나 덜 보이게 할 수 있는지
	- 벽, 울타리 또는 다른 조경적 요소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지
	- 나무들과 다른 조경적 요소들이 건물에 비치는 조명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고 있는지
	- 주출입구 근처 사무실 또는 관리실에는 방문객 주차 공간이나 출입문의 관찰이 가능하도록 유리창이 많은지
	- 엘리베이터에 영구 정지 버튼이 설치되어 있는지
	- 엘리베이터를 주출입구 근처에 위치시키고 문이 열렸을 때 내부 전체가 보이는지
도로 및 교통시설	-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밝기가 충분한지(교체 또는 높이 조절)
	- 보행자의 이동은 차량 교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 신호의 길이가 노약자의 이동에 충분한지
	- 도로나 주차장에 움푹 패인 곳이 있는가
	- 도로나 주차장에 단차가 높아 바퀴가 이동하기 어려운지
	- 모든 주차 공간과 자동차 통로들이 환하게 되어 있는지
마을	- 지하 주차장 등의 모든 표면이 빛을 반사하도록 깨끗하고 밝은 색깔인지
	- 낮 동안, 저녁과 늦은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물 주변에 있을 것인가
	- 긴급 상황에 이 장소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는가
	- 지역 주민의 활력 넘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나 기회 증진으로 지역 주민 간 유대가 충분한지
- 주변에 버려진 건물이 있거나 관리되지 않는 건물이나 지역이 있는지	

- 모니터링 시 지역별로 구체하여 할 것인지, 시설, 도로 및 교통시설 등 영역별로 할 것인지 결정 필요
- **모니터링 교육**
 - 일종의 문제해결 질문 방법인 CPTED 방법과 더불어 도시에서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
 - CPTED는 영미권에서 발전된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와 사고위험 예방수단으로서 경보기나 CCTV 설치와 같은 기계 의존적 감시방법을 일반 시민의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에 의한 자연적 감시로 변화시킨다는 의의
 - 지역주민들은 그룹을 편성하고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역사회 환경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고 지역 정부에 제안

6) 여성친화음식점 지정

- 여성친화서포터즈를 평가단으로 활용하여 꼼꼼한 익산여성(엄마)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음식점을 [여성친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여성친화적 유아전용 놀이방 설치 권장’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 **여성친화음식점 지정**
 - 음식 맛, 청결한 위생 상태는 물론이고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함으로써 ‘익산 여성(엄마)’의 꼼꼼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음식점을 ‘여성친화음식점’으로 지정
 - 어린 자녀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음식점
 - 아이를 데리고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가족화장실 설치, 모유수유부스 및 기저귀교환부스 설치
 - 익산시를 찾는 관광객들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음식점
 -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이용하여 농가 소득기회를 확보하는 등 농촌과 상생하는 음식점
 - 여성친화음식점 지정/사후 점검 시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여성친화서포터즈를 평가단으로 활용
- **기존의 ‘여성친화 유아전용 놀이방 설치 사업’과 연계방안**
 -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여성친화 유아전용 놀이방 설치’ 사업비 지원을 여성친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만 인센티브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여성친화가족친화적인 음식점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음식점들이 여성친화음식점으로 지정받도록 유도

7)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여성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심의·자문 기구임
-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지역의 요구 조사, 과제 발굴, 주민 설명회, 사업 추진 실적 평가 등을 다룸
-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인지 관점을 통합 하도록 하기 위한 협치 체계의 확립 필요
-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모든 부서의 협력을 요구하므로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과 책무성을 공유하도록 함
-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관련부서 및 기관, 전문가, 여성시민단체 활동가, 주민 등
 - 기능: 여성친화도시기본계획 수립, 요구 조사, 과제 발굴, 주민설명회/토론회 개최, 사업 모니터링 등 심의와 자문 제공
 - 운영: 분기별 정례회의, 기본계획 수립, 요구조사, 주민 설명회, 사업 평가 등 필요시 수시 개최

8) 여성친화코디네이터

- 여성친화코디네이터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인지적 사고가 미흡한 공무원들의 역량 보완하기 위한 전문 컨설턴트를 말함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
- 지역의 여성전문가를 여성친화코디네이터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여성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음

2.4. 3단계 추진 방안

가. 개요

- 2015년 이후는 여성친화도시 성숙기로서 시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시민주도 발전

- 이 일어나도록 시민 참여 중심 과제로 활성화하는 단계
- 시민의 자발적 주도에 의한 여성친화도시 발전과 내실화를 이루고, 전문가·시민·시민단체·행정이 제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협력과 협치 확립
- 여성친화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표 62] 성숙기 사업 계획(안)

구분	성숙기 (2015년 이후)
정책목표	단계별 목표 시민주도 자발적 참여 활성화 협치(거버넌스) 강화
평등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정책의 성 주류화 실현 ▪ 알기정 양립지원 강화 - 여성친화적(가족친화적) 식품클러스터 조성
안전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 안전시스템(CPTED) 확산 및 정책 환류 강화
건강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화 ▪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의 사회적 환원 증대 - 가족단위 공동체 공간 조성(예그리나) ▪ 소통과 통합 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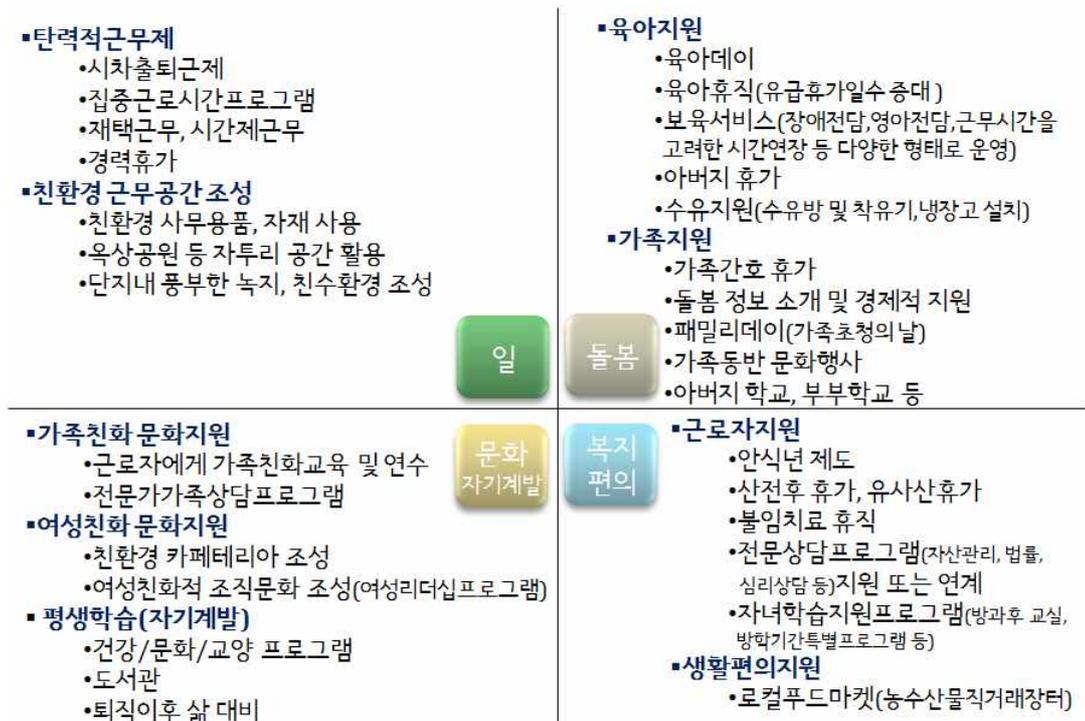
나. 사업 내용

1) 여성친화(가족친화)적 식품클러스터 조성

- FOOD POLICE는 연구와 생산, 지원, 유통이 집결된 유기적 통합시스템을 갖춘 식품도시를 의미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핵심 R&D기반과 기업지원시설, 서비스를 집적화하여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예정
- 가족친화경영이란 남녀 근로자가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훈련 및 기업 문화를 통하여 직장 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수행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주도적 기업경영 전략임

- 여성친화기업은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고용평등을 넘어 여성인재의 육성에 힘쓰는 기업으로 정의
- 기존의 가족친화기업이 일·가족 양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성친화기업은 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을 넘어서서 여성인재의 육성과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구축을 중요시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성과 향상이 목표

[그림 18] 여성·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 [익산시] 인력유출 방지 /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강화
 - 인구감소의 원인이었던 일자리 문제 해소되어 청장년층 인력유출 방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내최대규모의 여성·가족친화적 근로환경 및 경영방식은 그 자체로서 홍보효과 크고 여성친화도시 위상 증대
 -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효과 극대화시키고 이를 점차 주변으로 파급하는 전략
- [시민] 구직난 해소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 극대화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 반영
 - 고학력 여성인력을 식품전문가로 육성하여 활용
 - 식품분야 전문교육 실시하여 지역여성인력 역량 강화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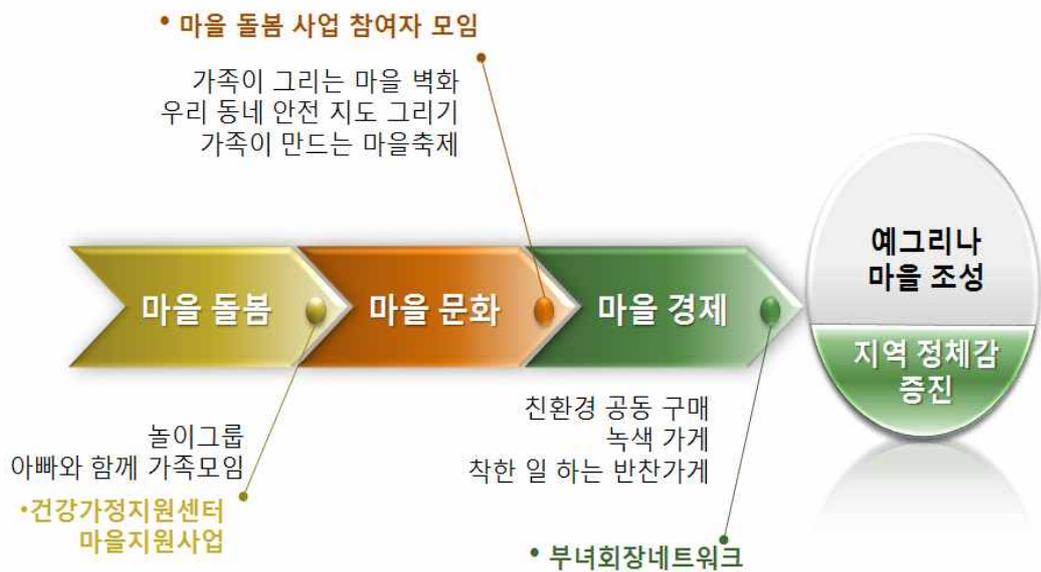
● [기업] 기업생산성 증가 /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효과

- 우수한 근로환경과 여성·가족친화적 경영방식은 근로자들의 직무만족감 증대
- 기업의 핵심 역량인 우수 인력 확보로 생산성 증대
-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 및 경쟁력 증대 효과로 입주 기업 유치에 유리

2) 가족단위 공동체 공간 조성(예그리나)

- 예그리나란 ‘사랑하는 우리사이’라는 뜻으로 여성을 주체로 한 가족단위 공동체 공간임. 주민자치센터 내 유희공간, 마을회관, 지역 내 위치한 기업의 유희공간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교류와 소통의 장 마련
 - 도시마을은 지역 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주민 모임을 시작하고 향후 지역 주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주민교육과 참여 촉발
 - 농촌마을은 결혼이민자문제를 중심에 놓고 가족 내 그리고 가족 간 관계망을 안정화시키고, 다문화사회로의 정착과 지역경제 및 마을문화 정착
-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 맞벌이나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생활 지원, 가족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충족, 여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건강 지원. 소득격차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을 줄이도록 노력, 문화 활동과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제공, 마을 내 일자리,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구축해 나가는 곳

[그림 19] 가족단위 공동체 형성 방안



- **마을 돌봄**

- 놀이 그룹은 부모들이 아이의 육아에 참여하는 형태로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장소를 활용하여 놀토, 방학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방과 후 놀이방으로 활용함.
- 아빠와 함께 가족모임은 부모- 아동 소통프로그램 운영(가족캠프, 이야기모임 등)함.
- 강사 및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원하며, 돌봄 모임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과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과 멘토링 맺기 등의 사업들을 운영

- **마을 문화**

- 마을 돌봄 활동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이 마을가꾸기(어린이놀이터청소, 자율방범 등) 등의 활동을 하거나 주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마을 축제 등을 기획하여 운영
- 마을 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된 코디네이터가 주민 모임 등에 함께 참여

- **마을 경제**

- 나눔 장터나 물물교환 장터 등을 열거나 도농 교류 사업으로 물품 공동 구매 등의 사업 추진
- 지역주민들이 협동해서 만든 반찬을 판매하거나, 도농 간 반찬(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각종 장아찌 종류의 보관이 용이한 반찬들)을 시골마을과 결연하여 판매
- 맞벌이 가족이나 독신가족, 노인 가족, 병자가 있는 가족 등의 식생활지원을 하는 마을 단위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음

3.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

-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도, 익산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익산시 여성친화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표사업 발굴함

3.1. 여성창조문화센터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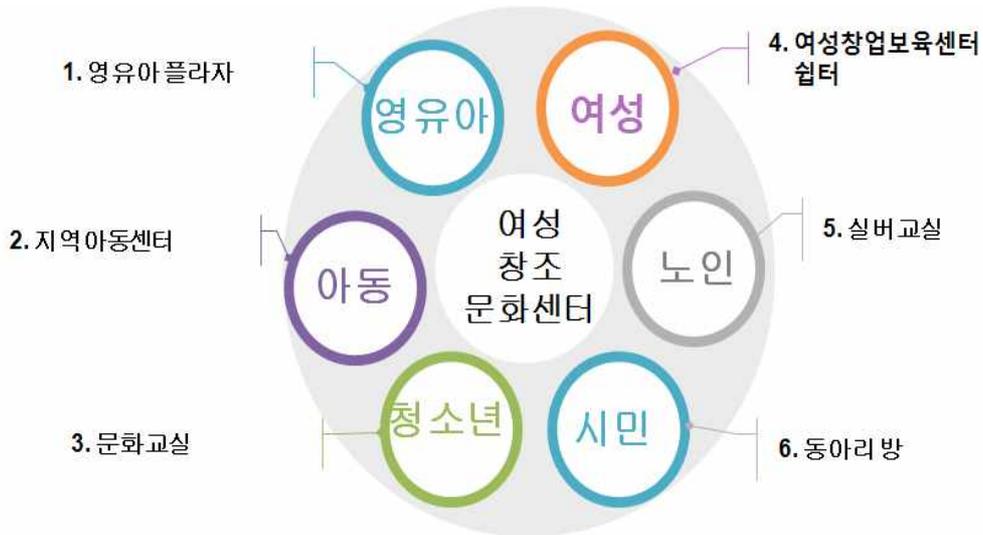
- '여성창조문화센터'는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복지문화센터를 기본 틀로 하여 여성을 특화하되 가족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함. 영유아용 놀이 및 학습 공간으로 영유아 플라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교실, 여성창업보육센터, 여성쉼터 및 노인시설과

시민여성들의 문화창작활동, 동아리활동, 지역축제준비 등을 위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함.

● 운영 방안

- 여성의 생애주기와 문화적 욕구를 고려한 평생학습문화 프로그램 운영
- 문화강좌 중심의 운영 지양하고, 동아리중심의 자율적 활동 위한 대관 기능 강화
- 동아리 활동 결과물 전시 및 공연을 활성화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고려
- 퇴근 후 직장인, 가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야간 운영체제를 갖춘
-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종 시민 단체들이 주체적으로 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들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

● 시설 여건



● 1층

- 영유아 플라자 : 익산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더불어 익산시 어린이 집 및 일반 가정 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대상 각종 놀이치료 시설을 구비함. 보육교사 재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아버지 보살핌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영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육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놀이방 설치를 통하여 여성 창조문화센터를 찾은 엄마 또는 부모가 잠시 용무를 볼 때 임시탁아기능을 하도록 함.
- 실버 교실 : 노인의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및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 의료, 금융(연금 또는 사회보장 제도 관련 정보 포함), 복지 서비스, 주거, 교육, 취업 정보 및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 여성문화쉼터 : 평소에는 북 카페 기능을 하며, 가족 음악회, 동아리 발표 등 소규모

공연 및 전시가 가능한 시설 설비를 구비함.

● 2층

- 식당 : 여성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으로 지역사회 독거노인 및 저소득 맞벌이 아동에 대한 공동식당 기능. 식사 시간 이외에는 각종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비
- 체육시설 :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조 또는 근력운동 기구도 포함

● 3층

- 지역아동센터 : 야간 보호가 가능한 센터 운영
- 청소년 문화교실 :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탈학교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

● 4층 여성창업보육센터

- 여성 창업 준비실 및 창업 지원실 10개
- 여성 사회적 기업 지원실
- 강의실 및 회의실

● 5층

- 동아리 방 : 음악감상, 영상물제작 등이 가능한 방음을 고려한 영상기자재 구비한 방, 예술창작활동실, 국악기, 다도 등 운영가능한 온돌형 방 등
- 사무실 및 회의실

● 설계 및 건설 지침 중 고려 사항

- 오스트리아의 ‘여성-일-가족’ 프로젝트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획, 설계와 시공에 여성 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친환경 마감재 사용
- 다수의 여성 및 가족 이용자를 위해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24시간 대중교통 등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함.
- 장애인 전용 뿐 아니라 노약자와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운전자를 위해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근처에 주차공간을 설치하고 주차면의 크기도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조정함 (운전자가 영유아를 안고 차에 오르내리거나 노인을 부축하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기존의 공간보다 넓은 주차공간 확보).

3.2. 여성 취·창업 종합지원 서비스

-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익산시민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익산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여성 취창업 종합지원 서비스’는 익산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창업준비 교육 및 창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창업 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재 익산시는 ‘전북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 본부(이하 새일 본부)’⁷⁾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새일 본부에서는 8개의 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을 통하여 직업기술교육 1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새일본부에서는 직업 교육 과정 운영 뿐만 아니라 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알선, 동행면접, 간담회)를 지원하고 있음.

7) 새일본부는 전라북도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성들에게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만들어 인적 자원 개발과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익산시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설치를 위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2008년 11월 19일 새롭게 개소한 one-stop 종합취업지원센터임. 새일본부는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실시를 통한 one-stop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취업의 큰 장애 요인인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덜어주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반찬전문 가게를 운영하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음

[표 63] 새일본부 교육과정(2010)

교육과정		내용
오피스분야	세무회계 전문사무원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2급, ITQ 자격취득
	OA포토샵 마스터	MCAS, iTQ, GTQ 자격취득
	CAD설계전문가	오토캐드, 기계제도응용기능사, ITQ 자격취득
사회서비스분야	아동학습매니저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취득
	방과후 연극놀이지도사	방과후 아동지도사(연극놀이지도사)자격취득
	야생화 코디네이터	야생화 코디네이터 자격 취득
귀금속분야	주얼리오피스 마스터	주얼리 마스터, ITQ 자격취득
창업분야	쇼핑몰 창업인큐베이팅	GTQ 자격증취득

출처: <http://www.iksanwomenwork.or.kr/>

[표 64] 여성회관 직업교육과정(2010)

영역	교과목
요리	제과제빵, 전통요리, 한식조리사
수공예	한지공예, 홈패션과 리폼, 압화공예, 천연비누와 화장품
교육	미술심리 지도사, 한자지도사, 독서지도사, 웃음 지도사
컴퓨터	엑셀(2급자격증반), 컴퓨터 기초

출처: <http://www.iksanwomenwork.or.kr/>

- 새일 본부에서는 취업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협의체(익산시, 한국폴리텍 V대학, 귀금속제조업발전협의회, 익산여성경제인협의회,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지역 언론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제 반찬점 또한 운영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익산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취업지원협의체 범위 확장 및 실효성 확보

- 직업 교육 과정과 취업 간 연계가 핵심이라 할 때, 현행 새일 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협의체에는 귀금속 분야만이 참여하고 있어 교육과 취업 간 연계 강화가 요청 됨.
- 취업지원협의체는 새일센터, 여성회관, 지역자활센터, 상공인협회 및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보육시설연합회 등 교육기관 및 다양한 수요처들로 확대 구성함.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교육 과정 개발, 인력 육성 방안, 교육 과 취업의 연계 등이 점검되어야 함.

단계별 직업교육과정 개설

- 현행 직업 교육과정은 컴퓨터 관련 교육, 요리, 각종 지도사 과정 등 소위 전통적 성 역할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이와 같은 분야는 이미 취업시장에서 과잉 공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므로 지역 내 수요에 따라 지도사 과정을 선별하여 개설할 필요 있음
- 즉시 취업할 수 있는 단기 강좌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장기강좌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원화 하고, 초급 과정 뿐만 아니라 중급 및 고급까지 프로그램 개설을 체계화 함. 창업 지원 교육과정은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 교육과 실전 교육이 적절히 결합된 창업 패키지 과정을 제공
- 또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는 대상별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외의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 유배우 기혼자 집단에 대한 1:1 취업 연계 서비스, 고연령, 저학력 집단에 대한 취업 정보 제공 등 교육과정과 취업연계 사업들도 개발되어야 함. 창업 교육과 실질적인 창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장기적인 패키지형 창업 과정 및 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

직무능력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 개설

- 취업 중인 여성들에게 직무역량 및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내용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현행 익산시 여성포탈을 통해 제공함

익산 여성창업보육센터

- 현재 익산시 여성회관 및 새일본부에서는 여성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 전무한 상태임
- 여성창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창업 준비실, 여성 창업 지원실 등이 설치된 창업보육센터를 여성창조문화센터 내에 설치함
- 여성창업지원실은 사무실, 컴퓨터, 초고속인터넷망, 책상, 의자 등의 관련시설과 경영(세무회계) 컨설팅지원, 경영평가실시, 업계 동향 및 경영정보 제공, 자금알선, 기타 센터 편의시설 사용 등의 지원을 제공함
- 여성창업 준비실은 예비여성 창업자 및 센터 교육생 등에게 창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창

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여성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위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창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창업기반 구축과 창업 후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연계 지원을 제공함

[그림 20] 익산 여성창업 보육센터 기능



- 사회적 기업 지원실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와 제도를 겸비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녹색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확산
 - 사회적 기업은 기업을 운영할 전문 인력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성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직주근접형 건강한 식자재 공급 사회적 기업⁸⁾ 설립으로 지역 여성들이 ‘시민사업가’로 참여하여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직주 근접형 식자재 제공을 통하여

8)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민간기업(OECD)”, “영리 목적의 사회적 벤처”,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 등 다양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상업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독립적 조직”을 말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 이들 사회적 기업은 “재화 생산, 서비스 공급 등 시장경제에 직접 참여”하며 “고용창출, 교육훈련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 명시적인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 창출된 이윤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투자”한다는 점이며 기업 소유체제가 “이해관계자 집단의 참여 또는 폭넓은 이해 관계자를 대변하는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 조직”이라는 점이다(OECD, 1999).

지역사회 먹거리 안전과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통합을 증진

- 생산된 상품은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원칙으로 주변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 집 등의 판매처 발굴을 지원
- 저소득층에 식자재 지원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포함
- 사후 관리 방안으로 마케팅방법, 조직관리, 자금조달, 아웃소싱, 협력관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통하여 여성 창업인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초기 창업업체들의 취약분야인 세무회계, 재무제표작성, 부가세·소득세신고 요령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함

여성기업 멘토링

- 여성기업 멘토링 사업은 창업 성공 기업 및 경험이 풍부한 지역 여성 경제인의 다양한 경험, 성공 노하우, 경영 기법 등을 창업 희망 여성 CEO에게 전수하고 상호간에 정보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기능을 함
- 멘토는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 여성 경제인이고, 멘티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여성으로 구성되며, 정기 모임과 업종별 분임 모임 등으로 운영됨

3.3. 농촌여성권익신장 사업

- 농촌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익산시는 심포지엄 개최와 함께 농촌여성 단체육성 지원,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농산물 가공교육 실시,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사업, 편의장비 지원(현재 18개 작목에서 40개작 목반으로 확대예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8월에 여성농업인 육성조례를 제정함
- 지금까지 농촌여성은 노동력만 제공하고 재산권 등과 같은 그에 따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촌여성이 영농기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함
- 농업정책의 하나인 여성농업인정책의 정책적으로 명확해졌으며, 농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여 의견반영하고 있으며, 부부공동명의로 영농기반 소유농촌을 근간으로 한 가족농 구조는 여성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농업정책에 있어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농업인을 참여시켜 의견 수렴

교육 선택의 다양화

- 이주여성 교육지원

- 국제이주기구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서는 이민의 여성화 현상을 인지하고 여성 이민자의 요구에 관한 지식 및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민여성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함
- 이에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 적응 및 한국 문화 교육프로그램과 취업과 연계되는 전문기술교육프로그램 개설 필요

● **농촌여성 평생교육 지원**

- 주민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거주 여성 응답자의 경우 익산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여성취업교육 및 지원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농촌여성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농촌여성 대상 취업교육 및 직업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취업교육 실시
- 농촌여성의 평생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 여성학, 인권 등의 교양강좌를 통한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농업생산방식이나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식품가공, 소득경영, 품목에 따른 영농교육, 정보화 교육실시 등 전문지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자발적 교육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도모

Ex>이주여성 한국문화적응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농촌여성 전문취업 및 평생교육 실시
 여성인권, 여성학 등의 교양강좌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 익산은 타 도시에 비해 의료 인프라는 우수하나 농촌지역 의료시설 부족으로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료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와 별도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식품을 총괄한 보건의료센터를 확충하고 각 병·의원에 여성과 진료과목 필수 개설 추진
- 여성의 건강권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해 여성친화 보건소 기능강화
- 여성 및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Ex>보건인력네트워크 구축
 여성 및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내 보건의료서비스 call service

문화향유 여건 향상

- 익산시민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 가운데 '풍부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활력적인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에 이어 3순위로 조사됨
- 문화적으로 활성화된 도시가 되기 위해 복합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익산시민은 문화시설의 및 프로그램의 부족을 체감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문화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Ex>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지역예술가 인력을 활용한 여가 및 문화강좌 개설
농번기 후 지친 농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한 체조
낮 시간 문화 활동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활동
후 야간시간 이용한 문화체험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 사업 확대

- 지역농산물 또는 생산물 기반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 농촌지역 보육시설 증설(시간제, 계간제 등), 농촌지역 자녀 방과 후 교실 증설, 농외소득활동 컨설팅 등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한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농촌 돌봄 환경 개선

- 익산시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보육 환경이 열악한 형편
-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지원이 미흡
- 이러한 익산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육취약계층인 농촌지역 및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 지원을 증대 필요
-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맞벌이 빈곤층의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 높으나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므로 지원금 필요

3.4. 여성창조문화거리 조성

- 여성창조문화센터 주변 500m~1000m 거리를 '여성창조문화거리'로 조성
- 여성 창조문화거리는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여성친화도시 상징 공간으로 기능
- 공공 미술 프로젝트
 - 익산시 지역 여성의 생활상과 여성관련 설화, 여성 작가, 예술가 등 여성 인물 등을 상징하는 설치 미술 작업 - 공공벽화 등
 - 설치 미술 작업은 전문가와 익산 시민이 함께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
- 주말 프로그램
 - 지역의 여성시민단체를 운영주체로 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기획
 - 여성회관 앞마당에서 익산시청에 이르는 길에 주말 벼룩시장 개설하여 익산 시민 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 주말 벼룩시장에는 여성회관 등의 여성인적자원개발기관 교육생 작품 등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고, 일반 시민 동아리 들의 문화 공연 등을 기획
 - 벼룩 시장과 함께 여성 취창업 박람회 등을 함께 기획할 수 있음
 - 유아 동반자를 위한 유모차 보관 및 대여 시설 설치
- 여성창조문화거리 구역 내 시설
 - 여성창조문화거리 구역에서는 어린이 및 노약자의 보폭에 맞는 신호주기, 여성친화 주차장, 단차 없는 보도 등을 갖춘 보행자 중심 무장애 도로 실현
 - 도로 성격 : 폭 20m 이상 보행자 전용 도로
 - 시범적으로 양성평등 표지판 등을 화장실 등에 부착
 - 구역 내 공공기관 내 여성친화도시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설치. 수유실 등의 지원 시설 구비를 권고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기저기 거치대·영유아 보조 화장실 설치
 - 변기 주변에 노인 등을 위해 핸드레일을 설치
 - 여성이 24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즉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고안하고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
- 여성문화거리 걷기 프로그램

4. 홍보 방안

4.1.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향상 방안

가. 이미지(Image)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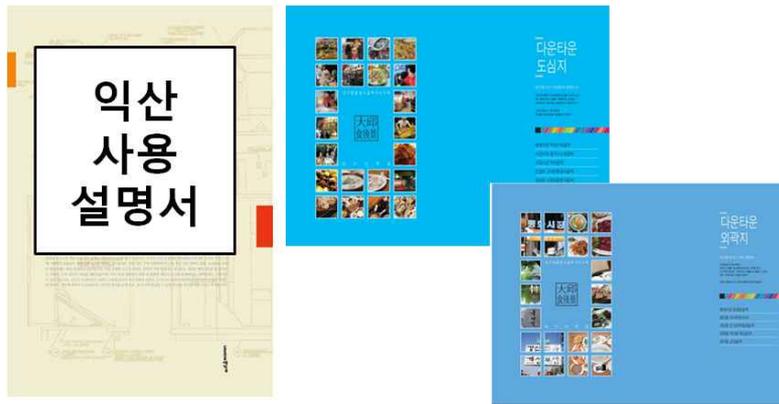
1) 개요

- 여성친화도시로서 익산시의 이미지를 설정하는 전략으로서 대표이미지와 그에 걸맞은 다양한 하위이미지 개념을 설정하고 향후 여성친화도시 마케팅의 전반적 과정에서 일관성, 지속성을 지니고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
- 장기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필요하며 상황과 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사업 내용

(1) 익산사용설명서

- 익산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산 구석구석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익산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익산사용설명서'를 제작 배포
- 문화/보육/복지/교통 등 분야별로 구성하여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
- 또한 내용구성, 명칭공모, 발간과정 등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익산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익산 100% 활용하기', '기웃기웃 익산탐방' 등 다른 명칭도 고려



나. 브랜드(Brand) 강화

1) 개요

- 브랜드는 이미지 전략과 결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반영하는 것임
- 익산시를 단순한 도시가 아닌 여성친화도시라는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익산시의 이미지를 여성친화도시로 브랜드화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2) 사업 내용

(1) 여성 라이프 리모델링 서비스



- 개념 : 익산 여성의 일상생활과 라이프스타일을 리모델링해 주는 서비스
 - 주방, 거실 등 주거공간을 여성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의상, 헤어 등 리스타일 서비스
 - 무료한 삶을 보다 활기차도록 컨설팅해 주는 라이프스타일 리모델링 서비스
- 실행방안 : 일상적 서비스와 이벤트성 서비스로 구분

- 일상적 서비스 : 주민센터 등에 여성 라이프 카운셀러 육성 배치, 자아 찾기 프로그램 시행
- 이벤트성 서비스 : 연간 2회 특정 가정을 선정하여 여성친화적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연간 2회 저소득 여성,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리스타일 서비스 제공
- **효과**
 - 적은 예산으로 정책 홍보 효과 기대 (버즈마케팅 또는 구전마케팅 경로 인지할 때 효과 극대화)
 - 여성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 일상생활의 만족도 향상
 - 여성친화적 주거공간, 라이프스타일 등 모범 사례 형성과 전파 효과
 - 라이프 카운셀러, 공간디자이너 등 여성인력의 공급과 수요 창출

다. 채널(Channel) 강화

-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혹은 방법을 수립하는 전략
- 일반적으로 홍보, 판촉,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들, 즉 축제이벤트 전략, 공간조성 전략, 미디어 PPL 전략, 바이럴마케팅 전략 등 공간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하는 전략 이용
- 축제이벤트 전략은 도시홍보와 이미지 개선, 시민통합과 같은 다양한 파급효과가 있어 채널 전략으로 자주 이용(예: 삿포로 축제, 뮌헨 맥주축제, 리우 삼바축제 등)
- 공간패키징 전략은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지역과 연계

라.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네이밍 설정

- ‘여성친화도시’의 명칭을 유지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보다 쉽고 거부감 없이 명명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의 네이밍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이러한 프로젝트 네이밍은 익산 여성친화도시를 상징화할 수 있으며 홍보마케팅 방안과 연계되어 활용될 경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 화성시의 비너스프로젝트와 같이 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같으나 프로젝트 네이밍 존재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익산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 네이밍을 제안함

● HOHO PROJECT

- HOHO PROJECT는 다음과 같이 ‘건강, 기회, 희망, 조화’와 같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으면서 여성을 위한 건강하고 희망찬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되기 프로젝트를 의미함
- 이러한 HOHO PROJECT는 호호 프로젝트, 互護 프로젝트, 互互 프로젝트, 好好 프로젝트와 같은 복합적 의미를 갖음

H : Health - 건강

O : Opportunity - 기회

H : Helpfulness - 희망 혹은 (Helpfulness - 도움)

O : Oneness - 조화, 일체감, 하나, 통일성

- **호호 프로젝트** : 호호는 여성의 웃음소리를 비유하는 의성어로 여성친화의 이미지를 소리만으로도 상징하며 따라서 여성이 웃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해주는 프로젝트로서의 의미도 포함
- **互護 프로젝트** : 서로 호, 도움 호의 한자의 의미를 해석하여, ‘서로 돕는 사회’,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 ‘나아가 배려가 있는 사회’를 나타내기도 함
- **互互 프로젝트** : ‘서로서로’도와가면서 만들어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만들기 프로젝트
- **好好 프로젝트** :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좋고좋은 익산

● 여친 프로젝트

- ‘여성친화도시’의 줄임말인 ‘여친’
- 여자 여(女), 친할 친(親): ‘사랑하다, 가까이하다, 사이좋다’는 의미로 쓰이는 親
→ 여친(女親)은 여성을 가까이하고 사랑한다는 의미

● 레인보우 프로젝트

- 무지개의 밝고 경쾌한 이미지가 침체되고 낙후된 익산시 이미지를 개선
- 무지개의 컬러풀한 시각적 이미지는 익산시의 보석의 도시 이미지와 결합
- 색깔별로 보석을 연계하여 보석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정책영역 분류
→ (ex) 빨간색 루비=열정=문화 영역

● 가가호호 프로젝트

- ‘가가호호’의 사전적 의미는 집집마다, 한집 한집 이라는 뜻
- ‘호호’는 주로 여자의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볼 때, ‘가가호호’는 집집마다 여성이 웃는 모양을 의미
-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모두 행복하다는 여성친화도시의 비전과 집집마다 여성이 행복한

모양을 나타내는 ‘가가호호’ 이미지 일치

● **여정(女情) 프로젝트**

- 여정은 ‘여자의 정(女情)’을 의미하는바, 여성의 정이 갖는 이미지는 친근하면서도 소프트하고 감성적인 느낌
- 다른 뜻으로 ‘여행의 과정(旅程)’을 뜻하기도 하는 바, ‘여자가 행복해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여심 프로젝트**

- 여심은 ‘여자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하모니(HARMONY) 프로젝트**

- 하모니는 익산시의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도시와 농촌 등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라는 의미
- 특히 HARMONY는 Healthy(건강한), Active(활력있는), Rest(편안하고 안정적인), Merry(즐거운), Opportunity(기회), Nursing(돌보는), Yield(양보와 배려)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익산시가 추구하는 정책적인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네이밍임

4.2. 여성친화도시 마케팅 강화 방안

가. 익산형 스토리텔링 마케팅

1) 개요

-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 덴마크의 인어공주 동상 등은 각각 로렐라이 전설, 인어공주이야기 (안데르센 동화)의 스토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 그 자체가 관광지가 됨

[그림 21] 독일의 로렐라이언덕(좌)과 덴마크의 인어공주동상(우)



- 특정 공간, 장소를 스토리로 포장하여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때 관광상품으로써 가치 극대화됨

2)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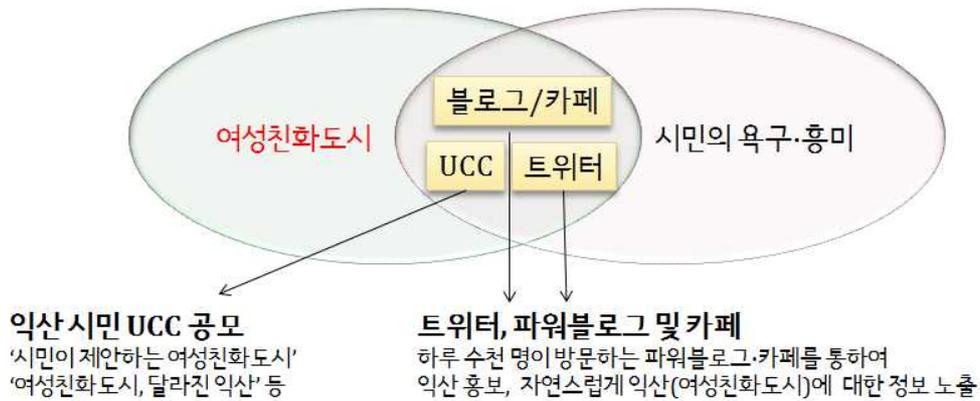
- 익산에는 ‘서동선화’라를 좋은 스토리텔링 소재가 있으므로,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택시기사를 스토리텔러로 발굴
 - 택시기사를 익산시민 뿐만 아니라 익산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택시기사가 익산의 스토리텔러가 되어 승객에게 ‘서동선화이야기’를 전달
- 여성 역사문화서포터즈 육성
 - 익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러로 여성인력을 발굴

[그림 22] 서동선화 스토리텔링



나.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

-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Virus + Oral Marketing”이란 뜻으로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온라인 구전마케팅 효과를 일컫음
- 시민 스스로가 마케터가 되어 시민 서로를 설득하기 때문에 자발적 홍보·확산 효과 큼
- 또한 시민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마케팅 가능



여성친화적 시설조성 원칙 및 평가지표



1. 여성친화도시 시설조성 가이드라인 원칙
2. 각 시설별 조성 기준
3.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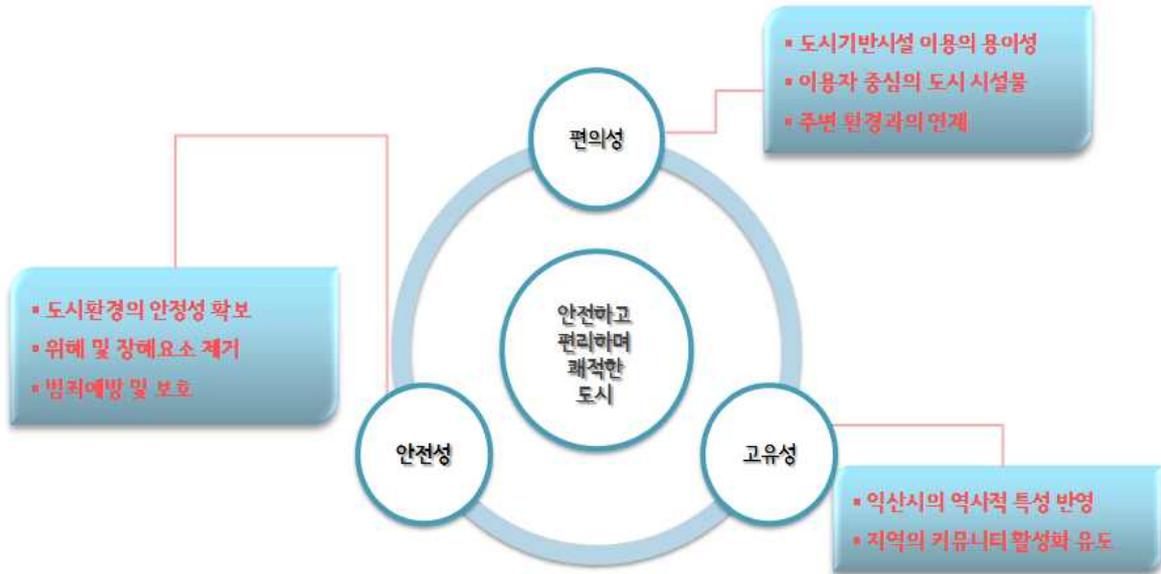
부록 1. 여성친화적 시설조성 원칙 및 평가지표

1. 여성친화도시 시설조성 가이드라인 원칙

1)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시설조성 기준

-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은 익산시의 3대 목표인 평등한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의 추진전략에 따라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고 여성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하여 가족 모두가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환경의 구축 방향을 편의성, 안전성, 고유성으로 정해 여성이 일상적 삶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여성에게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도시환경은 모든 시민에게도 불편함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환경조성은 여성을 한정적인 대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 익산시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환경구축을 위한 기본 전략인 편의성, 안전성, 고유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편의성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그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계획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이용의 용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이용자 중심의 도시 시설물 정비, 적정 공간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통한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말함
- 안전성은 시설물의 안전도 제고와 도시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이용에 따른 위해 및 장애 요소 제거, 범죄의 예방과 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말함
- 고유성은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익산시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다양하고 섬세함을 살린 도시정책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적 창조문화도시를 통해 여성을 포함한 모두에게 행복한 도시를 지향함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시설조성 기준



2) 관련 법

-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도로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자연공원법
- 도시공원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을 위한 조경 설계지침
- 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
- 주차장법

2. 각 시설별 조성 기준

1) 보행로

가) 기본디자인 방향

- 일반보행로의 일부 혹은 전체에 여성보행자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여 보행만족도와 보행안전도를 높이고 일반보행로와 차별화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사전에 체계적인 설비계획과 시설정비를 통해 보행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전한 구조로 계획함으로써 보행자의 보행사고를 줄이고 외부로부터의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1) 편의성

- 보행로 이용 편의성 확보
- 보행로 주변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편의성 증대
- 보행자중심의 짧은 동선 확보

- 보행로에는 적정 유효폭을 확보
- 보행로는 가급적 평탄하게 하며 급격한 경사 지양
- 여성친화보행로는 건물이나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각종 대중교통까지 편리하게 연결
- 폭이 넓고 횡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신호등 횡단보도에서는 잔여횡단시간을 알리는 시설물을 여러 개소에 설치 검토
- 보행로 설치 주변의 지역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여성편의시설을 설치 검토

- 보행로 인근에 벤치를 포함한 쉼터를 제공
- 쉼터를 계획할 때에는 식재나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
- 쉼터와 연계하여 소공원, 수변공간, 미술품·전시물 등의 설치를 고려
- 보행로 주변의 모든 시설물은 지역의 사용빈도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화
- 쓰레기통은 일정 거리마다 설치하고 통행이나 이용객이 많은 곳에 집중 설치
- 보행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 보행 구간 지정 운영 검토

(2) 안전성

- 보행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 각종 범죄로 부터의 안정성 확보

- 보행로의 마감은 여성의 특성과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재료와 시공방법을 채택
- 보행로의 설치물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행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
- 횡단보도의 진입부, 보도와 차도의 교차부 경계턱, 대중교통 출입구 등 높낮이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곳에는 맨홀, 점검구, 트렌치 등의 시설물 제거 고려
- 차도와 보행로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그늘진 곳, 음푹 들어간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서도 조명 연결
-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횡단보도용 조명을 설치하거나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여 설치
- 사고위험성이 높은 교차횡단보도나 교통광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을 추가 설치
- 거리 중에 여성의 활용빈도가 높고 대중교통과 환승되거나 주요시설이 집중되는 곳을 선정하여 여성안전 택시 승강장 설치 고려
- 여성안전 택시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식별번호와 구역인식 표시를 마련하여 사후 승하차 위치를 파악
- 여성 안전에 도움이 될 만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

(3) 고유성

- 테마설정형 가로 조성
- 거리의 지역성 및 문화적 정서 보유

- 지역특성이 녹아 있는 테마를 찾고 공동의 관심사를 끌어낼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과 연계
- 꽃길 등 보행로 폭이 확보 된 곳은 벽 등에 마한백제 문화(서동선화설화 등)의 스토리텔링 벽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
- 테마에 어울리는 문화 활동 공간이나 시설들을 배치하고 관리계획을 마련
- 지역 특성화를 고려하여 차 없는 거리, 보행전용거리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

2) 화장실

가) 기본 디자인 방향

- 과거와는 달리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화장실의 역할 확대
- 따라서 화장실을 계획함에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이를 위해 여성의 이용행태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함으로써 화장실의 기능을 확대하여 쾌적하고 개방감 있도록 하며 항상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구축

나) 부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1) 편의성

- 여성편의화장실의 양적확보
- 여성의 화장실 이용특성을 고려한 내부공간의 편의성 및 휴게공간의 확보
- 무장애 공간 계획

- 여성의 변기수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남성의 변기수와 관계없이 검토 필요

- 공중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권장
- 화장실 이용 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되도록 설계
- 공중화장실의 출입구는 화장실 내부가 시각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은 분리하여 배치
- 화장실 내부에는 간이의자, 기저귀교환대, 성인용변기 및 어린이용변기, 간이세면기, 노약자를 위한 핸드레일과 선반 등 편의시설 설치
- 남녀 화장실에 각각 어린이용 대소변기를 설치하여 가족 이용자를 배려
- 어린이용 대변기는 별도의 부스 혹은 성인용 부스 내에 설치 가능(별도의 표시 필요)
-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의 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치 높이나 형태 고려
- 기저귀교환대를 남녀 화장실 구분 없이 설치
-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충분한 출입구를 확보하고 사용에 편리한 형태의 문으로 설치
- 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기 설치
- 여성화장실에는 세면대가 있는 공간과 분리하여 별도 구획된 간이화장대 확보 고려
- 서양식과 동양식 변기의 혼용 권장
- 변기 우측에 잡지 및 신문 등을 놓을 수 있는 거치대설치를 권장
- 여성 화장실 내 적정위치에 여성전용용품 비치
- 상주관리가 곤란한 화장실은 대변기의 일회용 덮개를 비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장치를 갖추어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유지하도록 권장

(2) 안전성

- 화장실 시설 이용의 안전성 확보
- 유사시를 고려한 방법 및 경보시스템 확보

- 화장실의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고 보행이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고 평평하면서도 배수가 용이하도록 계획
- 배수를 위한 바닥설치물은 보행안전이나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
- 보행에 방해가 되는 설치물들이 바닥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
- 비상시에는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문상부의 틈새는 환기를 고려하되 안전한 범위로 계획
- 고장나거나 훼손된 문 잠금장치 교환
-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 설치

- 화장실 밖 주변을 밝게 하고, 화장실 내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 화장실 내부의 전체적인 조도를 밝게 유지

(3) 고유성

- 설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 친환경 및 쾌적한 마감 계획
- 유니버설 디자인

- 화장실의 외관디자인은 설치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창의적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창문을 설치(천창설치 포함)
- 자연채광을 적극 유도하고 식재나 벽면녹화 등의 친환경계획을 도입
- 실내의 색채감(지역색)이 조화를 이루는 마감재를 사용
- 청소 및 보수가 용이하며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활용
- 장애,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3) 공원

가) 기본 디자인 방향

- 도심 내 휴식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심 근린공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임. 익산시 도시공원의 여성친화개념은 여성중심에서 그 이용대상자를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계획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함
- 익산시 여성친화공원은 공원이용의 기본적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여성, 아동,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1) 편의성

- 공원 내 여성친화거리 조성
- 여성의 공원시설 이용 편리성 확보를 위한 부대시설 계획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 편의성 확대

- 여성친화거리를 조성하여 화단, 적절한 간격의 휴게벤치, 부드러운 빛의 가로등 및 음악이 흐르는 스피커 등 설치
- 공원 주변에 위치한 대중교통 시설,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과의 보행동선을 연결
- 공원 내부의 단지를 최소화하고 수직 이동 시 계단과 함께 경사로 설치
- 공원 주차장 내부 또는 인근에 여성우선주차장을 확보. 공원 내부에 주차장 설치가 어려울 때는 공용주차장 등의 인근 주차장을 공원용 주차장으로 겸하여 활용
- 여성우선주차장은 공원 입구와 가까운 곳 또는 공원 출입 보행로와 인접하여 지정
- CCTV와 비상벨을 설치
- 주야간 조도 밝게 유지
- 유아를 동반한 여성들을 위하여 유모차 대여 서비스 시행
- 관리사무소 및 방문자센터 등에는 미아 보호센터 운영
-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편의를 위해서 수유실 마련
- 공원 내 어린이시설과 휴게 공간 등은 연계성을 확보
- 어린이 놀이터 등의 어린이시설은 어른들의 보호 관찰이 편리한 구조와 위치로 설치
- 방문자센터 및 관리사무소 등에는 공원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소 또는 인근지역의 현황 등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원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
- 공원에는 이용이 편리한 종합 안내도를 일정거리 마다 설치
- 종합 안내도에는 현재의 위치와 공원의 여성편의시설 및 인근 서비스시설의 위치, 시설 규모 등을 표기하여 시설이용 편의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비
- 인근에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이 없는 경우, 공원의 조건에 맞는 적절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유모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무장애 보행로 설치
- 일정거리마다 의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
- 공원 내 음수대 설치 및 청결 유지
- 긴급통화를 겸한 공중전화 부스의 설치를 권장

(2) 안전성

- 각종 공원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방법 및 방재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 공원 내 안전지역 지정

- 보행로 주변 조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지 작업을 통하여 일정한 시야를 확보하여 우범지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계획
- 공원 외곽 경계부 담장은 최소한의 영역 구분만 가능하도록 낮은 관목을 심도록 계획
- 예리한 코너, 높은 담장 등은 지양하고 낮은 담과 정돈된 관목과 같이 사용자의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시설물로 계획
- 공원주차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에 CCTV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넓은 장소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 휴식시설은 최소 8인 이상이 머물 수 있는 규모로 하며 단독으로 배치된 벤치의 설치 지양
- 가시권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사각지대 개선 차원에서 필요 없는 구조물은 과감히 철거
- 보행로,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시설물에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주간에는 관리사무소, 야간에는 파출소로 연결
- 공원 내 가로등은 보행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도록 조도 및 위치 계획
-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공원 출입구 또는 공원 내 사람의 이용이 가장 많은 곳에 위치
- 보행로의 단차를 없애고 연속성을 유지
- 길 옆에는 안전펜스 또는 난간을 설치하여 유모차 또는 휠체어의 안전을 도모
- 유모차 및 휠체어가 통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 보행자, 자전거, 유모차 출입 시 서로의 안전을 보장
- 자동차의 공원 내 진입은 금지
- 관리 사무소, 주변 파출소 등과 연계하여 통합 방법 및 방재시스템을 구축
- 관리실 내 비상 구급약을 비치하여 응급 시 대처
- 공원의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관리실이 없는 도심 소규모 공원에는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순찰 강화

(3) 고유성

- 공원의 활용을 다양화 함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원계획

- 공원 내 자연학습장 등 각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형 학습장의 설치를 권장
- 학습장 설치의 안전기준은 「도시공원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
- 녹지형 공원에는 자연학습장과 더불어 주민참여 텃밭 또는 재배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
- 저녁시간에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
- 지역사회의 적극적인(이용자만족도, 여론조사 등)을 유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여성 중심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동아리 활동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결속을 돕는 공간을 마련
- 소광장을 조성하여 야외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며 로컬푸드마켓, 플리마켓(벼룩시장) 등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
- 저녁시간에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
- 주민참여 조경시설을 설치 구획하고 주민의 참여로 조경시설을 관리

4) 아파트 주호 내부

가) 기본 디자인 방향

- 여성들은 사회생활과 가사, 육아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아파트 내에 여성들의 생활 편의와 쾌적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도입함으로써 한층 수준 높아진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
-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변모와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주거형태 도입이 요구되고 있어 세대 내부의 가사활동 편의와 쾌적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나) 부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1) 편의성

- 단위세대 공간의 다양화
- 여성편의 주방, 욕실 설치

- 주부의 취미활동이나 작업을 위해 주부동선이 편리한 곳에 주부전용공간 마련 권장
- 거실과 인접한 침실의 경우 거실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 적용 권장
- 거실로 확장된 침실은 필요한 경우 다시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적용 권장
- 발코니의 경우 거실확장이 아닌 작업실 또는 다목적실 등의 선택적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도록 권장
- 작업효율이 높은 U자형 주방설계를 반영하여 작업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권장
- 싱크대, 테이블 등의 모서리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 권장
- 주방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높이 조절형 시스템으로 설치하도록 권장
- 욕조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거나 바닥에 미끄럼방지기능을 갖춘 것으로 설치 권장
- 창고, 주방, 현관, 베란다 등에 충분한 수납 공간을 계획하도록 권장

(2) 안전성

- 대피용 발코니 확보
- 범죄예방설비 및 재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 화재 및 위급 상황을 위하여 위기에 면한 대피용 발코니를 확보하도록 권장
-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는 어린이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주호를 배치하고 어린이 활동외부공간을 주호내부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CCTV설비와 연계하도록 권장
- 경비실,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통합 방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
- 주호 내의 각종 가구는 사용자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권장

(3) 고유성

- 공적활용공간 계획
- 지역 커뮤니티시설 및 공간 계획

- 가사, 육아도우미, 노인서포터, 지역정보 조회 등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는 연계콜센터를 커뮤니티센터나 관리 사무소 내에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권장
- 공적활용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커뮤니티센터(주민공동시설 포함)로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권장
- 센터 내부 또는 인근에 주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상설장터, 이벤트 마당)을 조성 검토
- 커뮤니티센터 내에 노인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 커뮤니티센터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초등학교, 대형생활편의시설, 병원, 공공청사, 파출소 등과 연계(공동프로그램 운영 등)하여 활성화 할 수 있음

5) 아파트 외부 공간

가) 기본 디자인 방향

- 아파트 외부 공간은 아파트 거주자의 일상적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아파트거주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권장
- 여성을 포함한 아파트 거주자 모두가 쾌적하고 편리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내 주보행로의 일부 혹은 전체에 일정 폭 이상을 가진 여성친화보도를 마련함으로써 보행만족도와 보행안전도를 높이고 주민상호교류와 옥외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배려를 계획함으로써 양질의 주거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권장

나) 부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1) 편리성

- 여성친화보도 설치
-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 여성우선주차면의 설치
- 쓰레기 배출 시스템 설치

- 보행로에는 여성친화도로를 확보도하도록 권장
- 여성친화보도 안에는 식재를 포함한 돌출형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며 적정 유효폭 확보 권장
- 여성친화보도는 벤치나 자전거 거치소와 같이 시설물의 이용에 일정공간이 요구되는 시설물의 활용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여성친화보도는 단지 내 자전거도로와 분리 설치 권장
- 여성친화보도는 가급적 평탄하게 하며 급격한 경사는 지양
- 여성친화보도는 초등학교 길과 연계되도록 하며 스쿨존에 가장 가까운 단지 출입구를 경유하도록 권장
- 여성우선주차면은 주동 출입과 관련하여 시야가 확보된 곳에 적절히 배분 설치
- 지하 주차장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진출입구 폭, 기울기, 회전반경 등을 충분히 확보
- 주동 출입구, 차량진·출입 피난동선 등의 식별이 가능한 구조 및 색채 계획을 실시
- 쓰레기 배출 장소는 지상 또는 지하 한곳에서 편리하게 배출되도록 하며 청결함을 유지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에 보관소를 두어 지붕 있는 구조로 하거나 뚜껑이 있는 기성제품을 설치하도록 계획

(2) 안전성

- 단지 내 보행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한 각종 설비 도입

- 아파트 단지 외부에서 단지의 지정출입구까지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안전귀가로를 선정하여 운영
- 여성귀가로는 야간에 밝은 조도를 유지
- 여성안전귀가로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주요지

점에 CCTV 등을 설치

- 여성안전귀가도로에 접속된 아파트 출입구 인근에는 단지 경비실을 두어 보행안전과 연속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 단지 내 주요시설 등에는 여성안전귀가도로가 명기된 동선 안내 표지판 설치 권장
- 여성안전귀가도로는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각 주동출입구, 여성친화보도, 여성안전귀가도로 및 쓰레기 처리장소와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
- 지하주차장은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비상벨 설치
- 단지 주·부출입구에는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통제 등의 차량통제시스템 구축을 권장

(3) 고유성

- 가족단위 활동과 거주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적 배려
- 친환경 공원 및 자전거 네트워크 조성

- 층별, 동선별로 엘리베이터홀이나 중간층 등을 활용한 주민친화 공용 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
- 중정형 또는 블록형 배치 등의 경우에는 단지 앞마당에 주민친화공간이 마련되도록 계획
- 주동 내 공용공간은 가급적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어느 경우에도 은 폐되지 않으며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계획

6) 주차장

가) 기본 디자인 방향

- 여성들은 짐을 싣고 내리거나 유아를 동승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기존의 주차환경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주차이용 행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

나) 부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1) 편의성

-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노유자 동반, 고령여성운전자)
- 여성이용자의 이용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계획

- 출입이 용이한 장소(주차장출입구 가까운 곳, 계단 및 코어에서 가까운 곳)에 여성우선 주차장 설치
-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구역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 권장
- 노유자동반 여성우선 주차구역은 장애주차구역과 인접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
- 최소한 1~2개소에 2대 이상 임시주정차가 가능한 구역 설치 운영
- 주차구역 공간을 계획할 때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그 통로에 적절한 조명, 그늘식재, 보안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
- 차량 이동 통로, 주차 공간, 보행 영역의 패턴을 구분하여 인지성을 확보
- 다양한 연령과 신체적 조건의 이용자들을 배려한 보행 편리성과 안정성을 고려
- 주차장 출입 시나 주차구역으로서의 이동 시 이동 동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차량유동 용 표지가 벽과 바닥에 적용
- 주차장 내 쓰레기 적치장 등 잉여공간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 야외 주차장의 경우 여성우선주차장이나 노유자동반여성우선주차장 등 여성운전자를 위한 주차구역에 그늘막 설치를 권장
- 그늘막이나 그늘식재는 원활한 주차행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

(2) 안전성

- 주차행위 및 이동 시 안전성을 고려한 계획
- 주차구역 내 여성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계획
- 지하주차장의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임시주정차구역은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또한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계획

- 주차구획 공간을 계획할 때 보행통로를 확인하고 그 통로에 적절한 조명, 그늘식재, 보안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
- 지하에 설치되는 여성우선 주차구역에는 음성전송장치장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장 여자화장실에는 안전 및 비상시를 위하여 비상호출 버튼을 설치
- 여성우선 주차구역 또는 주차장 여자화장실에는 특히 일반주차장보다 더 밝은 조도 확보 권장
- 노상주차장, 지상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야간에 방법 및 안전을 위해 보안등을 설치하고 적정조도를 유지
- 주차장상부의 지상에는 투수성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
- 지하식 노외주차장에는 미세먼지 등을 발산하는 뿔칠 등을 자제하여야 하며 재생 가능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
- 현재 건축 인·허가 시 적용되는 건축물친환경인증제도에 주차장시설 기준을 포함하여 인증하도록 권장

(3) 고유성

● 공공시설에 주차대행 서비스 제공

● 아동 및 유아 동반 여성을 위한 가족 주차면 도입

- 공익요원이나 대학생 지원자들을 배치하여 도움이 필요한(고령여성운전자 또는 노유자 동반 여성) 운전자들에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제공 고려
- 아동 및 유아를 동반한 여성운전자를 위해 관리자의 관찰과 도움이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

3. 평가지표

-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기준 평가는 보행로, 화장실, 공원, 아파트 주호 내부, 아파트 외부 공간, 주차장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각 시설 평가지표는 시설 조성 원칙인 편의성, 고유성, 안전성으로 구분하고 원칙별 가이드라인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의 적합여부를 판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및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은 조성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시설별 평가는 향후 평가주체, 평가방식,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설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보행로

- 보행로 평가는 크게 편의성, 안전성, 고유성으로 구분
 - **편의성:** 보행로 편의성 확보, 보행자중심의 짧은 횡단보도 동선확보, 보행로 주변과의 연계성 확보
 - **안전성:** 보행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한 안전한 보행 환경구축, 각종 범죄로 부터의 안정성
 - **고유성:** 테마설정형 가로 조성, 거리의 지역성 및 문화적 정서 보유
-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평가항목에 제시

[표 65] 보행로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편의성	- 보행로 편의성이 확보 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걱정 유효폭 확보 ▪ 가급적 평탄한 보도 설치 ▪ 무장애 보행로 ▪ 보행용이성을 확보
	- 보행자 중심의 동선이 확보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까지 연결용이 ▪ 편리한 동선 확보
	- 보행로 주변과의 연계성 확보 및 편의성 증대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 인근 쉼터 또는 벤치 ▪ 쉼터와 연계된 소공원, 수변공간, 미술품·전시물 설치 ▪ 쓰레기통 설치 적절성
안전성	- 보행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이 구축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구 개소축소 및 보행로 장애해소 ▪ 자동차 진입억제용볼라드 설치 ▪ 가로등의 충분한 조도유지 ▪ 금연 보행 구간 지정
	-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정성이 확보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안전택시승강장 설치 ▪ 지역여건을 고려한 CCTV 설치
고유성	- 가로조성에 테마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고 독창적인 가로변조성 ▪ 지역특성이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과 지역연계
	- 거리의 지역성 및 문화적 정서 보유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 없는 거리', 보행 전용 거리 운영

2) 화장실

- 화장실 평가는 크게 편의성, 안전성, 고유성으로 구분
 - **편의성:** 여성편의화장실의 양적확보, 여성의 화장실 이용특성을 고려한 내부공간의 편의성 및 휴게공간의 확보, 무장애 공간
 - **안전성:** 화장실 시설 이용 안전성확보, 유사시를 고려한 방법 및 경보시스템 확보
 - **고유성:** 설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친환경 및 쾌적한 마감 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평가항목에 제시

[표 66] 화장실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편의성	- 여성편의 고려한 화장실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변기 수 확보
	- 여성의 화장실 이용특성을 고려한 내부공간의 편의성 및 휴게공간이 확보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구위치의 적절성 여성편의공간(파우더룸) 설치 화장실 내 어린이 화장실 확보 다목적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서양식변기와 동양식변기 비율의 적절성 세면기 주변 선반이나 걸이, 여성용품 비치대 설치 위생시설의 설치(일회용 위생 덮개 등)
	- 무장애 공간 계획이 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용이한 출입구
안전성	- 화장실 시설 이용 안전성이 확보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의 미끄럼 방지와 바닥배수 용이성 부스출입문 적정 틈새 충분한 환기 문잠금장치 안전성
	- 유사시를 고려한 방법 및 경보 시스템이 확보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 화장실주변 CCTV 설치 화장실 위치별 주야간 적정조도 확보
고유성	- 설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계획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특징을 고려된 창의적 디자인 계획
	- 친환경 및 쾌적한 마감 계획이 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크기의 창문설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도입 친환경적인 계획 및 재료 사용 실내의 색채감(지역색)이 조화를 이루는 마감재 사용
	- 유니버설 디자인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3) 공원

- 공원의 평가는 크게 편의성, 안전성, 고유성으로 구분함
 - **편의성:** 공원 내 여성친화 거리조성, 여성의 공원시설 이용편리성 확보를 위한 부대시설 계획,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 편의성 확대
 - **안전성:** 각종 공원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각종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방법 및 방재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 도입, 공원 내 안전지역 지정
 - **고유성:** 공원의 활용을 다양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원계획

▪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평가항목에 제시

[표 67] 공원의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편의성	- 공원 내 여성친화 거리 조성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길, 휴게벤치, 가로등, 음악스피커 등을 설치 여성친화산책로설치
	- 여성의 공원시설 이용편리성 확보를 위한 부대시설 계획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주요시설과의 보행동선 연속성 확보 수직 이동 시 계단과 함께 경사로 설치 여성우선주차장 확보 주차출입 용이성 및 주차구역의 접근성 주차구역 내 CCTV 및 비상벨 설치 주야간 적절한 조도 확보 유모차 대여시설 유무 미아보호센터 및 수유실 유무 어린이시설의 보호관찰이 편리한 위치 설치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 편의성 확대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 안내도 설치 유무 공원조건에 맞는 운동시설 설치 유무 휴게시설 설치 유무 음수대 설치 유무 공중전화 부스 설치 유무
안전성	- 각종 공원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물의 시야 확보 휴식공간의 시야 확보 보행로에 개방된 조경조성
	-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에 CCTV 설치 사각지대 제거
	- 방법 및 방재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시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 설치유무 인터폰 및 비상벨 CCTV설치유무 안전기능이 강화된 관리소 설치
	- 공원 내 안전지역 지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설치 및 충분한 조도 유지 내부보행로와 일체감 있는 연결유무 안전 웬스 또는 난간설치 보행자, 자전거, 유모차의 출입구 분리 설치 자동차 진입 금지 유무 관리사무소, 파출소등과 연계된 통합 방범시스템 구축 유무 공원 내 금연구역 지정시행 유무
고유성	- 공원의 활용을 다양화 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장과 놀이공간의 계획적인 구성 안전기준적용 (도시공원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원계획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여성 중심 커뮤니티 시설 조성 주민참여 조경시설 설치 기획

4) 아파트 주호 내부

- 아파트 주호 내부 평가는 크게 편의성, 안전성, 고유성으로 구분함
 - **편의성:** 단위세대 공간의 다양화, 여성편의 주방, 욕실 설치로 구분
 - **안전성:** 대피용 발코니 확보, 범죄예방설비 및 재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 **고유성:** 공용 공간 활용 계획, 지역 커뮤니티시설 및 공간 계획
-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평가항목에 제시

[표 68] 아파트 주호 내부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편의성	- 단위세대 공간이 다양화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전용공간 구성 ▪ 가변형 구조 적용 ▪ 발코니의 선택적 이용
	- 여성편의 주방, 욕실 설치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 싱크대, 테이블 등의 모서리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처리 ▪ 높이조절형 주방가구 설치 ▪ 욕실리모델링 및 설계 반영 ▪ 욕조바닥의 미끄럼완화기능 설치 ▪ 규정면적 이상의 수납공간 설치
안전성	- 대피용 발코니 확보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용 발코니 설치
	- 범죄예방설비 및 재해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주호내부의 CCTV설치 ▪ 경비실, 관리사무소와 통합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고유성	- 공용 활용 공간 계획이 효율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활용공간(커뮤니티 기능) 유무 ▪ 휴게공간, 다목적공간, 공용창고 등과 연계
	- 지역 커뮤니티시설 및 공간 계획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 ▪ 필요 시 학습관련 시설 운영 ▪ 커뮤니티센터 내에 노인보호센터 설치

5) 아파트 외부 공간

- 아파트 외부 공간은 크게 편의성, 안전성, 고유성으로 구분함
 - **편의성:** 여성친화보도 설치, 여성편의화장실 설치, 여성우선주차장면의 설치, 쓰레기 배출 시스템 설치

- **안전성:** 단지 내 보행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한 각종 설비 도입
 - **고유성:** 가족단위 활동과 지역주민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적 배려, 친 환경 공원 및 자전거 네트워크 조성
-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평가항목에 제시

[표 69] 아파트 외부 공간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편의성	- 여성친화보도 설치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보행로 확보 ▪ 보도단차, 장애물 해소 ▪ 가급적 평탄한 보도 설치 ▪ 스쿨존과의 원활한 연결 ▪ 휴게소, 휴게벤치 설치 ▪ 단지 내부 네트워킹 구축
	- 여성편의화장실 설치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화장실 설치
	- 여성우선주차면 설치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층 설치 ▪ 전체 주차 구역에서 적정비율 배치 ▪ 지하주차장 입구, 출구 분리 설치 ▪ 충분한 진출 입구 확보 ▪ 자연채광 및 환기 설치 및 활용
	- 쓰레기 배출 시스템 설치되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쓰레기 등과 분리된 전용공간 설치 ▪ 쓰레기 처리시설의 청결유지 ▪ 청소장비 설치 ▪ 일반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안전성	- 단지 내 보행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안전귀가로 설치 ▪ 야간적정 조도 유지
	-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한 각종 설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지점 CCTV설치 ▪ 경비실, 관리사무소와 통합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단지 내 동선 안내 표지판 설치 ▪ 사각지대 비상벨 설치 ▪ 차량통제시스템 구축
고유성	- 가족단위 활동과 여성주민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적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친화 공용 공간 조성 ▪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도입 ▪ 충분한 환기 시스템 확보
	- 친환경 공원 및 자전거 네트워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설치 ▪ 자전거보관소 및 공기주입기 설치

6) 주차장

- 주차장 평가는 크게 편의성, 안전성, 고유성으로 구분함
 - **편의성**: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 여성이용자의 이용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계획
 - **안전성**: 주차행위 및 이동시 안전성을 고려한 계획, 주차구역 내 여성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계획, 지하주차장의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성 확보
 - **고유성**: 공공시설에 주차대행 서비스제공, 이동 및 유아 동반 여성을 위한 가족 주차면 도입
-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평가항목에 제시

[표 70] 주차장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편의성	- 여성우선주차장제 도입(노유자동반, 고령여성운전자)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우선 주차면 출입문 용이성 ■ 차량유도용 표지 적용 ■ 주차장 내외부에 쓰레기적치장 등 잉여 공간 지양
	- 여성이용자의 이용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계획이 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지상 주차시설에 그늘 마련을 위한 식재나 시설물 조성 유무
안전성	- 주차행위 및 이동시 안전성을 고려한 계획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주정차구역 하차 시 안전시설 설치 ■ 공동주차장은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마련함 ■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설치 ■ 주차구역 인지와 식별이 용이한 조명 및 색채계획 유무 ■ 주차장의 조도 및 야간조명 확보
	- 주차구역 내 여성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계획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우선주차구역의 CCTV 및 비상벨의 설치 ■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유무
	- 지하주차장의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성 확보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우선주차구역의 음성전송장치장착, CCTV 설치 ■ 충분한 채광과 환기확보 ■ 친환경 재료 사용유무
고유성	- 아동 및 유아 동반 여성을 위한 가족 주차면 도입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유아를 동반한 여성운전자를 위한 주차면 확보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평가 및 요구도 조사

부록 II

1. 조사개요
2. 심층면접조사 결과
3. 시민 요구도 조사 결과

부록 II.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평가 및 요구도 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익산시의 일반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친화도시 현재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2) 조사방법 및 대상

- 본 연구에서는 익산시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시민과 전문가 FGI를 통하여 구체적 안을 도출하여 여성친화도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파악함
- 일반 시민조사(설문조사)
 - 조사지역은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동으로 나누어 층화표집한 표본 수는 총 400명임
- 조사기간
 - 2010.5.12~2010.5.18
- 익산시민 심층면접조사(FGI)
 - 청소년, 노인, 미혼여성, 주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10여개 대상별로 대표자 1~2인, 총 15인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함(2010.5.18)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

-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2010.5.26)

가) 일반시민 설문조사

- 익산시민 400명

나) 시민 심층면접조사(FGI)

- ‘살기좋은도시, 살고싶은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대상 분야별로 총 15명의 익산시민, 여성정책전문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층면접이 진행됨(2010.05.18, 익산시청 홍보관)

[표 71] 시민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이름	직업(소속)	연령	성별	대상분야
백○○	시청일용직	20대	여성	일자리
오○○	농업	50대	여성	농 촌
성명미상		60대	여성	노 인
타 ○	주부(이주여성)	30대	여성	다문화
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40대	여성	다문화
이○○	청소년수련관	50대	남성	청소년
방○○	여성쉼터	30대	여성	여성복지
박○○	익산시청	40대	여성	행정(홍보)
김○○	여성단체협의회	50대	여성	여성, 일자리
성명미상	장애인복지시설	30대	여성	장애인
서○○	어린이집 운영	50대	남성	보 육
유○○	익산시청	30대	남성	행정(정책)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30대	여성	보건의료
박○○	노인가복지시설	30대	여성	노 인
오○○	희망연대	30대	남성	시민참여
최 ○	여성정책연구원	40대	여성	여성정책

다) 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

- 대상 분야별 전문가 4인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평가 및 발전 방향 수립에 대하여 지역 내 전문가의 심층면접이 진행되었음 (2010.05.26, 원광대학교)

[표 72]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이름	직업(소속)	성별	전문분야
김○○	익산시문화원장	남성	문화
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원광대학교 교수)	여성	다문화
이○○	원광대학교 교수(도시공학과)	남성	공공디자인
송○○	도시계획기술사	남성	경관

2. 심층면접조사(FGI) 결과

1)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 익산시 현재 모습에 대한 평가

[표 73] 익산시 현재 모습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야	내용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 확대 - 문화시설/프로그램 이용 시 시간제 보육교사 도입 - 다문화/장애인 여성이 일자리와 보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여성이 보육과 일자리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청소년시설/문화시설 등 모든 시설 건립 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고려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고학력자들이 많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 (← 익산시 청장년층 인구 감소의 원인) - 결혼·육아로 인하여 경력 단절된 여성 등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보육과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여성친화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상담 및 교육 후 취업 시 출퇴근버스까지 제공하지만 고학력 여성의 생산직 기피로 인하여 취업연계에 애로 → 고학력 여성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유치, 저임금구조 개선 등
의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 여성 및 그 가정이 관내 병원을 통해 의료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현재 군산의료원과 협정) - 여성친화도시로서 전국 유일하게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익산시 예산)
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원광대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설을 이용하기 불편 (아이가 있는 이주여성들이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계단을 유모차를 끌고 오르내리기 힘들고, 아이를 데리고 수업에 집중하기 불편) - 결혼이민자들이 만든 수공예품의 판로 개척 및 경쟁력 있는 활용처 발굴 지원 필요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 위한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공간 부족 - 새로운 공간을 건립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프로그램 활성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소리예술회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규모의 공연 가능) - 문화시설의 대중교통 이용한 접근성 개선(버스 노선 부족)

분야	내용
	- 문화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부족 → 홍보 및 마케팅 수단의 채널을 다각화 할 필요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

- 전반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정립조차 미흡함
- 현재와 같은 백화점식 사업 추진, 상징성·차별성 없는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또한 시설건립,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인프라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표 74]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야	내용
여성전용콜택시	- 익산시에서 운행할 콜택시는 여성운전자가 운행하여야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 - 현재 운행되고 있는 핑크택시를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민들이 많음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	- 농촌 여성 소득활동 지원으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효과성 큼 - 농촌인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할머니를 위한 대책 필요(소득활동, 돌봄, 안전, 주거 문제 등)
여성일자리갯기지원 프로젝트	- 직업교육지원만 받고 취업은 하지 않아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인력활용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단순히 여가활동으로 교육을 듣는 경우가 있음 -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마련 필요

● 익산시에 바라는 미래상과 발전 방향

[표 75] 익산시에 바라는 미래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야	내용
익산의 대표자원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익산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사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 보석 가공의 도시로서 위상 재정립 - 풍부한 백제·마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고대 역사문화 도시로서 관광 자원화 - 익산시민의 익산시 바로알기 운동을 통하여 익산시에 대한 자긍심 고취
익산의 교통인프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도시에 비하여 뛰어난 도로 기반과 KTX가 정착하는 것은 익산시가 가진 최고의 이점 - 교통인프라는 향후 새만금배후도시로서 정착기반이 될 것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다 도시가 더 중요한 시대에 돈은 상품과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 스토리텔링, 문화 등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것 - 따라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보다 자연의 것, 본연의 것을 세일즈하는 마케팅이 중요

2)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표 76] 익산시에 현재모습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야	내용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공무원 수 30% 이상, 과장이상 고위여성공무원 30% 이상 확대 - 여성에게도 남성과 함께 동등한 승진 기회 보장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통해서 비용지원 받은 시민들이 교육 수료 후 취업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실제 직업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지원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발전할 수 없음 - 지역 내 고학력 여성인력이 많으나 활용하지 못한 채 도태되고 있는 실정 - 고학력 여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력풀을 활성화해야 함 -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 - 미래 익산시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클러스터에 여성 식품전문가를 육성하여 활용
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지역은 남녀 성인지가 낙후된 지역으로서 여성친화도시를 통하여 남녀 성차별적 사고를 개선 - 여성친화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와 시민의식 개선되어야 함

분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적으로 익산시 본연의 자원이 많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미약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 - 익산을 제대로 알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우선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타운(가칭) 건설하여 여성의 모든 활동이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상징적 공간 조성 - 행복타운(가칭)은 여성이 원하는 것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공간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센터 및 여성단체 입주 공간 제공 - 시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화도 매우 중요함 - 소규모 길거리 공연 등에 지역 예술가와 학생들을 활용 - 익산시에 얼마 남지 않은 전통가옥과 옛 건축물을 시비로 매입하여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 옛길(고도)을 찾아 환경친화적, 인간친화적으로 재창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는 익산역(구 이리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배산임수형의 도시가 아니라 주변에 산도 없고 물도 없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욱 많았음 - 익산시의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함 - 자전거도로, 입간판, 전봇대 등을 모두 정리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중심 거리로 개선 - 특히 '거리만들기'는 주민의 협력과 강력한 시민의식 없이는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 참여가 중요함 -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은 단순한 barrier free가 아니라 정책 전반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음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체되어 있는 보석단지를 활성화하여 보석 도시로서 위상 재정립 필요 - 단, 지금처럼 보석 판매 숍들이 오픈되어 있는 구조가 아닌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고품격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야 함 - 미륵사지 등 익산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익산시가 가진 역사자원(미륵사지, 사리장엄,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은 잘 개발된다면 관광자원으로 가치 높음 - 역사자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해설사로서 주부, 할머니들을 활용한다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임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는 자가용 운전자에게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불편함(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촌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여성의 임금이 낮은 수준인데, 정부의 지원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저소득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으므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참여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현금의 개념이 아닌 세제혜택 등, 캘리포니아 산호세 사례) - 농촌 거주 할머니들이 안전에게 지낼 수 있도록 그룹홈 조성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이루어짐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익산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으나 정확한 개념 정립이 모호한 상태이고,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활용하여 익산시의 브랜드로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남
- 시민 심층면접조사 결과, 보육이나 교통(대중교통), 장애인, 의료복지, 청소년, 다문화 등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는 행정, 시민의식, 환경, 심층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한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
- 일자리, 문화에 대한 의견은 시민과 전문가 조사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 이 분야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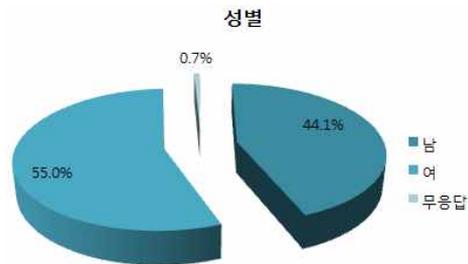
3. 시민 요구도 조사 결과

3) 일반현황

● 성별분포

- 응답자의 55.2%가 여성, 44.1%가 남성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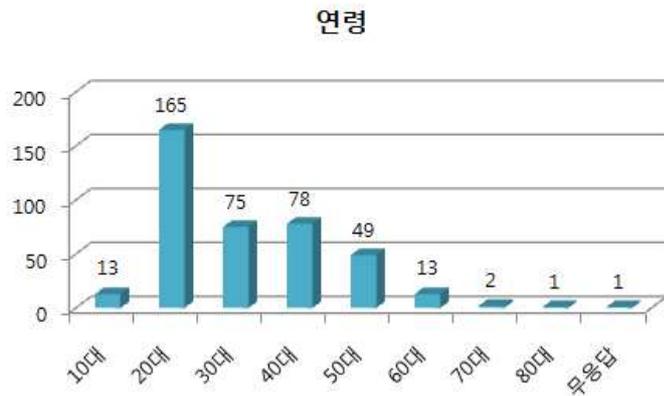
성별	빈도(명)	백분율(%)
남	175	44.1
여	219	55.2
무응답	3	0.7
합계	397	100.0



● 연령분포

- 응답자의 평균은 34.8세이며 17세부터 86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41.6%로 2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연령	빈도(명)	백분율(%)
10대	13	3.3
20대	165	41.6
30대	75	18.8
40대	78	19.6
50대	49	12.3
60대	13	3.3
70대	2	0.5
80대	1	0.3
무응답	1	0.3
합계	397	100.0



●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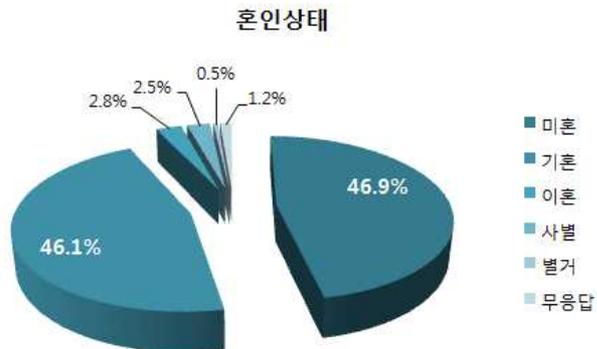
- 각 동별 인구비례할당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음
- 14면 1읍(금마면, 낭산면, 망성면, 삼기면, 성당면, 여산면, 오산면, 왕궁면, 용동면, 용안면, 용포면, 춘포면, 함라면, 함열읍, 황등면)
- 14개동(남중동, 동산동, 마동, 모현동, 부송동, 삼성동, 송학동, 신동, 어양동, 영등동, 인화동, 중앙동, 팔봉동, 평화동)
- 응답자의 익산시 평균 거주기간은 20년 3개월로 조사됨

거주지역	빈도(명)	백분율(%)
동	302	76.1
읍·면	95	23.9
합계	397	100.0

● **동거가족현황**

- 응답자의 46.9%는 미혼, 46.1%는 기혼으로 조사되었으며, 2.8%나 이혼, 2.5%가 사별한 것으로 조사됨
- 가족 가운데 돌봄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였으며, 응답자의 60.3%가 아동, 32.9%가 노인, 6.2%가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함

혼인상태	빈도(명)	백분율(%)
미혼	186	46.9
기혼	183	46.1
이혼	11	2.8
사별	10	2.5
별거	2	0.5
무응답	5	1.2
합계	3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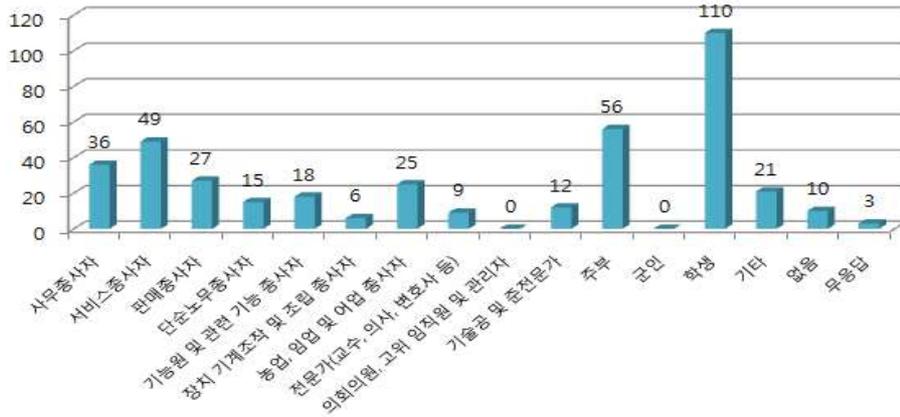


- 전체응답자의 3.8%가 이주여성이었으며, 전체응답자의 3.5%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함

● **직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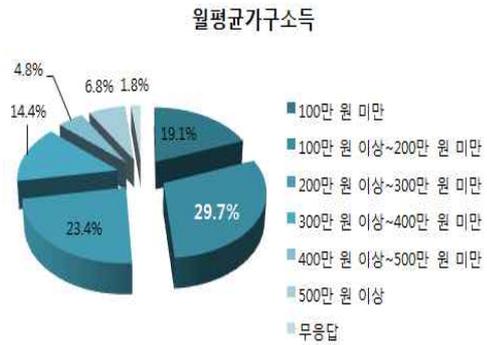
- 응답자 가운데 학생(110명 27.7%)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부(56명 14.1%), 서비스종사자(49명 12.3%) 순으로 조사됨

직업



-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이 118명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월 평균 가구 소득	빈도(명)	백분율(%)
100만 원 미만	76	19.1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18	29.7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93	23.4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57	14.4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19	4.8
500만 원 이상	27	6.8
무응답	7	1.8
합계	397	100.0



4) 익산의 현재

- 익산에 대한 이미지

- 익산시, 일자리, 문화, 교육, 교통, 안전, 경관, 환경, 의료, 주거, 보육, 복지, 행정 등 총 13개 분야 47개 문항을 통하여 익산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실시함
- 일자리 종류가 다양하다는 질문에 71.0%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가장 높은 부정적 응답률을 보였으며, 병원, 약국 등의 의료시설이 가깝다는 의견이 73.1%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임
-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보임

분야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합계
	내용						
익 산 시	익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6.8	25.3	53.9	7.3	6.7	100.0
	익산시민으로서 익산시에서의 삶에 만족한다	5.8	34.7	46.1	9.1	4.3	100.0
일 자리	일자리종류가 다양하다	13.6	57.4	18.4	3.3	7.3	100.0
	일하면서 가정을 돌보기 쉽다	12.8	52.9	20.4	2.8	11.1	100.0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시의 지원(교육/상담/연계/창업지원 등)이 잘 되어 있다	12.4	50.8	19.3	2.0	15.5	100.0
문 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의 종류가 다양하다	13.4	48.9	26.8	4.3	6.6	100.0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13.7	40.3	34.8	5.1	6.1	100.0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9.1	47.0	25.2	2.5	16.2	100.0
	자녀 또는 가족과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8.6	43.0	33.2	4.3	10.9	100.0
	익산시의 문화재, 유적지 등 역사자원이 잘 보존되고 있다	2.0	22.9	50.6	12.0	12.5	100.0
	익산시의 전통문화, 축제, 유적지 등을 관광문화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3.0	24.9	48.8	12.4	10.9	100.0
교 육	초/중/고등학교 등 정규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4.8	23.2	50.4	9.9	11.7	100.0
	나이, 성별,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7.1	40.5	24.8	5.3	22.3	100.0
교 통	공용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다	13.4	48.4	23.7	4.1	10.4	100.0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12.1	39.4	40.1	3.3	5.1	100.0
	버스정류장 위치가 알맞게 되어 있다	8.4	31.6	47.3	4.1	8.6	100.0
	버스배차 간격이 알맞게 운행되고 있다	11.2	33.5	42.1	3.3	9.9	100.0
	버스노선이 다양하게 운행되고 있다	10.4	35.4	38.3	5.3	10.6	100.0
	버스 기사가 친절하고 안전운전을 한다	9.6	27.1	46.1	6.3	10.9	100.0
	택시이용이 편리하고 친절하다	11.4	30.4	43.5	8.4	6.3	100.0
	보도블록이 잘 정비되어 보행이 편리하다	12.5	42.9	35.5	4.8	4.3	100.0
	자전거 도로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19.4	47.1	21.9	3.8	7.8	100.0
안 전	각종 사건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0.7	41.4	24.5	3.8	9.6	100.0
	화재나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이 잘 되어 있다	7.3	36.9	33.1	5.3	17.4	100.0
경 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주변 경관이 아름답다	8.1	37.6	39.2	8.3	6.8	100.0
	간판, 가로등,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모양)이 주변환경과 조화롭다	9.4	48.1	29.3	6.1	7.1	100.0
	건축물, 도로 등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롭다	7.3	44.8	31.3	7.3	9.3	100.0

분야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합계
	내용						
환경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이 풍부하다	11.3	51.1	27.5	2.0	8.1	100.0
	물, 공기 등이 깨끗하고 쾌적하다	6.0	41.8	43.9	4.3	4.0	100.0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6.1	42.1	41.1	3.8	6.9	100.0
의료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가깝다	5.6	19.3	60.9	12.2	2.0	100.0
	규도별(개인병원/종합병원), 종류별(치과/안과/산부인과 등)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6.0	19.2	57.9	9.8	7.1	100.0
주거	쓰레기 처리가 편리하다	5.3	35.4	43.3	5.6	10.4	100.0
	집에서 출퇴근 또는 통합하는 것이 편리하다	8.7	32.3	45.2	7.4	6.4	100.0
	주거지 주변 환경(길, 공원, 녹지 등)이 쾌적하다	4.0	38.1	46.3	4.8	6.8	100.0
	생활편의시설(음식점, 슈퍼, 시장, 은행 등)과의 거리가 가깝다	6.3	19.5	59.8	11.4	3.0	100.0
	생활편의시설(음식점, 슈퍼, 시장, 은행 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7.1	22.5	56.3	10.6	3.5	100.0
	집에서 문화시설과의 거리가 가깝다	14.4	46.7	27.7	5.1	6.1	100.0
보육	가정 또는 직장에서 보육시설이 가깝다	11.2	34.3	31.4	4.3	18.8	100.0
	연령대별, 시간대별 보육시설이 다양하다	8.7	37.4	23.4	2.0	28.5	100.0
	보육시설 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하다	6.6	32.3	28.1	2.6	30.4	100.0
복지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복지시설이 다양하다	8.1	39.5	23.0	4.1	25.3	100.0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용자를 고려하여 편리하게 건축되었다	7.6	35.4	25.5	3.5	28.0	100.0
	복지시설이 가깝다	10.4	40.9	26.1	2.8	19.8	100.0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7.9	35.9	23.2	3.3	29.7	100.0
행정	시민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	13.3	43.0	21.5	2.8	19.4	100.0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14.6	37.9	25.8	3.3	18.4	100.0

● 익산시의 문제

- 익산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일자리 분야로 꼽았으며, 1순위와 2순위에 가중치를 각각 300%, 200%를 주었을 때 일자리>교통>문화 분야 순으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일자리가 시급한 이유로는 다양한 일자리의 부족, 낮은 임금, 인구유출의 원인이라는 응답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교통분야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교통 인프라의 부족,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주차시설의 부족 등이 높은 빈도로 조사됨. 문화분야의 경우 다양하지 않은 문화시설의 종류가 주를 이루었으며, 문화시설이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도 나타남

익산시 시급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합계	가중치 부여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주거	18	4.7	19	5.2	10	2.8	47	102
일자리	148	38.2	63	16.8	30	8.4	241	600
문화	43	11.1	56	14.2	53	14.8	152	294
교육	12	3.1	33	8.8	40	11.2	85	142
교통	67	17.4	41	11.0	44	12.3	152	327
안전	36	9.3	53	14.2	36	10.1	125	250
경관	1	0.3	11	2.9	12	3.4	24	37
환경	13	3.4	23	6.1	49	13.7	85	134
의료	18	4.7	21	5.6	26	7.3	65	122
보육	5	1.3	14	3.7	16	4.5	35	59
복지	25	6.5	43	11.5	41	11.5	109	202
합계	386	100.0	377	100.0	357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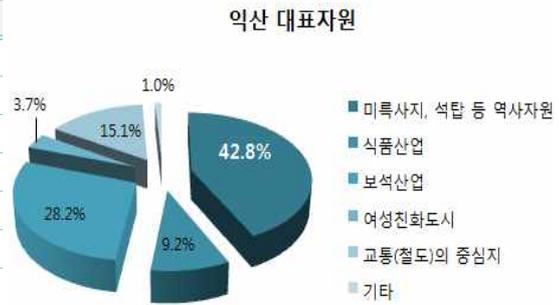
- 거주지역,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일자리>교통>문화 순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남
-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익산시의 교통에 대하여 느끼는 문제의식이 도시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나 농촌지역의 교통인프라의 미비로 인한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주거	일자리	문화	교육	교통	안전	경관	환경	의료	보육	복지	합계	
여성	남	10대	0	2	0	0	1	0	0	1	0	0	0	4
		20대	6	24	6	2	8	3	0	5	1	0	0	55
		30대	1	14	1	1	2	2	0	0	2	0	1	24
		40대	0	13	0	0	5	1	0	4	2	0	2	27
		50대	1	8	0	0	3	2	0	0	1	0	2	17
		60대	0	0	0	1	0	0	0	0	0	0	0	1
		70대	0	0	0	0	0	0	0	0	1	0	0	1
		80대	0	0	0	0	0	0	0	0	0	0	0	0
	여	10대	0	0	2	0	1	2	0	0	0	0	0	5
		20대	0	28	18	0	12	9	0	1	0	1	7	76
		30대	1	12	2	1	5	4	0	1	1	2	5	34
		40대	2	14	4	4	1	2	0	0	1	0	1	29
		50대	1	5	2	0	2	0	0	1	1	0	1	13
		60대	0	2	0	0	2	0	0	0	1	0	1	6
		70대	0	0	0	0	0	0	0	0	0	0	0	0
		80대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2	122	35	9	42	25	0	13	11	3	20	292	
남녀 모두	남	10대	0	1	0	0	0	1	0	0	0	0	0	2
		20대	0	6	0	0	4	0	0	0	1	0	1	12
		30대	0	3	1	0	1	0	0	0	0	0	0	5
		40대	0	3	0	0	3	0	0	0	1	0	0	7
		50대	3	3	0	1	2	0	0	0	1	0	0	10
		60대	0	2	0	0	0	1	0	0	0	0	0	3
		70대	0	0	0	0	0	0	0	0	1	0	0	1
		80대	0	0	0	0	0	0	0	0	0	0	0	0
	여	10대	0	1	0	0	0	0	0	0	0	0	0	1
		20대	0	4	1	0	7	3	0	0	0	0	2	17
		30대	0	0	2	0	4	1	1	0	1	1	1	11
		40대	1	1	4	1	3	1	0	0	1	1	0	13
		50대	1	2	0	0	0	3	0	0	1	0	0	7
		60대	0	0	0	1	0	1	0	0	0	0	0	2
		70대	0	0	0	0	0	0	0	0	0	0	0	0
		80대	1	0	0	0	0	0	0	0	0	0	0	1
합계		6	26	8	3	24	11	1	0	7	2	4	92	

● **익산시 대표자원**

- 익산시의 대표적인 자원으로는 173명 42.8%가 미륵사지, 석탑 등의 역사적 자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14명 28.2%가 보석산업이라고 응답함
- 기타의견으로는 원광대 1명, 다문화센터 1명, 모름 1명, 없음 2명으로 조사됨

익산시 대표자원	빈도(명)	백분율(%)
미륵사지, 석탑 등 역사자원	173	42.8
식품산업	37	9.2
보석산업	114	28.2
여성친화도시	15	3.7
교통(철도)의 중심지	61	15.1
기타	4	1.0
합계	404	100.0



5) 익산의 미래

● **살기 좋은 도시**

- 응답자가 생각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1순위 일하기 좋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2순위 교통이 편리한 도시, 3순위 풍부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익산시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와 일관성 있게 나타남

살고 싶은 도시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합계	기중치 부여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	35	8.8	21	5.3	27	6.8	83	174
일하기 좋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	138	34.8	49	12.3	37	9.3	224	549
풍부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	38	9.6	56	14.1	55	13.9	149	281
교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도시	25	6.3	42	10.6	22	5.5	89	181
교통이 편리한 도시	45	11.3	59	14.9	38	9.6	142	291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45	11.3	52	13.1	41	10.3	138	280
도시경관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	9	2.3	12	3.0	21	5.3	42	72
녹지 등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쾌적한 도시	14	3.5	15	3.8	28	7.1	57	100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도시	9	2.3	29	7.3	35	8.8	73	120
보육기반이 잘 갖추어진 도시	3	0.8	20	5.0	11	2.8	34	60
복지혜택 및 체계가 잘 갖추어진 도시	26	6.5	29	7.3	70	17.6	125	206
무응답	10	2.5	13	3.3	12	3.0	-	-
합계	397	100.0	397	100.0	397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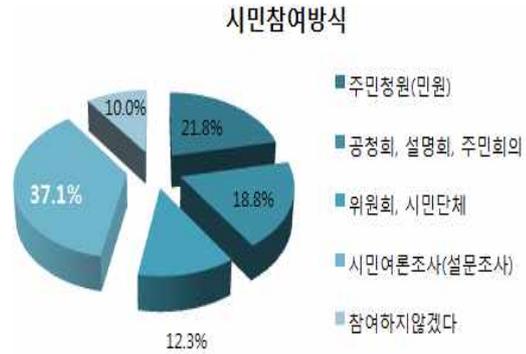
- 도시지역의 경우 일하기 좋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응답하여 지역 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구분	주거	일자리	문화	교육	교통	안전	경관	환경	의료	보육	복지	합계	
이 면	남	10대	0	2	0	0	0	1	0	1	0	0	4
		20대	6	23	8	1	6	4	1	0	1	0	55
		30대	3	13	1	2	1	2	0	1	1	0	24
		40대	2	15	1	0	3	1	1	0	1	1	27
		50대	1	7	3	0	3	1	0	2	0	0	18
		60대	0	0	0	1	0	0	0	0	0	0	1
		70대	0	0	0	0	0	0	0	0	0	0	1
		80대	0	0	0	0	0	0	0	0	0	0	0
	여	10대	0	0	1	1	1	2	0	0	0	0	5
		20대	5	30	8	2	5	15	1	4	1	0	77
		30대	1	14	3	3	3	7	0	0	1	0	34
		40대	3	13	1	4	0	3	0	2	2	1	29
		50대	2	3	1	1	1	0	2	0	0	0	13
		60대	1	1	0	1	0	1	0	1	0	0	7
		70대	0	0	0	0	0	0	0	0	0	0	0
		80대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4	121	27	16	23	37	5	11	7	2	22	295	
면 평 면	남	10대	0	2	1	0	0	0	0	0	0	0	3
		20대	2	1	0	0	4	0	2	2	0	0	12
		30대	1	1	1	1	0	0	0	0	0	0	4
		40대	0	1	0	2	3	0	0	0	0	0	6
		50대	3	1	0	2	2	0	1	0	0	0	10
		60대	0	1	0	0	1	0	0	1	0	0	3
		70대	0	0	0	1	0	0	0	0	0	0	1
		80대	0	0	0	0	0	0	0	0	0	0	0
	여	10대	0	0	0	0	1	0	0	0	0	0	1
		20대	1	3	2	1	2	3	1	0	1	0	16
		30대	2	0	2	1	3	2	0	0	0	0	10
		40대	0	4	4	1	3	0	0	0	1	0	13
		50대	0	2	0	0	3	1	0	0	1	0	7
		60대	1	0	0	0	0	1	0	0	0	0	2
		70대	0	0	0	0	0	0	0	0	0	0	0
		80대	0	0	0	0	0	1	0	0	0	0	1
합계	10	16	10	9	22	8	4	3	2	1	4	89	

● 시민참여방식

-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 방식으로 148명 37.1%가 시민여론조사(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반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87명 21.8%가 주민청원 및 민원 등을 통한 요구와 의견제시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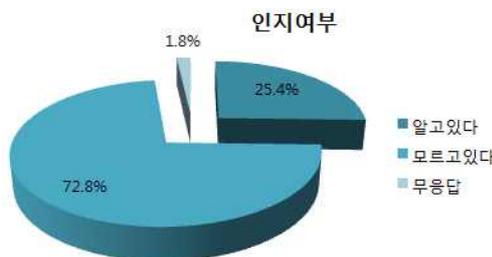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백분율(%)
주민청원(민원)	87	21.8
공청회, 설명회, 주민회의	75	18.8
위원회, 시민단체	49	12.3
시민여론조사(설문조사)	148	37.1
참여하지않겠다	40	10.0
기타	0	0.0
합계	399	100.0



6) 여성친화도시

● 인지여부

-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72.8% 289명은 익산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제 1호 여성친화도시」 라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1명 25.4%는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여성 응답자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하여 남성보다 알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약 70% 정도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의 경우 약 80% 가까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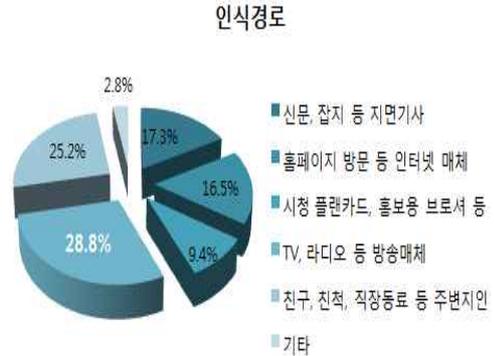
구분	여성친화도시 인지여부		합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도시	여자	29.6	70.4	100.0
	남자	22.3	77.7	100.0
농촌	여자	30.2	69.8	100.0
	남자	14.3	85.7	100.0

● 인식경로

- 여성친화도시지정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10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에 대한 인식경로에 대한 물음에 40명 28.8%가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

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5.2%가 주변지인으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응
답해 매체를 활용한 방법 또는 입소문에 의한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신문, 잡지 등 지면기사	24	17.3
홈페이지 방문 등 인터넷 매체	23	16.5
시청 플랜카드, 홍보용 브로셔 등	13	9.4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40	28.8
친구, 친척, 직장동료 등 주변지인	35	25.2
기타	4	2.8
합계	139	100.0



● 여성친화도시 실천분야

- 실천분야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물음에 보행편의개선(보도정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분야별로는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분야(36.1%)가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건축물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분야(33.1%)의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4대 실천분야에 대하여 응답자의 높은 비율이 사업에 대하여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 특히 주말가족 농장운영(58.5%), 농촌여성 권익향상지원(55.9%), 여성친화도시 의견수렴함 운영(54.2%) 등에 대한 의견에 과반 수 이상이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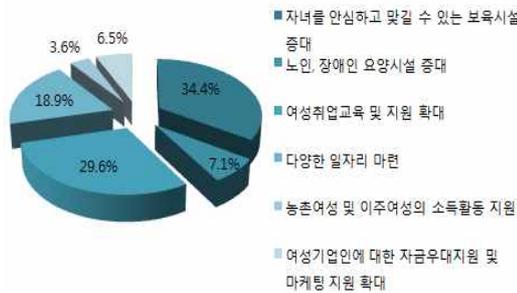
분야	구분		사업에 대해 잘 모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합계
	내용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		38.1	3.7	29.1	25.4	3.7	100.0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		46.1	6.1	27.3	18.2	2.3	100.0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47.0	6.8	24.2	18.2	3.8	100.0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공원시설의 여성친화적 개선		34.1	6.1	25.0	31.8	3.0	100.0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		37.4	9.9	26.0	25.2	1.5	100.0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30.2	11.6	24.8	29.5	3.9	100.0
	보행편의개선(보도정비)		28.3	13.0	28.2	29.0	1.5	100.0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26.6	8.4	26.0	34.4	4.6	100.0
	안전보장을 위한 CCTV설치		32.8	13.0	24.4	20.6	9.2	100.0
공공건축물 여성친화적 리모델링	보육시설 기능 보강(환경개선 등)		50.4	1.5	16.0	32.1	0.0	100.0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서비스 제공		43.9	3.8	15.2	33.3	3.8	100.0
	모유 수유실 조성(도서관)		47.3	5.4	17.1	27.9	2.3	100.0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41.8	3.9	20.2	31.0	3.1	100.0
	여성을 위한 콜택시 운영		41.2	7.6	22.9	21.4	6.9	100.0
	농촌여성 권익향상지원		55.9	6.3	16.5	20.5	0.8	100.0
	임산부 280 건강관리 서비스		53.0	6.3	10.2	25.8	4.7	100.0
	여성친화도시 의견수렴함 운영		54.2	2.3	19.4	19.4	4.7	100.0
	길거리 음악회		46.9	8.5	12.3	28.5	3.8	100.0
	주말가족 농장 운영		58.5	2.3	13.1	24.6	1.5	100.0

●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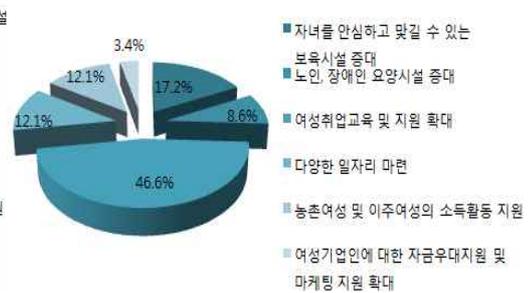
-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118명 28.3%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직장 내 보육시설, 시간 연장 등) 수의 증대라고 응답함
- 112명 26.9%가 여성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등 여성취업(창업)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함. 105명 25.2%는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함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보육시설의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여성취업교육 및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일자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과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합계 백분율	도시(%)		농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자녀를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보육시설 증대	28.3	34.3	28.6	17.2	18.3
노인, 장애인 요양시설 증대	8.6	7.1	8.4	8.6	13.6
여성취업교육 및 지원 확대	26.9	29.6	20.3	46.6	13.6
다양한 일자리 마련	25.2	18.9	33.6	12.1	40.9
농촌여성 및 이주여성의 소득활동 지원	5.5	3.6	4.2	12.1	9.1
여성기업인에 대한 자금우대지원 및 마케팅 지원 확대	5.5	6.5	4.9	3.4	4.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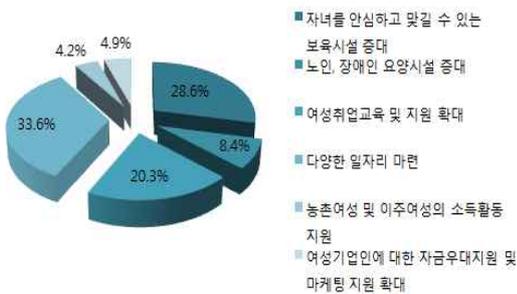
도시거주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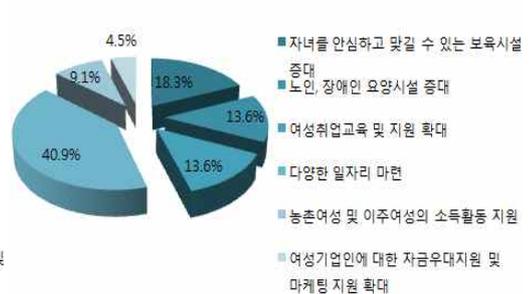
농촌거주 여자



도시거주 남자



농촌거주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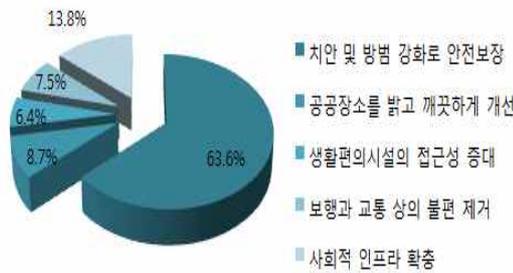


●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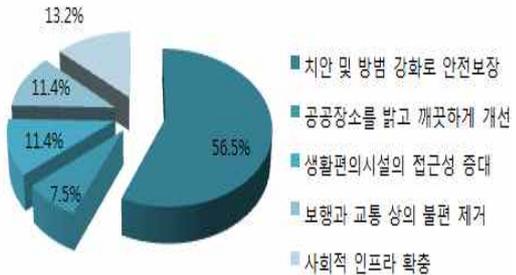
- 익산시가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지의 어두운 골목길의 가로등 정비, CCTV 설치로 치안, 방범 강화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227명 55.6%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함
- 교육,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61명 15.0%, 주거지 주변이 쾌적하고 가까운 곳에 상가, 은행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야한다 42명 10.2% 순으로 조사됨
- 지역 및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치안 및 방범 강화로 지역주민의 안전보장이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함

여성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	합계 백분율	도시(%)		농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치안 및 방법 강화로 안전보장	55.6	63.6	48.5	56.5	44.2
공공장소를 밝고 깨끗하게 개선	9.6	8.7	11.8	7.5	7.0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증대	10.2	6.4	14.0	11.4	14.0
보행과 교통 상의 불편 제거	9.6	7.5	10.3	11.4	14.0
사회적 인프라 확충	15.0	13.8	15.4	13.2	20.9
합계	100.0	100.0	100	100.0	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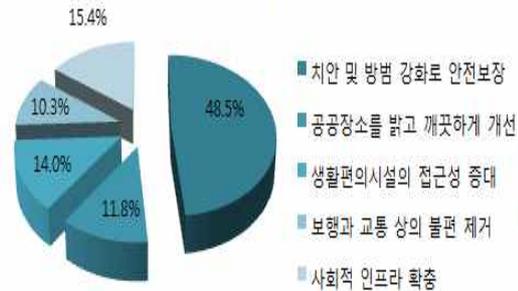
도시거주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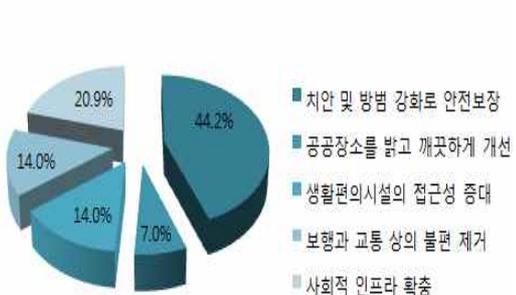
농촌거주 여자



도시거주 남자



농촌거주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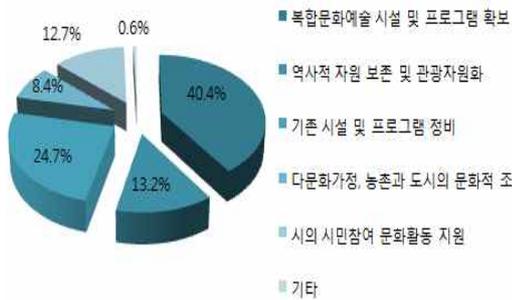
● 문화적으로 활성화된 도시

- 익산시가 문화적으로 활성화된 도시가 되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응답자의 36.5%인 146명이 선택의 폭이 넓고 상시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함
- 미륵사지, 석탑, 왕궁터 등 익산시의 역사적 자원을 잘 보존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86명 21.5%, 익산시여성회관, 주민센터 등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잘 정비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71명 17.8% 순으로 조사됨
- 지역 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과 비슷한 상태를 보임. 그러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다문화가정, 농촌과 도시가 문화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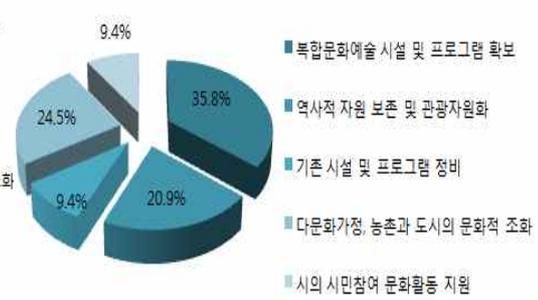
의견이 다른 유형의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남

문화적으로 활성화된 도시	합계 백분율	도시(%)		농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다양하고 상시 이용가능한 복합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확보	36.5	40.4	30.4	35.8	39.5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21.5	13.2	30.4	20.9	27.9
기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활성화	17.8	24.7	15.6	9.4	9.3
다문화가정, 농촌과 도시가 문화적으로 조화	11.5	8.4	8.1	24.5	16.3
시의 지원을 통한 시민참여 문화활동을 활성화	12.5	12.7	15.5	9.4	7.0
기타	0.2	0.6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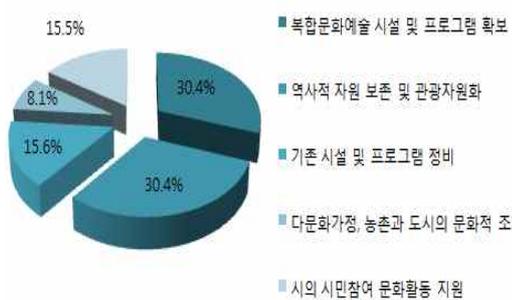
도시거주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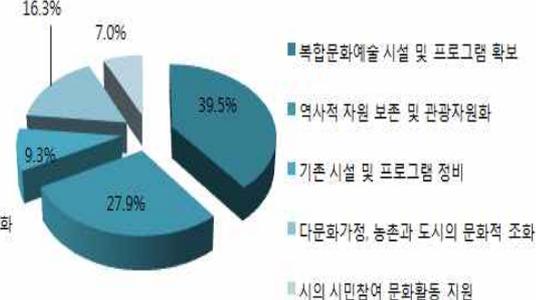
농촌거주 여자



도시거주 남자



농촌거주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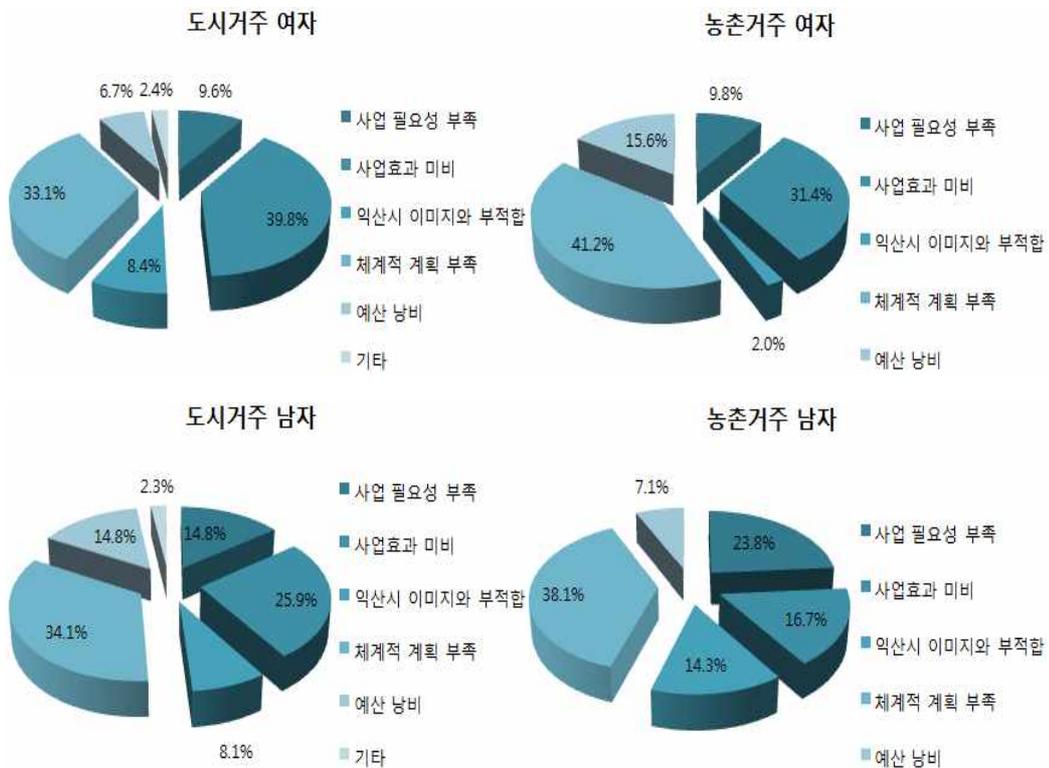


●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 문제점으로 140명 35.3%가 체계적인 계획부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24명 31.2%가 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응답함
- 51명 12.8%는 사업의 필요성 부족, 42명 10.6%는 예산낭비, 33명 8.3%가 익산시 이미지와 부적합하다고 응답함
- 기타의견으로는 홍보부족 7명, 모두다 문제점이 되었다는 의견이 1명으로 조사됨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39.8%는 사업효과가 거의 없는 점을 문제점이라고 응답

하였으며, 체계적인 계획의 부족도 33.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도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체계적인 계획의 부족(41.2%), 사업효과의 미비(31.4%) 순으로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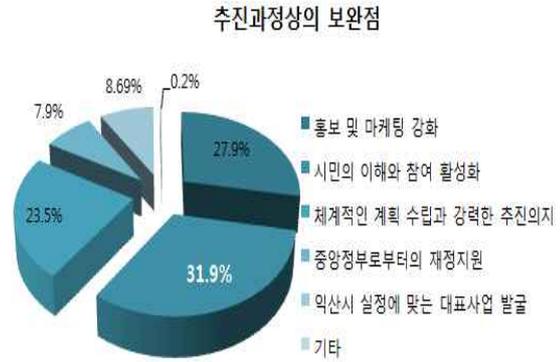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합계 백분율	도시(%)		농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사업 필요성 부족	12.8	9.6	14.8	9.8	23.8
사업효과 미비	31.2	39.8	25.9	31.4	16.7
익산시 이미지와 부적합	8.3	8.4	8.1	2.0	14.3
체계적 계획 부족	35.3	33.1	34.1	41.2	38.1
예산 낭비	10.6	6.7	14.8	15.6	7.1
기타	1.8	2.4	2.3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보완점

- 여성친화도시의 과정상의 보완점으로는 129명 31.9%가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13명 27.9%가 홍보 및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기타의견으로는 사업이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명, 홍보부족 1명, 모두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 1명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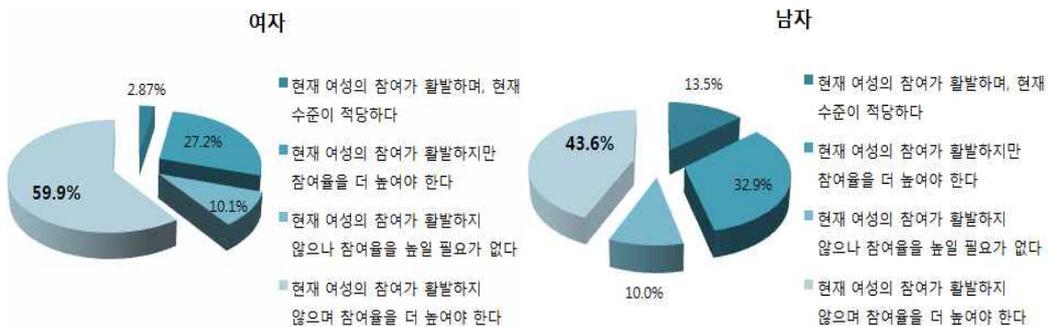
추진 과정상의 보완점	빈도(명)	백분율(%)
홍보 및 마케팅 강화	113	27.9
시민의 이해와 참여 활성화	129	31.9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강력한 추진의지	95	23.5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32	7.9
익산시 실정에 맞는 대표사업 발굴	35	8.6
기타	1	0.2
합계	405	100.0



● 여성의 참여현황

-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으며 여성의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없었으나 응답한 비율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됨
- 성별에 따른 생각의 차이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가 현재의 참여상황에 대하여 더 부정적이었으며,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여성참여현황	백분율(%)				
	합계	여자	남자	도시	농촌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며,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7.9	2.8	13.5	6.8	11.7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만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	10.0	27.2	32.9	31.3	23.7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으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	29.5	10.1	10.0	11.1	6.5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으며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	52.6	59.9	43.6	50.8	5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응답자 가운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남자 응답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남자 응답자보다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며, 현재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2배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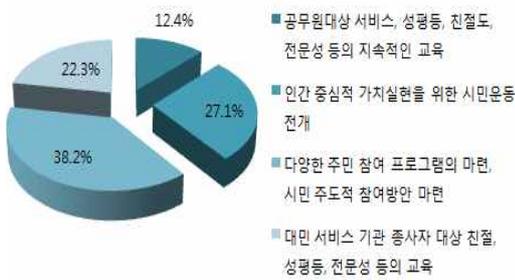
여성참여현황	도시		농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며,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2.4	10.9	3.8	22.0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만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	27.3	37.2	26.9	19.5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으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	10.9	11.6	7.8	4.8
현재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으며 참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	59.4	40.3	61.5	53.7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필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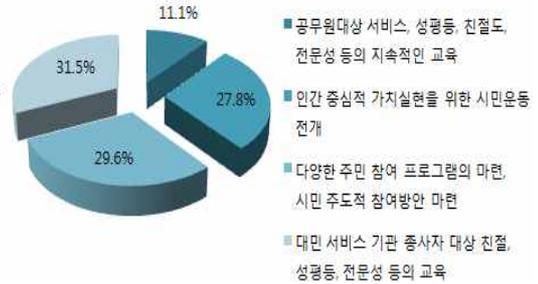
-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응답자의 38.3%가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마련과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시민 주도적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응답함
- 27.2%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인간 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22.5%가 복지관, 여성회관, 도서관 등 대민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성평등, 전문성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성별 및 지역별 응답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응답이 전체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의 경우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마련 및 시민주도참여 방안은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됨
-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마련 및 시민주도참여 방안이 전체응답률보다 낮게 조사되었으나 대민서비스기관의 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조사됨

여성 참여 현황	합계 백분율	도시		농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공무원대상 서비스, 성평등, 친절도, 전문성 등의 지속적인 교육	11.7	12.4	10.7	11.1	14.3
인간 중심적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27.2	27.1	26.7	27.8	26.2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마련, 시민 주도적 참여방안 마련	38.3	38.2	42.7	29.6	35.7
대민 서비스 기관 종사자 대상 친절, 성평등, 전문성 등의 교육	22.5	22.3	19.1	31.5	23.8
기타	0.3	0.0	0.8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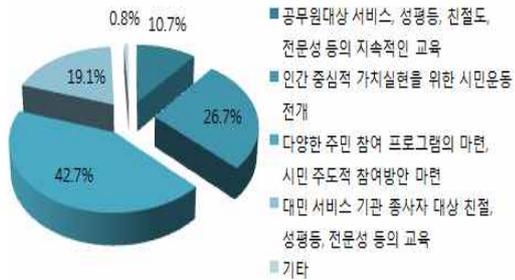
도시거주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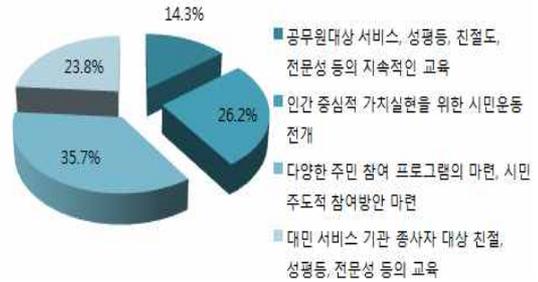
농촌거주 여자



도시거주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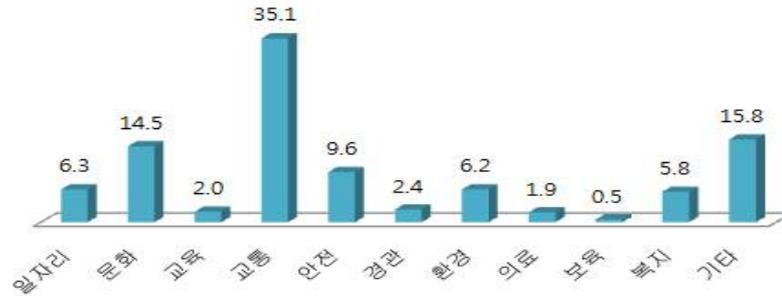
농촌거주 남자



7) 개선 희망 사항

- 일상생활 속에서 익산시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각 분야별 불편사항



개선 희망 사항		빈도(명)	백분율(%)
일자리	일자리 해결(기업유치 등)	8	3.8
	여성일자리 확보	2	1.0
	저임금 문제 해결	2	1.0
	고용환경 개선	1	0.5
문화	문화시설 부족	27	13.0
	도서관부족	2	1.0
	청소년문화시설 부족	1	0.5
교육	교육시설 부족	1	0.5
	교육의 질 향상	1	0.5
	사교육비 절감	2	1.0
교통	교통불편(버스운행시간 연장, 배차간격 조정, 버스기사 불친절)	31	14.9
	버스노선 미흡	10	4.8
	공용주차장 부족	9	4.3
	교통체계불편	8	3.8
	교통인프라 확충(도로정비, 보도블럭, 자전거도로 정비 등)	5	2.4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5	2.4
	택시기사 불친절	4	1.9
	여성전용주차장 폐쇄	1	0.5

개 선 희 망 사 항		빈도(명)	백분율(%)
안전	지역주민 안전보장(CCTV설치, 가로등 설치)	13	6.2
	통행불편(жат은 공사)	6	2.9
	사건사고의 신속한 처리	1	0.5
경관	공원부족	3	1.4
	녹지부족	2	1.0
환경	유형업소 단속	3	1.4
	개발중지	3	1.4
	환경개선예산낭비	3	1.4
	쓰레기 처리문제	2	1.0
	거리환경개선	1	0.5
	청소인력확충	1	0.5
의료	의료시설 부족	3	1.4
	의료서비스 확대	1	0.5
보육	보육시설 부족	1	0.5
복지	복지시설부족	5	2.4
	복지혜택미흡	4	1.9
	체계적인 복지계획 수립	1	0.5
	여성종합복지관 시설 건립	1	0.5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1	0.5
기타	도·농간 격차 해소	10	4.8
	생활편의시설 부족	5	2.4
	재래시장 활성화	4	1.9
	시민의식 부족	3	1.4
	기타	11	5.3
합 계		208	100.0

■ 참여연구진

책 임 연 구 원	노 병 옥	(주) 도시경영연구원
연 구 원	위 권 일	(주) 도시경영연구원
	김 석 준	(주) 도시경영연구원
	김 희 조	(주) 도시경영연구원
	김 정 현	(주) 도시경영연구원
	오 화 미	(주) 도시경영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이 동 권
연 구 보 조 원	김 지 혜	(주) 도시경영연구원
	강 선 주	(주) 도시경영연구원
	공 동 연 구	홍달아기